



4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4호

(루계 594)

◇◇◇◇◇◇◇◇◇◇

차례

◇◇◇◇◇◇◇◇◇◇



조선의 노래	4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는 문학적형상으로 천세만세 길이 전하자	6
하늘같은 그 은덕을 노래합니다	7
만경대의 봄	8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의의	9
하늘	15
우리의 봄은...	15
북바디소리	16
붉은 눈보라	17
백두산날씨	24
우리의 봄	25
백송리의 봄	28
사랑의 부채	29

만경대를 그리시며	33
우리의 하늘	34
아! 4월이여, 목메이는 그리움이여...	46
방직공의 노래	47
들려오는 자애로운 그 음성 (외1편)	58
인민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	58
전설의 명장	59
1997년 조선의 답시	60
영원한 봄의 노래	61
어제는 동해천리 오늘은 서해천리	63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64
위대한 사열	66
뜻깊은 건군절의 날에 (외1편)	67
조국은 그 자욱 길히 전하리	67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창작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문헌 ...	68
명언을 들으며	72
숲을 가꾸는 마음	73
흰들국화	74

조선의 노래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그어데 찾아볼수 있을까

삼천리 강산에 은금보화 넘치고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간악한 왜놈들 이 땅에서 내쫓고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는 문학적형상으로 천세만세 길이 전하자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르신 이 뜻깊은 날을 맞는 우리 작가들은 우리 겨레와 민족, 진보적인류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 혁명의 험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광휘롭게 빛나고있으며 세기와 더불어 영원무궁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을 맞는 우리 작가들은 수령님께서 생전에 쌓아올리신 그 모든 불멸의 혁명업적을 심장깊이 간직하며 빛나는 문학형상으로 영원히 길이 전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이 안겨준 최대의 특전이며 최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느 시대, 어느 작가도 누릴수 없었던 최대의 영예를 지니고 지난 기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형상에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 문학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방대한 장편소설군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해방전편을 훌륭히 완성하였으며 해방후편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에 있어서 수령형상은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창조되고있으며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핵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잘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이 전하는것은 우리 세대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이 과업을 후대에게 넘겨줄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서 인류문예사적본보기를 창조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수령형상문학의 성과를 더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은 가장 위대하고 성스럽고 빛나는 문학이다.

수령이 위대할수록 수령형상문학은 위대한 문학으로 된다.

우리 문학이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하고있는 수령형상은 아직도 인류문학이 지너보지 못한 새로운 형상세계이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조금도 자만할 근거가 없다.

우리 문학이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는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더우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나신 력사의 시점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가장 위대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고있으며 그이를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절절한 지향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수령형상문학에서 탐구와 사색,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한 주체의 위대한 태양을 문학형상에 모신다는 최대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형상창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하며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더 감동깊이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에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수령의 위대성을 특별히 강조하여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준엄한 정세를 타개하고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으로 전투를 벌려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두자루의 권총과 몇사람의 동지로 강도 일제를 대상으로 하여 항일대전을 선포하시고 조국해방의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싸워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 빈터우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령도하시여 가장 존엄높고 강위력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그 위대한 공적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거대한 심장이 낳은 불멸의 위업인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인간이 지닌 담력과 배짱에 대하여 형상적으로 깊이있고 감동깊게 재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그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책동하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온갖 원썩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자의 대행진으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담력과 랑만을 가지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수령형상문학에서 특별히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미학적문제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동지애의 철학을 심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랑과 믿음의 철학에 기초하여 모든 혁명투쟁을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벌려오시였으며 한평생 온갖 난관을 맞받아나가며 싸워 승리를 이룩하실 때에도 동지애의 위대한 철학으로 모든 만난을 이겨내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님의 이러한 동지애의 철학관을 형상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림으로써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독특한 혁명철학을 지니신 가

장 위대한 분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형상하여야 한다.

오늘 수령형상문학에서 우리 작가들이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장장 80여성상을 헤쳐오시면서 인간이 겪을수 있는 모든 시련과 마음고생을 다 겪으신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작품에는 수령님의 그 깊은 내면심리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과정을 비롯하여 수령형상문학작품창작의 경험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의 내부적체험세계, 심리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할 때에 그 감화력이 더욱 높아진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작가가 높은 정치적자각과 함께 풍부한 창작적 자질, 재능을 소유하여야 한다.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을 창조하여야 하는 수령형상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려면 작가의 자질이 비상히 높아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한층 높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작품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잘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시대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모든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형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는 형상으로 천세만세 길이 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하늘같은 그 은덕을 노래합니다

송찬웅

하늘도 우리 하늘 해빛넘치고
강산도 우리 강산 행복넘쳐라
인민세상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
하늘같은 그 은덕을 노래합니다

지난날 설움많던 인민을 안아
락원의 봄언덕에 세워주셨네
사람마다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하늘같은 그 은덕을 노래합니다

수령님 한생바쳐 베푸신 사랑
장군님 한품속에 더욱 꽃피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사는
하늘같은 그 은덕을 노래합니다

아 수령님 베풀어주신
하늘같은 그 은덕을 노래합니다

만경대의 봄

리석

한껏 부푼 그리움에
마음도 꽃도 망울 터치는
봄
4월의 봄

봄이 오니
4월의 봄이 오니
온 나라의 마음
인류의 마음
여기에 다 모였는가
꽃속에 묻힌 고향집 프락엔
사람들 발걸음 그칠새 없어라

오고싶어
오며는 뵈울듯싶어
서둘러지던 마음이건만
사립문앞에 서니
마음은 승엄해지고
뜨겁게 밟혀오는
수령님의 첫자욱

이 사립문 나서시여
어두운 압제의 검은 구름을 헤치시며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려
첫자욱 내디디시던 그날의 수령님 영상
승엄히 마음속에 안겨와라

그날로부터
넘고넘은 혈전의 고개는 얼마이더냐
헤쳐넘은 불바다는 얼마이더냐
밀림속 우등불가에서도
피어린 행군길에서도
언제나 그리시던 고향집이건만
수령님 다시 돌아오시는 길

그 얼마나 멀었더냐

자욱자욱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온 나라 집집은 다 다녀보시면서도
우리 수령님 생전에 한번
마음 편히 찾으신적 없던
추억많은 고향집의 봄
꽃피는 봄

뜨거운 마음속에
수령님을 생각하는 봄
만경대고향집 이 봄이 있어
백두의 2월을 안아온
력사의 그 아침도 밝았더라

아, 봄은 봄이여도
깊어지는 생각으로
한없이 뜨거운 봄이여

우리 수령님
이 사립문 나서시며 품으신 뜻
우리 장군님
백두의 성스러운 붉은기로 곳곳이 이어가시며
바치시는 그 충효가 뜨거워
가슴속에 뜨거운 봄
간절한 축원속에 꽃피는 봄

아, 만경대의 봄
4월의 봄과 함께
인민의 어버이 영원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하시리라
인민의 마음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의의

장형준

오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높은 경모의 마음을 안고 그이의 탄생 85돐을 뜻깊게 맞이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문예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업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이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여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수많은 창작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높고 심오하며 형태상으로도 혁명연극, 혁명가극, 혁명시가, 동화, 유희극, 가무 등 그 영역이 비상히 넓고 풍부하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에게 모든것을 다 바쳐 복무하신 위대한 애국자, 결출한 정치가의 영광스러운 력사인 동시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수많은 창작하신 대문호의 빛나는 생애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우리 수령님과 같이 그렇게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한 그런 위대한 령도자는 없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넘겨주신 가장 고귀한 혁명적문예유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가진것은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과 같은 혁명적인 우수한 문예유산을 가지고있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민은 없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들을 혁명승리로 불려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주체문학예술의 발전을 떠밀어주고 그 창작을 선도하여주는 위대한 귀감으로, 나아가서 자주시대 인류문학예술의 진로를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

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그 내용의 심오성과 혁명성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내용의 심오성과 혁명성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있게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활을 보고 그린 주체의 인간학의 본보기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에는 어떤 주제, 어떤 형태의 작품을 막론하고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가 빛나게 구현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에는 주인공들의 운명선을 통해 제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이 심오하게 구현되어있다. 그리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 국회》**는 주인공 리준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하여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나라의 독립은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투쟁해야만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로 사람들을 무장시켜준다.

이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피바다》**, **《꽃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혁명적주체의 작품에서는 물론 **《성황당》**과 같은 계몽주체의 작품이나 주체사상이 창시되기전의 인간들을 형상한 력사물주체의 작품에서조차 주체사상의 진리가 힘있게 구현되어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 결사전에서 우리 인민을 영예로운 승리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을 붉은기사상,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인민을 붉은기사상과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무장시키는 힘있는 사상적무기이다. 그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주체의 혁명관과 혁명적인생관에 기초하여 붉은기사상의 체현자들, **《고난의 행군》**정신의 창조자들을 빛나게 형상하고 작품에 그 사상, 그 정신을 힘있게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번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 높이 만세부르자

이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1차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축하를 만나 교열에 시달리시며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의 마지막절이다. 여기에는 붉은기사상,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힘차게 나래치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혁명시가의 서정적주인공들과 혁명연극의 주인공들은 다 혁명적수령관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불굴의 투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라관주의정신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자주적인간의 참다운 전형들이다. 이들은 모두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 혁명적인생관의 체현자들이다.

그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인민을 붉은기사상과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명작의 주인공들처럼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새해 공동사설에 천명되어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고난의 행군》 정신에서 핵을 이루고있는것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숭배심과 필승의 신념,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인식과 체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지으신 송시 **《광명성찬가》**는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품모와 위대성을 웅대하고 장엄한 상징적화폭과 심오한 철학적정식화로 격조높이 칭송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송시는 우리 인민에게 령도자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체득시킴으로써 령도자를 높이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도록 그들을 고무하여준다.

붉은기사상, **《고난의 행군》** 정신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우리 수령, 우리 령도자가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고 우리 인민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녀야 우리 인민이 조선의 녀를 간직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곳곳이 싸워나갈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인민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 힘있는 교양수단이다.

다.

우리 인민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명작에 구현된 수령님의 사상이 얼마나 고귀하고 혁명적인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되는것은 거기에 우리 령도자가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고 우리 인민이 제일이라는 사상이 힘있게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다 체현되어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송가작품들에 일관되어 있는 기본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인 1928년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에서는 아름다운 조국강산과 슬기로운 력사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랑의 감정을 통하여 내나라가 제일이라는 사상이, 수령님께서 1979년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모향산 가을날에》**에서는 로동당시대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사상이, 그리고 그이께서 1992년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광명성찬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높은 칭송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 령도자가 제일이라는 사상이 강렬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기에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랑을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과 도발에도 끄떡하지 않고 주체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상에 떨쳐나가게 하는 강력한 활력소, 고귀한 혁명적량식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생활은 물론 매우 간고하다. 그러나 **《피바다》**의 순녀, **《꽃피는 처녀》**의 꽃분비,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감룡이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주인공들이 겪은 그 피눈물나는 생활에 비해볼 때 오늘 우리 인민이 겪는 곤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작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에서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의 길에 나서 투쟁속에서 혁명가의 삶을 빛내인 시대의 영웅, **《고난의 행군》**의 선구자들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그 주인공들의 생활과 투쟁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그들처럼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혁

명적락관에 넘쳐 영웅적으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깨우쳐주고 이끌어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붉은기사상과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위대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크나큰 감화력과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의의는 또한 그것이 혁명적문예전통의 핵으로서 주체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 만년초석으로 되고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역사적위업인것만큼 그것은 혁명적문예전통이 창시되고 계승되며 완수되는 역사적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혁명적문예전통은 새로운 문학예술건설의 역사적뿌리로 되기때문에 그것을 순결하게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을 승리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와 우리 나라와 세계문학예술발전력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자주시대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여 주체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항일혁명문학예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작품으로서 혁명적문예전통의 핵으로, 정수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계승발전시켜야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란 그가 체현하고있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으로 하여 그것이 창작된 당시는 물론 먼 후날에 가셔도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작품을 말한다. 그러나 선행시대에 창작된 명작은 어느 작품을 막론하고 일정한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완전무결한 작품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서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가치를 가지는 기념비적명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문학예술작품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으로 되는것은 거기에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주

체적문예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예학설인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함으로써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주체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예술의 면모와 특징을 완벽하게 체현한 주체의 인간학의 본보기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주체의 인간학의 본보기로 되고있는 바로 여기에 지난날의 문학예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 시대 문학예술의 인간학적면모와 그 본질적특징이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인간학적면모와 함께 일련의 새로운 사상미학적특성을 체현하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체적성격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주체성, 민족자주정신을 철저히 구현한 주체적인 문학예술작품이다. 조선혁명과 조선인민에게 복무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삼고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주체적성격이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체현하고있는 사상미학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다. 명작의 이러한 혁명적인 성격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철저한 구현에 의하여 보장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혁명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이 통일되고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어 있는 가장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새로운 인간학적면모와 사상미학적특성을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시대 문학예술이 본받고 이어받아야 할 모든 우수한 사상예술적특질을 가지게 되었으며 바로 여기에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는 근거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문학예술의 재부에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과 함께 그 창작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창작경험과 혁명적창작기풍이 포함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창작과정에 이루어진 창작경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작품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생명인 동시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생명이기도 하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영원한 생명력, 불멸의 가치와 문예사적의의는 전적으로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그러므로 작품창작에서는 이 고귀한 창작경험을 따라배워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창작과정에 이루어진 창작

경험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주체적문예사상에 철저히 기초하여 창작해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은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하는 창작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주체적문예사상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작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게 하는 만능의 무기로 된다.

주체적문예사상은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위주로 보고 대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창작의 근본원리를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더욱 유력하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창작의 근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이 높은 기념비적걸작으로 되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창작의 근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예술성이 높은 기념비적걸작으로 되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창작과정에 이루어진 창작경험에는 작품을 그의 생리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작하기 위한 형상방도들도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할수 있는 사상적알맹이를 현실속에서 탐구하고 형상으로 훌륭히 꽃피워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품을 창작하실 때마다 시대와 혁명이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인간문제, 혁명의 근본문제를 작품의 핵으로 심어놓으시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빛나게 꽃피우시였다. 이 고귀한 창작경험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성공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관건적 열쇠와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가르쳐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창작과정에 이루어진 형상방도에 관한 창작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자주적인 인간성격,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며 그들의 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주체시대의 주인공은 어떤 인간이고 그들을 어떻게 형상해야하는가를 가르쳐준 고귀한 창작경험이다.

형상방도에 관한 창작경험에는 이밖에도 생활을 그리는 문제, 혁명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는 문제, 혁명적대작을 창작하는 문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에 있다.

이러한 창작경험과 함께 이어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혁명적인 창작기풍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조용한 서재에서 여유있게 창작하신것이 아니라 항일혁명투쟁의 그 준엄한 나날에 총알이 비발치는 위험한 전투장에서, 설한풍 휘몰아치는 천막안에서, 적들이 뒤따르는 어려운 행군길이나 우

등불가에서 밤을 새우시며 전투적으로 창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창작에서 발휘하신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본받아 전투적으로 창작하여야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 당과 인민이 바라는 시대의 명작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져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명작을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이러한 명작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철학적으로 깊이있는 중자를 골라잡고 주인공들의 성격을 탐구하여 창작에서 실력전을 벌려야 한다.

그러자면 작가, 예술인들이 당이 요구하는 명작의 위대한 본보기인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혁명적인 사상적내용과 높은 예술성, 그 풍부한 창작경험과 혁명적창작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창작적자질과 기량을 높이고 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긴장하게 살고 전투적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과 그 창작과정에 이룩된 풍부한 경험과 혁명적인 창작기풍은 주체의 문예전통에서 정수적인 내용을 이루고 그 위대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의 전행정을 방향지어주고 그 발전을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으며 작가, 예술인들이 대를 이어 계승하고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위대한 창작교본으로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그 불멸의 문예사적의의가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원한 생명력과 불멸의 문예사적의의는 그것이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창시를 담보한 선구자적작품으로서 자주시대 인류문학예술을 주체사실주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주는데 있다.

문학예술은 시대의 산물인것만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학예술을 요구하며 새로운 문학예술은 새로운 창작방법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심오하게 통찰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로 발전시키시였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 주체적문예사상을 사상미학적기초로 하여 창시된 자주시대 문학예술창조의 가장 위력한 창작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주체사실주

의창작방법을 특징짓고 그 창시를 담보한 선구자적작품으로 되게 된것은 그것이 바로 주체사실주의의미학적원칙에 의하여 창작된 주체문학예술의 시원으로, 원형으로 되기때문이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 견지하고있는 미학적원칙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현실, 사회와 역사를 보고 그리며 자주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인간과 생활을 전형화하며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는것이다. 이 새롭고 독창적인 미학적원칙에 의하여 창작되었기때문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우고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과정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정확히 그리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견지에서 빛나게 형상하고 혁명적인내용을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는 민족적형식에 담음으로써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위력과 우월성을 과시하고 그 창시를 담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창작과 그 계승, 발전과정은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창시와 그 확립을 보여주는 역사적과정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본질과 우월성을 보여주는 선구자적작품으로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과 세계 혁명적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고 그들을 주체사실주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가지는 커다란 견인력과 위대한 인류문예사적의의가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생명력과 그 불멸의 지지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높은 사상에술성과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차지하는 그의 지위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여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작가, 예술인들과 일군들에게 불후의 고전적명작에 대한 옳은 이해와 관점을 가지도록 가르쳐주시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고증발굴하시여 작가, 예술인들과 일군들이 명작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널리 보급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사업은 문학예술혁명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였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위한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어떤 원칙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것인가 하는것

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기는 방법으로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 원칙은 주체문학예술의 원형인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본성에 맞을뿐아니라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문학예술혁명의 목적에도 맞는 가장 정당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하여 무엇을 본보기로 삼고 무엇을 시발점으로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옳바로 풀리게 되였다. 그리하여 영화혁명과 가극혁명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연극혁명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며 문학혁명도 역시 《피바다》를 소설로 옮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명작을 옮기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창조원칙도 밝혀주시고 그 재창조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것은 원작에 충실히 의거하여 작품의 대를 바로세우도록 하신것이다. 작품의 대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원작의 종자를 똑똑히 잡고 주인공선을 잘 살리며 구성의 틀거리를 바로잡아나가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재창조하는데서 작품의 대가 똑바로 섬으로써 원작의 주체사상과 형상세계를 그대로 작품에 옮겨놓을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기는데서 원작에 충실하도록 하시면서도 그 사상적내용을 파고들어 작품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장편소설로 옮길 때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살려 주인공들의 심리세계와 뒤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중요한 대목들을 더 전개하여 묘사하고 생활세부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이 승리적으로 수행되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빛나게 옮겨짐으로써 우리 식의 혁명적영화예술이 창조되고 혁명적영화예술전통이 새롭게 확립되었으며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새 기원이 열리고 혁명소설의 본보기가 빛나게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70년대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고 주체예술의 조국으로, 《20세기문예부흥》의 발상지로 온 세상에 이름떨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방법이 가일층 심화발전되여 주체시대혁명적문학예술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빛나게 되였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승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자랑스런 성과이다.

이 빛나는 성과와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겨야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고 문학예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감화력과 건인력, 그 불멸의 가치와 문예사적의의를 더욱 찬연히 빛내일수 있고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한길로 곧바로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기도록 이끌어 주신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빛나는 령도업적으로 된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철저히 계승발전되고 더욱 완성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여러 문학예술형태로 옮기는 방법으로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한것이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여 발생되고 계승되어왔지만 해방후 우리 문학예술전반에서 철저히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해방후 우리 문학예술분야에 복고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적지않았고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경향도 심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반동적인 문예조류와 창작경향이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통찰하시고 문학예술혁명을 힘있게 진행하도록 지도하시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더욱 완성시키고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시었다.

그리하여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문학예술혁명이 힘있게 진행된 1970년대에 우리 문학예술이 주체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그 독창성과 위력을 온 세상에 파시한데서 빛나게 확증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혁명과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적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고 더욱 완성시켜주시였을뿐 아니라 이 창작방

법을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여 그 본질과 특성, 형성발전과정과 문예사적지위를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대한 과학적정식화, 이것은 인류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또하나의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주체사실주의가 과학적으로 정식화됨으로써 우리 나라 문학예술과 세계 혁명적문학예술은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 이 위력한 사상적 및 방법론적 무기를 가지고 주체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인류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실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새로운 력사적발전단계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 당의 빛나는 문예업적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진행하여야 우리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온 세상에 더욱 찬연히 빛내일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계승해나가는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앞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혁명소설과 혁명영화,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성황당》식 혁명연극을 대를 이어 보급하고 공연하는 사업을 잘하는 동시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새로 발굴하고 고증하여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기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오늘의 우리 인민에게는 물론 자라나는 새 세대들과 먼 앞날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 길이 전할수 있으며, 주체문학예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떨칠수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순결하게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진행해나감으로써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생명력과 문예사적의의를 온 세상에 더욱 찬연히 빛내어나갈것이다.

하늘

문동식

머리들어 바라보면
가없이 푸른 하늘
볼수록 보고싶은 하늘입니다
내 마음 안겨사는 하늘입니다

땅에서도 발밑에 밟히며 살던
한숨과 눈물밖에 모르던 인민을
나의 하늘이라고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 저 하늘에 비껴있어

바라볼수록 높이만 합니다
떴듯이 머리들고 살수 없던 가슴들에
주인의 당당한 권리를 안겨주어
우리 수령님 받들어올리신
인민의 도도한 존엄입니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입니다
외적의 칼부림에 피를 뿌리던
그 심장들에 무적의 힘을 주어
우리 수령님 빛내여주시는
인민의 푸른 기상입니다

가없이 열린 하늘입니다
제 이름도 못쓰던 까막눈들에
세상을 굽어보는 광명을 주어
우리 수령님 무한대로 열어주신
인민의 창창한 희망입니다

사나운 설한풍과 불길도
저 푸른 하늘만은 어쩔수 없었음은

피바다 불바다를 다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의 하늘에
태양으로 솟아있기때문이지니

수령님 해빛이 넘치는 저 하늘에
황홀한 무지개 피여남은
태양의 품속에 행복만을 누려가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수령님 사랑이 넘치는 저 하늘에
령롱하게 반짝이는 무수한 별빛은
태양의 해빛에 눈을 뜨고 빛나는
인민의 지혜와 슬기입니다

광풍이 불어와도 무궁합니다
불구름 밀려와도 불멸합니다
태양이 솟아올라 푸른 하늘 열리고
푸른 하늘 비끼여 태양이 눈부시는
우리의 하늘, 《이민위천》 저 하늘

지구우에 얼음바다 덮인다 해도
해와 하늘을 가를수 없듯이
수령님과 인민이 만고에 함께 있는
조선은 자자손손 인민의 세상
만복이 꽃피나는 자주위락원임을

아-
저 푸른 하늘이 다 말해줍니다
저 밝은 태양이 다 빛내줍니다

우리의 봄은...

전계승

철따라 찾아오는 봄이랍니까
강물이 풀리면 봄이랍니까

해빛도 따사로운 만경대 언덕우에
꽃물결이 흐르는 우리의 봄은...
봄은 와도 봄을 모르던 그 세월

짓밟히고 억눌려 어둠던 나날
4월을 안고 태양이 솟아
이 땅 이 산천에 온 봄이랍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랍니까
꽃들이 피어나면 봄이랍니까

산에도 들에도 얼음장 덮였던
이 강산에 찾아온 우리의 봄은...
백두의 눈보라 솟을길 헤치시며
어버이수령님 설령을 넘어오신
따뜻한 그 품에 안고오신 봄이랍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봄이랍니다
세월따라 깃드는 봄이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만수대의 언덕에 높이 서신 수령님
뜨겁게 맞아주시는 환하신 미소가
태양의 빛발로 밝혀주는 봄이랍니다

아 태양이신 수령님 영생하시여
누리에 찬란한 조선의 봄이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빛내주시여
누리에 비껴가는 인류의 봄이랍니다

북바디소리

김기철

베틀입니다
만경대고향집에
소중히 놓여있는 베틀입니다

자리는 비여있어도
금시 들어와앉으실듯
마음속에 안겨오는 어머님 영상
그리워 불러보는 강반석어머님!

밤은 깊어도
찌꾸덩-찌국 북바디소리
새벽에 닿던
만경대고향집의 북바디소리

귀기울이면 들려옵니다
혈벗은 겨레를 감싸주실
어머님의 숙망을 신고서
긴긴밤 울리던 북바디소리가
혁명에 바치신 어머님의 한생을

빛나는 생애를 속삭여줍니다
고난속에서도 억세게 살아오신
숭고한 그 넋을 새기여줍니다

북바디소리는
사랑이었습시다
북바디소리는
헌신이였습니다 .

정녕 이 베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을 수놓는 내 조국의 직기바다가
필필이 늘어지는 비단의 꽃물결이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오늘도 우리 가슴에 울려옵니다
혁명의 러명을 불러온
아, 그날의 북바디소리!

붉은 눈보라

박운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혁명군의 노래》중에서)

밤.

눈보라.

광야의 눈보라.

저 먼 대륙의 한끝에서 불어오는 횡포한 광야의 눈바람이 밀림의 바다를 해일처럼 휩쓴다.

눈, 눈,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나 눈의 장벽이다. 노도처럼 일떠서는 숲의 눈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은백색구조물을 형성하며 앞을 콕 막아버린다. 백년만에 처음이라는 강설이 장백의 오지에 들이닥쳐 천변만화한 대자연의 가혹성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드는것인가.

광포한 눈보라의 지칠줄 모르는 공격에 신음하듯 태동하는 밀림의 기슭을 따라 7련대는 행군을 계속하고있었다.

오중흡련대장은 적탄에 맞아 너덜거리는 귀덮개를 달아오른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대오를 뒤돌아보았다. 뽕얀 눈발속에 허리치는 눈길을 힘겹게 헤치며 행군하고있는 대원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든다.

지치고 힘에 겨우고 걸음마다 곤난과 난관이 막아서는 행군길이다. 벌써 대원들은 사흘째 끼니를 번지였다. 상강구방향으로 떠날 때 간수했던 예비식량은 바닥이 난지 오래고 적을 지척에 달고 전투와 더불어 전진하기에 언제 불을 피워 물을 끓여마실 여유도 없었다. 길을 넘는 눈길이여서 풀뿌리도 마른 나무열매도 찾아낼수 없었다.

그저 행군도중에 차거운 눈덩이를 집어삼키며 걸었다. 하지만 대원들은 사기를 잃지 않았다. 사령부를 보위하러는 하나의 의지가 대오를 강철처럼 묶어세워 앞으로, 앞으로 떠밀고있는것이다.

회백색눈보라의 장막을 뚫고 거묵한 형체가 오중흡의 앞으로 굼뜨게 다가온다.

《련대장동무, 이젠 대오를 휴식시켜도 될것 같다소다.》

북방역양이 센 련대정치위원 박형률이다. 입을 열 때마다 뿜어나오는 허연 입김이 금방 얼어붙어 눈보라에 싸락눈처럼 흩어져버린다.

《적정은 어떻게소?》

얼어붙은 공간이 음향마저 삼켜버리는지 오중흡은 목소리를 높였다.

《겨우 따라오던놈들이 이젠 지쳐버린 모양이우다. 숙영준비를 합니다.》

《오늘이야 고작 백리남짓하게 행군하지 않았소?》

《허허, 펄펄 나는 싸움군들인 우리 대원들도 힘겨워하는데 혼쫓이 난 그놈들이야 견딜리 있소다?》

박형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눈보라우는 소리를 삼켜버린다.

장백현에서 조국광복회 본회장사업을 하다가 입대한 로련한 정치위원이다. 혁명성이 투철하고 학식이 있는 동지였다. 서울에서 고학을 하며 혁명운동에 참가한 그는 30년대초에 장백에 들어와 야학도 차리고 지하공작도 진행하면서 단련된 유능한 정치일꾼이었다.

《그럼 중대별로 휴식합시다.》

《알았습니다. 후방경계엔 내가 나가보겠수다.》

눈무지를 헤치고 오래간만에 모닥불들을 피웠다.

불! 불이란 이리도 살뜰한것인가. 대원들은 환성을 질렀다. 하지만 끼니를 예울것이란 역시 눈밖에 없었다. 그 습습한 눈속인 물을 유감없이 들이마셨다.

오중흡은 대원들을 돌아보고 지휘처로 정한 헐벗은 마가목밑 눈웅덩이에 주저앉았다. 다문 몇 분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다. 언제 다시 행군길에 올라야 할지 모른다.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속이 지끈지끈하고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다. 가슴속이 큰 산에 짓눌린 때처럼 답답하고 가끔 참았던 기침을 깃을 때마다 목이 바늘끝에라도 찔린듯 따끔거린다. 보름째 열은 쯤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얼어붙은 눈무지우에 비스듬히 누워 울려다보니 메마른 마가목가지들이 사납게 몰아치는 눈보라에 금시 부러질듯 떨고있다. 그 회오리치는 눈보라의 말기사이로 검푸른 밤하늘이 보인다. 대지는 회백색눈보라에 잠겨 몸부림치는데 광막한 저 하늘은 끝간데없이 확 띄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쪽빛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촘촘히 박혀 팽팽하게 반짝인다. 아니, 별들도 흑한에 얼어든듯 부동상태에 빠져 부잇한 빛발을 겨우 내려뜨리고있다. 별! 별빛! 저도 모르게 가슴은 야릇한 애수에 젖어든다. 원가점! 석현지구의 못잊을 동구길, 안해 전경숙과 함께 걸던 그 얼어붙은 추억의 시내가, 그때 별들은 하늘에서도 내가의 얼음우에

서도 반짝였었다. 어린 딸 길봉이가 얼음판을 지치다가 넘어졌다. 오중흡은 한달음에 달려가 딸애를 품에 안았다. 길봉이는 아버지의 수염발이 불을 찌른다고 야단이다. 순진한 안해의 눈가에도 웃음이 피었다. 그 사랑하는 딸 길봉이와 안해가 소왕청전투때 놈들에게 피살되었다. 안해는 십리평에서 유격대의 후방사업을 돕다가 딸애와 함께 라자구쪽으로 피난하던중 다섯째섬의 얼음판에서 적들과 마주쳤던것이다. 천만뜻밖의 비보를 들은것은 두만강연안의 라자구 어느 밀림속이었다. 오중흡은 숙영지결의 밀림속 공지에 우두커니 앉아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새날이 밝도록 오열을 터뜨리는 그의 곁으로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찾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말없이 들고오신 야전밥통을 마른잔디우에 내려놓더니 품속에서 술 한병을 내놓으시였다.

《중흡동무, 저녁에 찾아가 하다가 실컷 울라고 내버려두었소. 이런 땐 사나이의 눈물을 마음껏 터치는게 피로움을 덜지. 자, 나와 함께 한잔 나누자구.》

《사령관동지!...》

《자, 어서 마시오. 나도 부모님들을 잃었을 땐 술로 마음을 달랬소. 가슴아픈 희생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 준엄한 우리 혁명은 이렇게 전진하고 있소. 자, 어서!》

오중흡은 사령관동지께서 주시는 야전밥통을 받아들였다.

뜨거운것이, 불같은것이 그리고 더없이 따뜻한 것이 오중흡의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그만 걱정과 아픔, 감격과 흥분에 못이겨 사령관동지의 무릎우에 눈물에 젖은 얼굴을 묻고야말았다.

《사령관동지, 절 용서해주십시오! 입술을 깨물며 술한 전우들과 형제들을 묻은 제가 오늘은 마음이 약해졌습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들먹이는 오중흡의 등을 쓰다듬어주시였다.

《아니요. 아니야! 혁명이란 큰 사랑이요. 우리 혁명가들이라고 왜 눈물이 없겠소. 그 눈물을 원쑤에 대한 증오로 바꾸자구. 이게 우리가 붉은기 앞에서 다진 고별의 맹세지!》

《사령관동지!...》

그밤, 그 새벽, 전사는 장군님의 넓은 품에 안겨 한생을 장군님의 전사로 충정다할 심장의 언약을 다졌다...

오중흡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비몽사몽간에 떠나온 저 북덕령의 깊은 수림이 눈앞에 우뚝이 떠오른다. 청백색 이깔숲속에 잠시 가리웠던 사령부 행군서열이 밋밋한 룡선에 나타나자 그는 발돋움을 하였었다. 그러나 아무리 눈정기를 모아도 이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가려볼수

없었다. 오중흡은 마음의 탕개를 늦추며 눈굽을 적셨다. 이제는 사령부가 잡시나마 안전지대에 들어선것이다. 누군가 가물거리는 대렬끝에서 손을 저었다. 누구가? 경위중대장 김병수인가? 아니면 사령관동지 자신이 대렬끝에서 기다리시며 마지막손저음을 보내주셨을가? 그렇다면 어서 돌아서라는 그이의 분부가 아니겠는가?

오중흡은 간밤에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었고 지금은 7련대가 위치하고있는 깊은 골짜기를 돌아보았다. 한줄로 이어진 발자국이 아득히 뻗어있다. 그것은 방금 사령부가 행군해간 발자국이였다. 오중흡은 이윽고 소나무가지들 들고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다.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간 발자국은 7련대와 8련대, 독립대대의것만 남겨두어야 한다.

간밤에 사령관동지께서는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파자에서 떠난 행군과정을 중간총화하시고 7도구치기 골짜기초입에 들어섰을 때 내놓으신 방침대로 부대를 세개 방향으로 분산하여 활동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에 붙이시였다. 적들이 아군을 포위하기 위하여 힘을 한곳에 집중하여 공격해오는 조건에서 우리는 재빨리 부대를 나누어 놈들을 갈가리 해쳐놓아야 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시여 7련대는 적을 달고 상강구방향으로 빠져나갈것이며 8련대와 독립대대 역시 적을 달고 동강방향으로 나가고 사령부는 경위중대와 함께 림강-장백 일대를 선회할데 대한 대담한 구상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려운 전투를 몸소 치르시면서도 처음 내놓으신 구상대로 규모와 폭을 더 넓히시였다. 부대가 갈라지게 되면 적들의 역량은 분산될것이지만 그대신 부대의 전투와 행군강도는 더욱 높아질것이었다.

출발일정을 토의할 때 오중흡이 갑자르다가 의견을 제기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내놓으신대로 7련대와 8련대가 먼저 떠나고 마감으로 사령부가 떠나게 된것을 사령부가 먼저 떠나고 7련대가 맨마지막으로 떠나도록 제기한것이다.

지휘관들의 한결같은 제기를 들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오중흡의 얼굴을 지켜보시였다. 오중흡의 얼굴은 언제나와 같이 조용한데 약간 우수가 비낀듯한 넓은 이마에 굵다랗게 폭 짙힌 눈섭만이 드물지 않는 마음속 결의를 말해주듯 두드러져보였다.

《그래 동무들은 내가 떠나는것을 봐야 마음을 놓겠다는겁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나무가지로 불무지를 헤치시다가 눈길을 다시 드시였다.

《다들 앉으시오. 그래 동무들을 남겨두고 내가 먼저 떠나면 나역시 마음을 못놓을게 아닙니

까?)

《사령관동지.》 오중흡은 모자를 손으로 주무르며 절절하게 말쑤를냈다. 《우리 련대는 적들이 그리 주목하는것도 아니고... 적들은 지금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있습니다. 사령관동지, 사령부의 안전은 곧 조선혁명의 안전입니다.》

8련대정치위원이 오중흡의 제기를 적극 지지해 나갔다.

지휘관들의 강경한 립장에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지만 이윽하여 경위중대의 기관총 한개 분대를 7련대에 배속시킬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혹은 떼려다 불인격이 된 오중흡이 굳어진 표정으로 그이를 간절히 바라보았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더는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불쑥 물으시였다.

《오중흡동무의 모자는 오늘 전투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아마 탄알이 좀 스친 모양입니다.》

오중흡은 당황하여 모자를 등위로 가져갔다.

《아주 위험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귀뚫개가 떨어진 모자를 헤쳐보시다가 다시 오중흡에게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중흡의 손과 마주치자 문득 잡으시였다.

《그런데 왜 이리 손이 뜨겁습니까? 안색도 좋지 않고...》

오중흡은 얼결에 손을 뽑으며 얼굴을 붉혔다.

《아닙니다. 밤새 전투를 지휘하느라 열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요? 허허허, 오중흡련대장이 아직 대원시절의 모험기가 좀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때문에 대사에 심중해야 합니다. 명령과 함께 떠밀고 이끌어주는게 혁명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동지!》

그렇게 사령부와 헤어진 7련대였다. 그렇게 사령관동지와 작별한 오중흡이었다.

오중흡은 다시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희백색 눈보라의 세계 멀리 림강쪽하늘을 바라보았다.

지금쯤 사령관동지는 어디에 계실까? 그이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끼니는 번지지 않으시는지?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으니 안타까웠다. 련대가 사령부로 위장하고 근 보름째 적의 주력을 달고 피어린 강행군을 하고있지만 사령부를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사령부-그것은 오중흡의 생명이었다. 사령관동지-그이는 조선혁명의 심장이였다. 민족의 생명선이었다.

바로 사령관동지의 그 품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민족의 한 성원인, 이름없던 조선청년인

오중흡이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은 혁명대오의 지휘성원으로 성장한것이다. 사촌형의 죽음앞에 마음의 의지를 잃고있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몸가까이 부르시여 혁명의 총대를 안겨주시었고 의지가없는 그의 일가친척들을 따듯이 돌봐주시고 혁명의 믿음직한 주력군으로 키워주시지 않았던가.

태양이 없는 이 세계를 생각할수 없듯이 혁명의 수뇌부-**김일성**장군님을 떠나 우리 혁명도, 오중흡자신의 운명도 생각할수 없었다.

적들에게 피살되기전 오중화형님이 그에게 당부한 말이 불쑥 뇌리를 친다.

《중흡아,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다. 장군님을 잘 받드는것이 우리 전사들의 도리이고 운명임을 명심해라!》

오중흡은 달아오른 시선으로 다시 그이께서 계실 림강-장백쪽을 바라보았다. 밀림의 바다에 희백색 눈보라가 뽀얀데 캄캄한 하늘이 눈앞을 가릴뿐이다.

어둠속으로 연락병이 급히 뛰어왔다.

《련대장동지, 숙영하던 적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방경계에 나가있는 정위동지가 정황을 알려랍니다.》

《알겠소.》

7련대를 사령부로 착각하고 뒤따르는 적들에게 새로운 긴급지시가 내린 모양이다.

대오는 다시 행군길에 올랐다.

눈보라, 눈보라, 밀림의 눈보라, 이제는 눈발들이 얼다못해 날카로운 유리조각들처럼 되어 얼굴을 콧콕 찌른다. 얼굴이 푸르죽죽 얼어 그 아픔조차 둔하다. 신발은 판이 날대로 나버리고 추위에, 가시덤불에 군복도 너덜너덜해졌다.

대원들은 허리치는 눈을 가가스로 헤치며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고있다.

추위는 인간에게서 열량을 평소보다 더 빼앗는 것인가.

오중흡은 쓰러진 전우들을 일으켜세우며 대렬의 앞으로 나갔다. 앞에서는 붉은기를 든 정치위원이 힘겹게 길을 내고있다.

행군대렬은 여전히 굼뜨게 움직이고있다.

오중흡은 우뚝 그자리에 멈춰섰다. 멀리 밀림의 바다너머 산봉우리들이 검보라빛으로 어렴풋이 눈에 안겨든다. 동이 트려는가보다.

오중흡은 가가스로 전진하는 행군대오를 뒤돌아보았다. 그는 둔덕에 올라서서 대원들에게 부르짖었다.

《동무들! 힘을 내라! 사령관동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는 성스런 길임을 잊지 말라! 동무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오중흡의 웅골은 목소리가 노호하는 눈보라의

울부짖음을 뚫고 광야에 메아리친다.

행군대오는 다시 활력이 넘쳐 꿈틀꿈틀 움직인다.

눈보라.

려명.

밀림의 바다.

전설적인 7련대의 행군대렬이 전진하고있다.

멀리 하늘가에 동이 트고있다.

×

설한풍이 휩쓰는 장백의 광야에 또 하루가 저물어갔다. 광막한 대지에 어둠이 깃들자 갑자기 바람은 하늘중천에서 몽켰다 터졌는지 희멀건 강철빛 눈보라 말기가 룡권처럼 치솟아올라 천고의 대밀림을 뒤흔든다. 그러면 잠들지 못하는 밀림은 뿌리채 뽑힐듯 광란하는 눈보라에 온몸을 내맡기고 우듬지들을 통곡하는 녀인의 머리채처럼 흔들어댄다.

경위중대장 김병수는 사령관동지의 지시대로 숙영지들을 간간히 돌아본후 근심에 싸여 이갈숲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사령관동지께 식사를 전혀 보장해드리지 못한것이다. 아무리 간고한 행군길이라 하여도 이 김병수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장군님께 식사를 며칠씩 건느게 했다는것을 알면 오중흡련대장이랑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남패자를 떠날때 그 선비같던 오중흡이 정색한 낮으로 그를 이끌고 비서처의 외진곳으로 가서 기염을 토하던 일이 어제런듯 생생하다.

《여보, 김동무, 우리 피차 속을 톡 터놓고 말해보지요. 동무나 내나 장군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뭐가 되었겠소. 동무는 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보위하는 제1호위병이요. 우리가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다는게 뭐겠소! 찍어말하면 우리 장군님을 한목숨바쳐 웅위한다는게 아니겠소! 우리들의 이 심정을 동무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소!》

그 7련대장은 지금 어떻게 싸우고있을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주 7련대가 있는 상강구쪽 하늘을 바라보군하시였다.

이갈숲의 우등불가에 이르니 사령관동지께서 자리를 뜨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애어린 무산출신전령병이 립초를 서다가 경위중대장을 알아보고 자세를 바로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디 가셨소?》

《방금 우리가 행군해온 그 벼랑쪽으로 가셨습시다.》

《뭐요? 그 벼랑아래엔 적들이 있는데... 호위도 없이 떠나셨소?》

《리오송동무가 함께 갔습시다.》

김병수는 속이 철렁하여 급히 이갈나무숲을 빠져

져 나왔다. 숲을 벗어나자 눈보라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김병수는 얼어붙은 생 눈을 헤치며 벼랑 쪽으로 움직여갔다.

검백색 벼랑가까이에 솟은 아름드리나무밑에 장군님께서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무우에 올라간 리오송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계시였다.

《오송이, 그 왼쪽을 보라구. 그렇지. 발을 조심하우. 그러다 떨어지겠소. 허, 제법 다람쥐같은걸.》

사령관동지께서는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계시였다. 털모자안에 무엇인가를 담으신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김병수를 띄여보시자 미소를 지으시였다.

《경위중대장동무요? 대원들을 휴식시켰소?》

《예. 다들 우등불가에 잠들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순간 안색을 흐리시였다.

《속이 비였으니 잠입들 제대로 오겠소.》

김병수는 코허리가 시큰하여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굵실굵실한 술진 머리칼이 밀림의 바다를 스쳐온 눈바람에 휘날리고 안팎에는 자애깊은 사색과 심려가 비껴 번쩍이였다.

《사령관동지, 모자를 쓰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눈길을 내리시고 모자안을 들여다보시였다. 김병수는 달빛에 드러나는 조글조글한 마른 열매를 얼핏 살펴보았다.

《아가 행군중에 보니 이 나무에 오미자덩쿨이 오르지 않았겠소. 오송이가 날파람이 있어 우에 좀 남아있는걸 마저 따오겠다고 올라갔소. 눈부지를 뒤흔는데. 얼마 없구만.》

김병수는 나무밑의 눈옹덩이들을 여겨보다가 사령관동지의 별경계 달아오른 손에 눈길이 갔다.

《...?!》

《오중흡동무와 헤어질 때 손을 만져보니 생각외로 뜨거웠소. 평소엔 손이 차서 심장이 뜨거울 거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소. 그 동무의 안색도 좋지 않았소. 아마 고혈에 걸린 모양이요 오미자 잘 간수했다가 잠복하게 해야지 그러단 천식으로 넘어갈수 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리오송이 나무에서 내려오자 다시 눈판을 뒤흔기기 시작하시였다. 김병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눈속을 헤치고 마른 오미자를 찾았다.

오중흡7련대장은 장군님께서 이토록 마음쓰시고계시는줄 알거나 할가? 먼곳에 있는 병약한 전사를 생각하시여 언손으로 생 눈을 헤치고계시는줄 알거나 할가?

아, 우리 전사들은 얼마나 뜨겁고 자애깊은 품속에 안겨있는것인가? 며칠전에는 전투를 앞두고 오중흡련대장의 모자가 말이 아닌데 좋은것으로

하나 구해야겠다고 뜨겁게 당부하시던 사령관동지!

정녕 사령관동지의 그 대해같은 사랑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가!

이윽하여 숙영지로 향하는 김병수는 언 가슴이 다 녹아버린듯하고 마음이 따뜻한 봄언덕에 올랐을 때처럼 훈훈해지며 앞날에 대한 희망이 창공의 새처럼 가슴속에서 퍼득이는것을 느꼈다.

그렇다. 사령관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어려워도 행복하고 언제나 어떤 역경속에서나 백전백승하는것이다.

며칠전에 있는 부후물등관전투가 생각났다.

사령부와 경위중대가 부후물등관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발자국을 발견한 적들이 검질기게 뒤를 따라왔다.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통나무 몇대를 찍게 하시고는 그채로 메고 산기슭을 끼고 돌게 하시였다. 그렇게 한바퀴 돌아 먼 저번 발자국자리에 다시 들어서게 되었다. 적들은 어둠속에서 유격대가 낸 발자국만 졸졸 따라오다나니 한번 지나친곳을 다시 돈다는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다. 때마침 앞쪽에서 새로운 적들의 무리가 또 나타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때를 리용하여 메고오던 통나무를 놓고 감쪽같이 산으로 대오를 빠지게 하시였다. 다리로 사용한 통나무를 치워버리니 유격대는 간곳 없고 발자국만 그냥 산기슭을 끼고 돌아갔다. 적들은 부지런히 추격전을 벌리다가 마주오는 부대와 조우하였다. 상대편도 유격대를 찾아다니는 《토벌대》라 기승을 부렸다. 맹렬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신묘한 전술에 걸려든 적들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 맞총질을 하였다.

김병수는 그때 사령관동지께서 축지법을 쓰신다고 인민들이 전설적으로 생각하는것이 결코 신화적인것이 아니라는것을 체감했다. 우리 사령관동지의 이런 신출귀몰하는 비범한 전법과 천리해안의 예지가 있었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지금까지 빛나는 승리의 행적을 수놓아온것이 아닌가.

김병수가 숙영지를 돌아보고 우둥불가에 도착하자 진대나무에 앉아 글을 쓰시던 사령관동지께서 손을 흔드시였다.

《경위중대장동무, 이리 오우.》

사령관동지 주위에는 리오송과 전령병 몇이 머리를 수그리고 서있었다.

《사령관동지, 웬일이십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손에 드신것을 들어보이시였다.

《이 리오송동무가 꽤 살림군이요. 이렇게 비상용미시가루를 들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겠소. 마침 잘되었소. 자, 모두들 깨우시오. 며칠씩 굶었으니 얼마나 시창돌 하겠소. 모두 깨우시오.》

리오송은 안타까움이 실린 애된 얼굴로 사령관

동지의 팔을 붙잡았다.

《사령관동지, 이걸 안됩니다. 한흠도 되나마나 한데... 사령관동지께서 드셔야 래일 또 전투를... 우린 방금전에 조금씩 먹었습니다.》

리오송은 억울한듯 김병수를 돌아보았다.

김병수는 가까이 다가가 퇴색한 보위색 미시가루주머니를 살펴보았다. 옆코숭이가 터진것을 빨간실로 꿰맨것을 보는 순간 김병수는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청봉밀영으로 떠나기전 김정숙동지가 리오송의 배낭에 넣어준것이였다. 김병수는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녀전사의 세심한 충정을 생각하며 아무말없이 그 전대를 받아들였다.

무거운 기색으로 서있는 대원들을 일별하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하는수 없지. 속담에 나간 사람 뭇은 있어도 자는 사람 뭇은 없다고 했으니 우리끼리 나누어 먹읍시다. 자, 이리들 나앉으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거의 울상이 되여 서있는 전령병들의 손목을 끌어당겨 앉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배낭에서 나온 신문지를 펴고 한흠되나마나한 미시가루를 쏟으시였다.

《경위중대장도 오우. 이게 좀 많으면 좋겠는데 어찌겠소. 이것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종이술가락을 만드시여 둘러앉은 대원들에게 한몫씩 나누어주고는 손수 더운물을 고뿌에 부어주시였다.

김병수는 뜨거운 고뿌를 두손으로 부여안고 머리를 짓수그리였다. 우렁우렁하신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귀전을 울리였다.

《유격대의 식량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전투를 잘 치르면 해결되는거요.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행군을 하며 고난을 겪고있지만 이제 후대들은 락을 보게 되거든.》

사령관동지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뭇을 고뿌에 담으시며 눈길을 드시였다.

《지금쯤 7련대와 8련대 동무들이 뭇 먹고있는지 모르겠소. 오중흠동무는 기침이 심했는데...》

이갈쑤, 눈보라, 우둥불이 타오른다. 천고의 밀림,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가르며 사랑의 우둥불이 활활 타오른다.

전방경계에서 전령병이 뛰어왔다. 8련대에서 통신원이 도착했는데 적들이 숙영하고있는 벼랑뒤쪽에서 큰 전투가 벌어진다는것이였다. 그곳은 북대정자 파광딩즈부근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신중한 눈길로 대원들을 둘러보시였다.

《8련대동무들이 아니라면 분명 7련대요. 지금쯤은 그들이 사령부와 만나게 되어있지 않소. 경위중대장동무, 곧 전투준비를 해야겠소. 8련대도

련락하시오. 아무래도 7련대가 힘겨운 전투를 치르는것 같소!》

벌써 새벽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밀림속으로 려명의 첫 푸른 빛이 기여들고있었다.

×

눈보라.

침침한 재빛하늘.

겨울은 이 엄청난 대륙의 천고밀림에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앙탈을 부리고있다.

봄, 봄은 어디에 있는가? 대륙의 봄은 더디다. 하지만 장엄하다. 겨우내 눌러있던 지열이 분노를 터칠 때만 겨울은 마지 못해 물러가는것이다. 겨울은 더는 물러설 땅이 없을 때까지 대자연을 맞받아 독을 피운다. 침침한 눈구름은 대지우에 낮추 드리워 마지막랭기로 이 세계를 얼구고 눈바람을 일구어 자기의 위력을 쟁그리 시위하려든다.

오중흡은 련대를 이끌고 북대정자방향으로 행군해가고있었다. 얼마전에 정찰조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7도구치기에서 사령부와 헤어진 이래 한달이 넘어 지양개치기까지 왔을 때 사령부가 13도구거리를 들이쳤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것이다. 장군님께서 무사하실뿐만아니라 몸소 13도구전투를 조직지휘하셨다는것은 오중흡의 마음을 기쁨에 뜨게 하였다. 크나큰 충격과 기쁨이 온몸을 굽이쳐간 뒤로 그보다 결코 못지 않은 의문이 머리속을 채웠다.

가재수에서 사령부의 위치가 드러났다니 벌써 7련대가 사령부로 가장하는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적들은 이미 며칠전부터 7련대 뒤를 마지 못해 따르며 주력은 장백쪽으로 이동해버렸다. 의도적으로 야간습격까지 수차 조직하며 꼬드겼으나 그식이 장식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부대가 다시모여 사령관동지의 구상을 옆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것은 멀리에 계시는 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을 부르시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령부로 쏠리는 적들을 앞질러가서 사령부를 지켜야 한다. 이제는 적들을 돌려세우려고 발목이나 잡아챌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투를 벌려야 한다. 한시바삐 장백, 립강 대도로부근으로 먼저 진출해야 한다. 그렇게 떠난 새 행군길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새 전투였다. 그날밤중으로 전투서열을 편성하고 적의 숙영지 한복판으로 잠복해 들어가 전투를 벌렸다.

7련대는 장백땅에 들어서서 혼마려단과 합세한 대집단군을 발견하였다. 적집단은 북대정자쪽으로 이동하고있었다. 정찰조는 그 부근에서 사령

부가 활동하고있다는것을 확인했다.

지체없이 련대는 적들을 맞받아 대각선으로 강행군을 시작했다.

땅이 울고 하늘이 우는 피의 행군길, 눈보라를 뚫고 적의 산병선을 뚫고 철의 대오는 움직여갔다.

혈땀고 지친 대원들이었지만 사령부를 지키려는 하나의 일념을 안고 전진해갔다.

《정위동무, 적들과 조우하려면 시간이 언제쯤 되겠소?》

오중흡은 옆에서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걷고있는 박형률을 올려다보았다. 간고한 행군의 나날에 박형률의 철빛얼굴은 빼만 남은듯싶다.

《이놈들도 독을 품고 달려오고있으니 한시간도 안걸릴것 같소다. 칼벼랑부근쯤에서 마주칠것 같소다.》

박형률의 목소리만은 랑만가답게 밝고 우선우선하다.

《행군속도를 높입니다. 칼벼랑맞은편을 타고와야 하오.》

《그곳을 타고왔으면 뒤가 대도로이니 물러설 자리가 없지 않소다?》

박형률은 의아한듯 손으로 눈보라를 가리며 오중흡을 바라보았다.

《사령부가 지적에 있는데 우리가 물러설 땅이 있습니까? 결사전을 벌리고 자폭하여서라도 이 언덕에서 적을 제지해야지...》

오중흡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련대장동무의 의도를 알겠수다.》

박형률의 목소리는 다소 갈려있었다.

《대원들을 잘 준비시켜주시오. 우리가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여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마지막마무리를 잘해야지요. 우리 김일성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강철의 성새가 되어보지요!》

《알았수다. 련대장동무!》

밤, 어둠, 눈보라.

7련대가 행군해가고있었다. 결사의 각오를 품은 전사들이 총과 폭탄이 되어 사령부를 지킬 결심밑에 강행군길에 올랐다.

행군대오는 어둠속을 뚫고 움썰움썰 전진해갔다.

오중흡은 대오의 선두에 서서 걸음을 옮기며 자기가 유격대에 입대하기전 총을 로획하려는 결심밑에 자유주의를 부려 적구에 내려갔던 그때를 회상했다.

총! 그것은 그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조직에서는 그의 무규률성과 자의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비판했다. 그후 유격대에 입대한 날 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오중흡에게 보충을 수여해주시면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중흡동무, 이 총대를 역세게 틀어쥐고 혁명

을 사수하기 바라오. 어느때나 총대가 흔들려선 안돼! 민짚소!》

총!

총대!

틀어쥔 총대!

그 총대는 흔들려본 일이 없었다. 혁명의 수뇌부, 우리 장군님을 옹위하는 그의 총대는 단 한번도 그를 배신한 일이 없었다.

오중흡은 긴 숨을 몰아쉬며 대오를 둘러보았다.

전투는 밤늦게 시작되어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수적우세를 믿고 적 《토벌대》는 산릉선을 향해 산병선을 폈다.

물방으로 터지는 수류탄과 적 박격포탄에 언덕이 불타고 산갈이 쌓인 눈이 녹아내렸다. 뜨거운 은빛눈이 전투를 지휘하는 오중흡의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희생도 적지 않았다. 예비탄약마저 떨어져갔다.

적들은 일곱차례의 공격이 좌절되자 령량을 새로 편성하느라 잠시 지체했다.

오중흡은 눈과 흙이 범벅이 되어 뜨겁게 달아오른 흉장우에 몸을 기대고 언덕아래 재빛 산기슭을 살펴보았다.

쌍안경에 적군용자동차들이 부산스레 움직이는 것이 안겨들었다. 적병력이 증가된것이다. 이윽고 눈보라와 새벽어둠속에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의 공격서열이 보였다.

오중흡은 곁에 다가온 박형률을 돌아보았다.

《정위동무, 탄약도 떨어져가니 마지막결사전을 준비합시다.》

《믿으시우다. 련대장동무, 우리 련대는 사령관동지앞에 다진 충성의 선서를 지킬것입니다.》

오중흡은 박형률의 두손을 으스스리게 틀어잡았다.

《고맙습니다. 형률동무!》 적들은 새벽어둠을 리용하여 겹겹이 포위진을 치고 압축해왔다.

몰려설 땅이 없었다. 가까이에는 사령부가 있었다. 우리 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었다. 한몸이 그대로 작열하는 총폭탄이 되어서라도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해야 한다.

오중흡은 문득 흉장우에 몸을 일으켰다.

그는 피끓는 눈으로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결사대원동무들! 놈들은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노리고있소! 우리가 몰려설 땅이 있는가! 한치도 몰려설수 없소! 모두다 혁명의 사령부, 김일성장군님을 목숨으로 사수합시다! 돌격앞으로!》

7련대의 전체 대원들이 폭풍처럼 일떠서서 결사전을 벌릴 때 익측 산릉선에서 랑랑한 나팔소리가 울렸다.

오중흡은 귀떨어진 모자를 움켜쥐고 익측 산릉

선을 바라보았다. 흰 위장망을 쓴 사령부 경위중대와 낮익은 8련대동무들이 합성을 지르며 재빛 산골짜기를 향해 진격해오고있었다.

우렁찬 만세소리에 질겁한 적들이 황급히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유격대는 랑익측에서 적들을 압축하여 드세찬 공격을 들이쳤다.

오중흡은 전투가 끝나자 익측 산릉선을 향하여 달려갔다.

산릉선의 이깁나무술가에 사령관동지께서 서계시었다. 그곳은 파광딩즈 뒤산이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나 단정하고 희던 오중흡의 얼굴이 꺼칠하게 여위고 푸르죽죽해진것이 가슴아프신듯 안색을 흐리시었다.

숨이 비죽이 내민 오중흡의 군복우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똑 하고 떨어져내렸다.

《중흡이, 잘 싸우고 돌아와서 울긴...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중흡의 두어깨를 한몸에 감싸안으시는 사령관동지의 두눈에도 눈물이 번적이고있었다.

《사령관동지!》

오중흡은 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그저 그이의 넓은 품에 아이처럼 안길뿐이었다.

《여전히 그 모자를 쓰고있구만. 내 그러리라 짐작하고 13도구를 들이칠 때 하나 장만해놓았소.

전설적인 차빠예브사단장도 부러워할만한 모자요. 허허, 병수동무, 련대장동무의 모자를 가져오우! 그걸 쓰면 목은 고뿔도 달아날거요.》

오중흡은 모자를 받아안았다. 뜨거운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모자 귀덜개 한옆에 《7련대장 오중흡》이라고 박아쓴 활달한 글자가 눈에 안겨들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낮익은 사령관동지의 필적이었다.

오중흡은 사랑의 털모자를 품에 꼭 끌어안고 7련대 전사들쪽으로 걸어가는 사령관동지의 기록하신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영웅호걸의 그 담대성과 얼음우에도 꽃을 피우는 세심하고 따뜻한 어버이의 그 사랑이 어찌면 신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런 느낌이 커갈수록 오중흡은 사령관동지의 위인상앞에 자기자신이 더욱 작게만 생각되어 가슴이 달아올랐다.

눈무지에 빠졌다나온듯 온통 눈투성이의 군복차림인 전령병 리오송이 숨을 할딱이며 뛰어왔다.

《련대장동지, 제가 하마트면 이걸...》

오중흡은 뜨거운 사색에서 깨어나 리오송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

리오송은 군복섶을 헤치고 천에 싼 군용물통을 꺼내들었다.

《런대장동지가 기침을 낚을 때마다 드리라고 사령관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신 오미자물입니다. 이걸 덥혀가지고 뛰여오느라고 시간이 줄...》

리오송은 미소년답게 빙글빙글 웃으며 군용물통을 내밀었다.

오중흡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물통을 받아안았다.

그는 조각상처럼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했다.

《런대장동지, 빨리 한모금 드십시오. 따끈할겁니다.》

오중흡은 군용물통을 기울였다. 흑한속에 이미 오미자물은 식어버렸다. 하지만 불보다 뜨거운 것이 오중흡의 폐부로 흘러들고있었다.

《아직 따끈하지요?》

《그래, 오송이. 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뜨거운 물을 마셔본적이 없소!...》

오중흡의 눈곱에서 눈물이 번쩍이었다.

오중흡은 후더운 눈길로 7런대 전사들을 만나시는 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오래도록 우러러보았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눈물은 샘줄기마냥 터져 마를줄을 모르고 그냥 뜨거운 불을 따라 흘러내린다. 눈물이 핑 도는 그의 시야에 산릉선에 서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기록하신 모습이 안겨든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온 천지가 붉은 색깔로 물들어버렸다.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타번진다. 사령부의 붉은기때문인가? 아니, 아침노을빛에 온 천지가 불타는구나. 산릉선을 감도는 눈보라가 붉은 아침노을빛을 받아 저렇게 붉게 타오르는구나.

사령부의 붉은기와 붉은 하늘과 눈보라가 한데 어울려 저렇게 거대한 붉은기처럼 천하에 나뭇기는것이다.

그 거창한 붉은기를 추켜드신듯 우리 사령관동지께서 산언덕에 거연히 서계시었다.

오중흡은 매혹과 숭배의 진실한 감정에 휩싸여 사령관동지를 오래도록 우러러보았다.

(**김일성**장군님! 그이는 민족의 태양,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이는 우리 혁명의 붉은기입니다!)

사령관동지를 받드는 우리 전사들은 이 붉은기를 지켜, 이 붉은기아래 영원한 친위병들로 충성 다할것이며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것이다!)

눈보라!

눈보라!

붉은 눈보라!

붉은기가 나뭇긴다. 멀리 안개진 조국땅우에서 새 아침이 밝아온다.

백두산날씨

권강일

일기예보시간-

이밤도 나는 듣는다

내 사는 고장만이 아닌 또하나의 지명
백두산날씨

출구나

상기도 겨울이구나

여기는 봄날인데

봄꽃이 한창인데

가지 않았구나

겨울나이

엄혹한 령하온도

불어치는 눈보라

눈앞에 어려온다

그는, 그 바람을 다 헤치며

우리 수령님 걸으신 자욱자욱이

그이를 따라 굽이쳐가는

《고난의 행군》길 붉은기의 대오가

봄이 와도 봄이 없고

날 개여도 빛을 모르던

얼어붙은 인민의 가슴가슴에

영원한 봄을 안고오신 그 위업

못잊어 오늘도 전하는구나

나는 듣는다

가슴뜨겁게 안는다

우리 맞는 봄, 누리는 봄의 따스함을

저 백두산날씨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의 이 강행군길을

혁명의 길, 투쟁의 길에 불러세워주는

백두산날씨

아, 이 땅의 날과 날은 흐른다

영원히 백두산과 더불어 흐른다

우리의 봄

로창일

봄, 봄이 왔다.

붉은기를 펴 펴 날리며 막아서는 모든 난관을 뚫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길에 화창한 봄날이 펼쳐졌다.

반드시 오고야말 승리의 날을 믿어 모진 설한 풍속에서도 끄떡없이 《고난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걸어온 그 걸음걸음들이 은혜로운 태양의 축복을 받는다.

아지마다 한껏 망울을 터치고 향기를 날리는 모란봉의 살구꽃들에 찬바람 눈서리를 곳곳이 이겨내고 양춘을 다시 만나 푸른 세계를 펼친 만경봉의 소나무들에 생각을 얹으며 이 봄을 맞은 우리.

얼마나 많은 추억을 실어오고 휘황할 앞날을 그려주는 봄인가.

4월의 이 봄날에 서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불타올라 자애로운 그 영상을 우려른다.

우리 사는 거리거리에서 행복이 깃드는 집집마다에서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보내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시련의 계절을 승리로 보낸 우리를 축복해준다.

수령님의 그 미소가 어려 우리의 이 봄은 더욱 더 환희롭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들수 있었다.》

이 나라에 새봄을 불러오신 그날부터 한평생을 고스란히 조국과 인민에게 바치시여 꽃피는 봄날만을 가져다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계절에 들면 인민들은 수령님을 그리며 그이만을 생각하고 경모의 꽃다발을 엮는것 이리라.

오늘도 마음의 고향 만경대를 찾아,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우리러 수령님을 노래하는 인민들이다.

화창한 봄날에 진달래 붉게 피는
만경대 찾아서 인민들은 노래하네
이 땅에 찬란한 새봄 위해
조선의 태양이 솟아났네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은 넘쳐나네
...

그렇다. 이 땅에 안아올 새봄 위해 조선의 태양이 솟아올랐다.

봄은 자연의 운동으로 절기가 바뀌며 오는 계절이다.

푸른 하늘, 포근한 공기, 부드러운 대지 그리고 따뜻함과 청신함.

이것은 봄날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표상이다. 그러나 그모든것을 태양이 없이는 론할수 없다.

자연의 운동으로 오는 봄도, 그 계절에 대한 모든 감각도 다 저 하늘의 태양에 근원을 두고있다.

이 나라에 찾아오는 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깃드는 봄은 위대한 인민의 태양이 주시였다. 인민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께서 가꾸어주시였다.

그래서 봄을 맞으면 우리들은 마음과 마음을 어버이수령님께 잇고 이으며 만경대를 찾아 달려가는것 아니랴.

만경대는 이 나라에 새봄을 불러온 유서깊은 성지이다.

수수한 초가집 추너났은 이영아래서 인민의 태양이 솟아올랐다.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였다.

오색채운이 하늘가에 아름답게 비끼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황홀경을 펼쳤던 여든다섯해전 그 봄날부터 삼천리 이 강산엔 처음으로 봄빛이 흐르기 시작했다.

반만년 우리 민족사가 그 얼마나 애달프게 바라고바라던 봄이었던가.

곡절많은 설음과 사연이 응어리져 흐름을 멈춘 세월속에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였다.

이 나라 역사를 더듬어보라.

파란만장으로 얼룩진 폐지만 쌓이고 눈물과 한숨속에 살아가던 인민.

수세기를 답습하던 봉건의 수레바퀴에 실려 외세가 몰아오는 찬바람에 두렵게 얼어붙은 대지위로 힘겹게 굴러가던 조선.

넓지 않은 강토가 그대로 암흑천지에 누워 숨가쁜 기염만 토하고있었다.

봄을 맞자고 얼마나 모대겨보았던가.

케케묵은 봉건의 감투가 짓겨워 그것을 벗어던지려 《갑신정변》의 거사도 일으켜보고 죽기보다 삶은 노예살이를 원망하며 이국의 역두에서 애국의 마음을 재운 총탄도 침략자의 가슴팍에 날려보았었다.

그러나 민족에게 차례진것은 수족을 조이는 철쇄뿐, 갈수록 더해가는 멸시와 박탈뿐이였다.

억조창생의 마음속에 불붙던 우국의 열의가 옹
바르게 이끌어주는 손길이 없어 칠혹같은 어둠의
장막속에 그대로 묻혀있던 이 나라였다.

산천도, 사람들의 심신마저 동토대의 얼음산처
럼 굳어만 있던 땅.

그래도 자연의 법칙이어서 해빙기는 오군했지
만 풀릴줄 몰랐고 아무런 기쁨과 소생의 빛을 주
지 못했다.

짓밟힌 땅에도 봄은 오는가. 남이 사는 땅에서
피어오르는 그 아지랑이가 과연 봄날의 온기란
말인가.

목이 터지도록 웨치고 울부짖었으나 힘이 없는
약자의 탄식에 불과했었다.

그대로 이 땅은 주인없는 산천으로 지구촌의
기슭에 밀려나버리고 우리 민족은 명패도 못보인
채 사라져가고있었다.

이국땅을 방황하며 눈물속에 신세를 한탄하면
서도, 렬사로 나서 의롭게 형장의 이슬되어 사라
지면서도 겨레가 바라고 바란것은 이 나라를 구
원하고 민족의 운명을 건져줄 인민의 수령의 출
현이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라있던 그
시절 겨레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하여 공기마저 얼어들었던 산천에서 쨍쨍 얼음
이 갈라지고 눈석이물이 타래치며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넘쳐나는 열기로 활기에 찼고 즐거운
봄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땅에 봄색이 움터올랐다.

만경대에서 시작된 우리의 봄, 그 환희로운 봄
은 이 나라 강산에 얼마나 경이적인 전변의 나날
을 이끌어왔던가.

애국, 애민, 애족의 념을 키우시고 고향집을 나
서신 첫걸음부터 한평생 인민의 봄을 펼쳐주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인민의 우리
수령님.

만경대의 자그마한 사립문에서 열린 혁명의
길.

그 길을 쉬임없이 걸어오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는 이 나라 곳곳에 새 기운이 약동하는 봄의 기
상을 주시었다.

강설이 키를 넘는 백두산야에서 맹물을 끓여
끼니를 에우시고 돌베개를 베시고 쪽잠에 드시며
스무해 긴긴 세월 혈전의 길을 걸어 해방의 봄
을 안아오셨고 해방된 조국의 봄을 가꾸시며 잠
시의 휴식도 없이 걸으시었다.

우리 수령님 걸으신 그 모든 길.

전국의 초행길과 불구름 타래치던 전선길도 허
리띠를 졸라맨 인민들과 함께 걸으시던 복구건설
의 길과 인민을 찾아 방방곡곡으로 떠나시던 현
지지도의 길들이 다 만경대와 이어진 길이였다.

이 세상 멀고 험한 길을 다 헤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봄날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이던가.

실안개도 고요히 감도는 이른새벽 들길에서
수령님을 뵈웠던 로인이며 불길이 이끌거리는
전기로앞에서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
끼던 용해공, 비릿한 고기비늘이 묻은 작업복차
림으로 그이앞에 섰던 어로공도 수령님의 은덕
을 잊지 못해 오늘도 목메여 흐느끼고있다.

수령님의 품속에서 마련된 우리의 봄.

평양교외의 어느 한 마을에 가면 노래처럼 전
해지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고장 사람들때문에 포연을
헤쳐오시고 눈꽃이 뿌려치는 들길을 너무도 많
이 걸으셨다고 흐르는 눈물로 외우곤하는 그 사
연.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닷새후에 찾아오셨던
그날부터 수없이 찾고찾으시여 안겨주시던 봄빛
같은 사랑을 그들이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해방전 한해기의 논도 없어 돌각담을 헤치고
겨우 조나 수수를 심어오던곳이어서 잡곡밥이나
마 배부르게 먹는것을 다행으로 여기던 이고장
사람들이었다.

흰쌀밥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이곳 사람들이
늘 마음에 걸리시여 수령님께서서는 자주 여기에
오시곤하시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살을 에이는듯한 대한
추위를 이틀 앞두고 오셨던 수령님께서서는 불어치
는 눈보라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해불을 든 조
합원과 온밤을 한지에서 보내시었다.

그이의 안녕을 념려하여 거듭 청을 드리는 조
합원에게 동무들이 흰쌀밥을 먹을수 있다면 이런
눈비를 얼마든지 맞겠대시며 끝끝내 눈을 풀 자
리와 저수지자리까지 잡아주시고서야 돌아서신
아버이수령님이시었다.

때로는 저녁별이 돌을 때도 오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다가도 소문없이 들리시여 살림을 늘
일 방도에 대해 일일이 가르쳐주시던 그이.

그 로고속에 이름없던 마을이 행복만 무르익는
락원으로 되었고 이곳 사람들은 즐거운 봄날에
살고있다.

어찌 그 마을뿐이랴.

우리 수령님께서 수십여차례나 찾고 찾으시며
봄을 불려다주신 청산리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라.

수만톤의 쇠물도 로동자들의 안전보다 귀할수
없다고 그 누구도 엄두를 못내던 불행의 화근 원
철로를 하늘로 날려보내신 수령님의 그 은정을
전설에 담던 성진제강소 로동계급의 그 말도 되
새겨보라.

아버이수령님 바쳐오신 그 로고의 자옥자옥이
어려 벌방에도 산간마을에도 로동계급의 일터마
다에도 우리의 봄, 생활의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이 나라 그 어디에 가보아도 좋다. 그러면 수령님 가져다주신 봄날에 사는 사람들, 수령님과 맺어진 혈연의 연고관계를 걱정속에 외우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날수 있거니.

오직 인민만을 위하셨고 자신보다먼저 인민을 생각하신 수령님이시기에 그토록 고귀한 한평생을 깡그리 인민에게 바쳐오셨던것이다.

아프리카의 저명한 정치활동가로 이름있던 전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가 터친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진실로 위대한 사랑은
자기자신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법
남을 위해 헌신하는것만을 생각하나니
바로 **김일성**동지는 그렇게 하신다
그이는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시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것만을 생각하신다!!
력사는 바로 이것을 두고
그이를 노래할것이다

정객도 인사도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토록 힘모의 마음담아 읊던 시구절을 대하며 우리의 가슴속에 차오르는것은 무엇이던가.

아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그 몸에서 움트고 자란 우리의 행복, 이 땅의 새 역사를 수놓아온 우리의 집, 우리의 궁지와 자랑이 넘친 무한한 격정이다.

우리가 맞은 봄은 남녘겨레의 마음속에도 함께 찾아온 봄이다.

남녘의 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따사로온 햇빛을 비쳐주시던 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못해 남해의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쉬임없이 출렁인다.

바람불고 비구름이 물러와도 남녘하늘을 바라보시며 어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던 민족의 아버지.

그 심려속에서 동포애의 정이 담긴 생명수가 그이께서 열어주신 물길을 타고 남녘땅을 적시며 흘러갔고 원호의 구제물자가 콘크리트장벽을 넘어갔다.

《**김일성**장군님은 이남민중에게도 이북민중들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주시려고 한생의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 정녕 **김일성**장군님은 구제제민의 위대한 태양이시였다.》

서울에 사는 리아무개라는 대학교수가 4월 15일 아침에 자기 동료들에게 한 이 말은 그대로 남녘인민들의 심정을 대변한것이였다.

참으로 우리의 봄, 그것은 인류가 맞은 봄이기도 하다.

인간해방의 길을 밝혀주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새 삶의 박동을 가해준 위대한 태양.

주체의 태양을 맞이했기에 인류는 자주의 해일이 누리를 태우는 찬란한 미래를 내다볼수 있게 되었다.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다.

력사의 창조자도 사람이다.

이 세상 모든것은 사람을 위하여서만 필요한것이다.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려면 주체의 기치를 들라!

주체의 철리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향로를 열어주신 인류의 영재 우리 수령님을 세상사람들은 주체의 태양으로 칭송한다.

이탈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인 장까를로 엘리나 발로리는 《위대한 스승은 영생하신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태양은 세상천지를 빛과 열로 감싸준다. 그래서 태양은 인류의 려명기로부터 승배의 대상으로 되어왔고 하늘의 태양이 있어 이 땅의 만물이 소생하듯이 그 존함, 그 위성이 태양으로 빛나는 **김일성**주석께서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 오르시여 한량없이 뿜어주시는 찬란한 빛발은 위도와 경도를 넘어 이 세상 만민에게 따사로이 비치고있으며 지구상에 펼쳐진 자주시대의 푸른 숲을 더욱 무성케 해주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아버지만이 아닌 만민을 품에 안아 이끌어준 위대한 은인.

세인이 격찬하는 그이의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신심도 드높이 나아가는 우리들이다.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 그 길에서 마중오는 공산주의 봄.

그 봄을 앞당겨 조선이 간다. 우리 인민이 간다.

진정 우리의 봄, 인류의 봄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안아오시는 계절이거니...

봄은 태양이 있어 영원히 찾아온다.

우리의 봄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과 더불어 영원하다.

아버이수령님을 인민의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신 한없는 영광과 행복이 승엄히 깃든 태양의 성지.

여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영생하고계신다.

미구하여 퍼져갈 붉은 노을속에 거연히 서시여 인민을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수령님 펼쳐주시는 그 노을로 이 땅의 새날이 시작된다. 희망찬 래일도 밝아온다.

경모의 인사 드리며 수령님 한품에 안긴 인민들은 인민위해 바친 그 사랑 꿈결에도 잊지 못하는 심정을 아뢰며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고있는 그이의 거룩한 자욱을 자자구구 노래로 부른다.

그 노래를 싣고 올리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은은한 선율.

아버이수령님께서 온 생애를 바쳐 마련해주신 우리의 봄날에 더 큰 은정만을 쏟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사랑도 거기에 실려있다.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가시며 수령님 지니셨던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빛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여기 태양의 성지에서는 수령님의 노래가 높이높이 울리고 수령님 그 사랑이 스며있는 땅에서 우리는 자사손손 봄날에 살것이다.

첩첩난관이 가로놓여 한치한치를 옮기기가 힘겹던 지난해를 돌이켜보자.

원수들은 우리를 질식시키자고 봉쇄의 울가미를 조였고 우리의 봄을 불구름으로 밀어버리려고 발광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실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락관에 넘쳐있었다.

우리의 머리에선 여전히 따사로운 해빛이 비쳐지고있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한몫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최전연고지의 크고작은 산밭들을 누비시며 우리의 봄을 지켜주시었다.

적들의 총구가 뻗히 보이는 판문점초소에까지

나가지여 우리의 요람을 지켜주시던 경애하는 그이를 우리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했는가.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언제나 봄날에 살것이라는 굳은 신심이 매일매시각 안겨지던 지난해.

그렇다, 우리의 봄은 영원하다.

자연이 주는 봄의 계절은 시작이 있고 왔다가는 물러간다.

그렇지만 우리의 봄은 그 끝을 모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또 한분의 위대한 인민의 태양으로 모시였기에 우리의 봄은 태양의 빛발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자연의 봄아, 때가 되었다면 서슴지 말고 계절을 바꾸라. 그리고 찬비뿌리는 가을에 엄동의 계절에 우리를 뒤돌아보라.

인류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 영생하시교 인민의 태양으로 우리 장군님 솟아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봄날에 살것이다.

만경대의 해돋이로 시작된 우리의 봄노래는 세기를 넘어 끝까지 울려갈것이다.

사람들이여, 이 나라에 찾아온 봄의 서곡을 들으려거든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으시라.

무궁할 우리 생활의 봄노래를 들으려거든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우러르시라.

백송리의 봄

최영화

해마다 4월의 봄이 오면
누구도 아는지 없이
내 마음속에 남모르게
고이 피어나는 백송리의 봄

사랑하노라 전쟁의 그날
먼 백송리를 찾으신 우리 수령님
인생의 참된 뿌리를
내 심장에 깊이 심어주신 이 봄을

대학생의 몸으로 내 두볼을 적시며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수령님앞에서
축원의 자작헌시를 읊어드리고
수령님 감사를 받아안은 한생의 봄이기에

20대 검은머리가 70백발이 되도록
해마다 4월의 명절이면 마음에 피는

백송리의 진달래로 꽃다발을 정히 엮어
아버이수령님께 충정을 드리던 4월
내 마음속 가지 않는 봄
백송리의 그 봄을 안고
그리움에 사무쳐
수령님 영생을 기원하는 이내 마음이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넘쳐나고
백송리봄에 대한 추억은 깊어지고...
내 눈물로 심장의 시를 읊어드린 그 마음으로
언제나 잊지 못할 그 봄에 살아라

그 봄에 살아
내 마음엔 흰서리가 내리지 않아라
오늘의 수령님이신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마음
백송땅에 세워진 헌시비는 내 삶의 영원한 글발!

사랑의 부채

리동후

1

봄날의 훈향을 실고
나뭇기는 붉은기
논두렁마다 필력이며
들끓는 농장벌에 숨결을 더해준다

햇풀 내움에 이끌려
산으로 오르는 염소떼, 젖소무리...
들판에 차고넘친 노래소리에
바쁜 걸음 잠시 멈추고
저마다 한곡 목을 빼며 길게 우누나

철따라 가고오는 봄이건만
이해의 봄
류다른 이 봄의 기운이 한껏 넘치누나
눈보라와 찬바람이 모질었던만큼
시련도 많았던 겨울을 이기고
약동하는 봄

한걸음 한걸음
내 걷는 발이랑 논이랑마다
두툼히 밟히는 객토와 부식으로
한겨울의 이 땅을 걸구며
그 얼마나 많은 땀이
강추위를 몰아냈더냐

생각도 많아
가슴도 몽클해
제방우에 올라서는데
울긋불긋 내 눈길 이끄는
현장속보관

-라희찬아바이
오전중 방풍나래 둘러치기
200% 넘쳐수행!
...

나래치는듯
글밭도 기백이 넘쳐라
류다른 이해의 이 봄
풍년을 마중가는 농장원들의 마음
속보관이 다 말해주누나

누구인가

포전정리작업장에서
땀흐르는 이마를 씻으며
노상 웃음을 거둘줄 모르는
저 너인은

부르며 찾으며
사람들을 이끄는 그 모습에서
알수 있었더라
감실하게 얼굴이 탄 이 너인이
관리위원장인줄

-마침 잘 만났습니다
수령님으로부터 부채를 받아안은 로인이
바로 이 농장에 계신다지요?

너무도 뜻밖의 물음에
그 사연 어떻게 아시는가고
관리위원장은 웃음을 지으며
반가이 맞아주어라

-예, 그렇습니다
저기서 방풍나래를 둘러치는 로인인데
바로 제 아버님입니다

장대한 키에
근골이 다부진 로인의 모습에는
아직도 정정한 기력이 넘쳐
젊은이들과 일손을 다투는것인가

농립모아래
머리는 희였어도
일손에 비끼는 청춘의 열정
늙을수 없는 심장을 안아

저렇듯 젊음에 사는가

육체의 늙음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법
뜨거운 사랑
크나큰 믿음을 안은 삶은
영원히 젊어사는 법

아, 부채의 주인

얼마나 한량없는 은정을
수령님으로부터 받아안은것이라
한생에 두번다시 없는 축복을
이 가정이 받아안은것이라

등근해는 중천에 떠서
아늑한 마을을 포근히 비치는데
관리위원장은 나를 이끌어라
아버지를 앞세우며
창밖은 문화주택 오붓한 제집으로

-바로 이 부채입니다
장농속에 깊숙이
빨간 비로도천에 싸아둔 가보를
정히 내앞에 펼쳐보이어라

20년전 그날이 어제런듯
영광의 그 나날을 그리는가
그때는 빨간령장을 단
단발머리 애어린 처녀병사 금순이도
농사일 도말아 성실하던
그날의 작업반장 라희찬로인도
감격에 목이 메여 행복에 젖어
감회깊이 되새기는 추억이
내 가슴에 후덥게 흘러들어라

2

웅장한 수도의 거리
전차들과 승용차의 끝없는 흐름에
마음도 저절로 서둘러지는가
록음질은 강변의 유보도며
꽃향기 그윽한 모란봉기슭
가고싶은곳도 많아
걸음먼저 허둥거리는 로인의 마음

두루마기자락을 필력이며
건고 걸을수록
저도 몰래 터져나오는 경탄
파시 평양은 지상락원이라
꼭 별천지에 온것만 같다고...

어느덧 중심거리를 지나
휘우듬히 굽이진 모란봉언덕아래
희찬로인과 그의 딸 금순이
땀들이며 정류소에 서있는데

지나가던 까만 승용차 한대
서서히 벗어나고

비스듬히 차문이 열리며
금순이를 가까이 부르는
귀에 익은 음성

순간
너무도 뜻밖이어서
숫구치는 감격 누를길 없어
몸둘바를 모르는 금순이
정중히 인사드리여라
-아버이수령님!
날씨도 쾌청한 일요일
촌에서 처음 찾아온 아버지에게
수도의 거리와 유원지...
다 보여드리고싶은 속마음
그이께 다 아뢰이자

거참 잘됐다고
잘 모시고 다니라고
정깊이 이르는 수령님
다시 차를 타시고
바쁘신 길 멀리 이어가셨건만
인자하신 아버지 그 영상 어려와
금순이는 오래오래 서있어라

차안에 계시던분
딸애를 만나 그리도 친절히
무슨 말씀 하시였는지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알수 없던 로인
방울방울 눈물이 고여
아버지품에 달려와 안기는
금순이의 감격어린 그 목소리
심장을 쿵 울리는 그 목소리

-아버지, 기뻐하세요
아버이수령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글쎄 승용차를 세우셨잖아요
금순이는 최고사령부 교환수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날마다 그이의 음성 귀전에 들으며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내고있으니
얼마나 크나큰 믿음속에 안겨
축복을 받고있는것이냐

-아니 뭐라구?
너무도 꿈만같은 경사
아버지는 믿어지지 않았어라
산골에서 자란 농사군의 딸을

수령님께서 아시다니
 난생 처음 평양에 오셨다는
 아버지의 사연 다 들어주신 수령님
 마침 잘되었다고
 오늘저녁 만수대에 술극장에서
 아버지와 같이 공연을 보자고
 뜨거운 초청도 해주셨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행복은
 행복은 이런 때를 말하는것이리
 영광은
 영광은 이런 때를 말하는것이리
 너무도 뜻밖에 찾아온 행복에
 너무도 뜻밖에 안겨진 영광에
 목이 꽉 메여오고
 수령님 가신 길만 바라보는
 아버지와 딸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젖어내려라

3

어느덧 뉘엿뉘엿 해는 지고
 어스름이 깃을 펴는 저물녘
 대성산유원지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딸은
 서둘러 극장으로 들어서라

환상으로만 그려보던 금강의 절경이
 여기에 솟았는가
 으리으리한 대리석 원주기둥
 오색령룡한 무리등 불빛아래
 무지개 비낀 선경이
 여기에 펼쳐졌는가

장내에 깃든 고요를 흔들며
 열정에 넘친 박수갈채
 터져오르는 환호성속에
 관람석에 나오시는 어버이수령님

태양같이 환한 모습
 우러르고 우러르며
 금순이와 희찬로인
 그이께 정중히 인사드리자
 정겨운 미소로 반기시며
 자신의 가까이에서 자리도 잡아주시며
 다정히 손잡아 이끌어주시여라

멀리서 수고로이 오셨다고
 올해 농사작황은 어떠한가
 기계화포전의 규모도 물으시며
 풍년이 들어야 나라가 부흥한다고
 허물없이 이야기해주는 수령님앞에
 몸둘바를 모르고 로인은 서있어라

한생 땅을 주무르는 농사군보다
 어쩌면 그리도 농사일을 잘 아실가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어쩌면 그리도 잘 아실가

수령님 너무도 소탈하시여
 마음의 긴장은 어느새 다 풀리고
 로인은 저도 모르게 몸에 배인 습관대로
 두루마기 앞자락을 펴터치자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부채를 내주시여라

-로인님,
 이 부채를 쓰십시오
 선뜻 받아안기엔
 너무도 황송하고 죄스러워
 어떻게 수령님의 부채를
 받아든단 말인가

마주보는 딸의 눈길도
 아버지를 책망하는듯싶어
 로인은 슬며시
 부채를 밀어놓아라
 순박한 로인의 그 마음
 어느새 헤아려보시였는가
 한없이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또다시 이르시는 수령님

-어려워 마시고
 어서 받으십시오
 다시 로인의 손에 쥐여지는
 아, 부채
 수령님의 부채

수령님의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스며들어
 두손으로 받쳐들기엔
 너무도 무거워
 엉거주춤 허리도 못펴고
 가슴에 안은 부채

얼마나 멀고먼 길

수령님과 함께 있는 부채던가
 피약별 따가운 논두렁길
 그늘 한점 없는 발머리에서
 한점 시원한 바람이나마
 수령님께 올리던 이 부채

어떻게
 어떻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으랴
 인민을 위해 가고가시는
 로고의 그 길에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지 못할망정
 어떻게 선뜻 받아안을 수 있으랴

정이 많고
 사랑이 깊으신
 인간애의 숭고한 그 성품에
 누구인들 매혹되지 않으랴
 너무도 소탈하신 수령님 덕망앞에
 로인은 절로 머리가 숙어져
 눈언저리 찌르르...

-수령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 진정 무엇으로 보답하랴
 고마움에 젖어
 감사에 목매여
 무대우에 펼쳐지는 춤과 노래
 아름답고 우아한 황홀경이
 후더워진 눈앞에 부영게 안겨와라
 청고운 너가수의 노래소리마저
 귀가에 멍멍해라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한 부채살
 땀이 아니라
 불별도 막아주리
 열풍이 물려와도
 이 부채를 안은 심장은
 끄떡없으리

다시 보고
 다시 볼수록
 가슴속에 차오르는 뜨거움
 한없는 걱정외의 뜨거움

땀을 식히고
 더위를 덜어주는 부채라지만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울부짖어도
 뜨거운 이 마음만은 식지 않으리

그 뜨거움으로
 땅을 걸우고
 날알을 익히며
 만풍년의 나락을 안아올리며
 수령님께 기쁨드릴 그 일념에
 맹세도 뜨겁던 그날이어
 마음속에 안고사는
 영광의 그날이어

4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부채를 꺼내들면
 허물없이 농사일 의논해주시며
 두손을 꼭 잡아주시던
 수령님의 그 손길을 안아보는 마음이어서

날마다
 날마다 그앞에서
 자신들이 바치는 효성을
 새롭게 다잡는것은
 이들의 고정된 일과

오늘도
 부채를 꺼내들고
 눈시울 적시는
 아버지의 생각은 깊어져라

-정말 가슴아픈 괴로움에
 때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농사를 잘 지어 수령님을 모시자 했는데
 너무도 뜻밖에 가실줄은
 내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소

가정의 행복도
 나라의 부흥도
 인민의 운명도
 한평생 다 보살펴주시며
 수령님 쌓아올리신 그 위업
 하늘땅을 다 합친들 어이 비기랴

행복의 보금자리 마련해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주신
 아버지 그 사랑
 못잊을 감회에 잠겨

한밤중 깨어나서도
장농을 열어 펼쳐보는
사랑의 부채

그럴 때면
수령님앞에 선듯
로인은 심장에서 솟구치는 진정
뜨겁게 아뢰이어라

-수령님!
이 부채를 그 어이 천만금에 비기오리까
이 부채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가보입니다

-수령님!
이 부채를 그 어이 가볍다 하오리까
로인의 이 마음은 천만산악보다
더 무거움을 느끼옵니다

-수령님!
이 부채가 일구는 바람이
그 어이 시원하다 하오리까
뜨거운 열풍이 되어 이 가슴에 일어번집니다

정녕 부채를 펼쳐들면
새 삶의 숨결은 심장에 높뛰고
청춘의 열정이 샘솟아
온몸에 활력은 넘치여라

그 삶
그 열정으로
벌에 사는 마음은 행복해라
이 땅에 새기는 자옥은
위훈의 자옥으로 빛나라

부채여
세월이 준 나이를 넘어
젊어사는 청춘의 숨결을 안겨주는
사랑의 부채여

그 사랑
그 은정을 잊지 않고
대를 이어 길이길이 전해가는
인민의 그 마음속에
수령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나니

흐르는 세월속에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자나깨나
수령님 생각으로 젖어오는 로인의 마음속엔
더더욱 소중한지는 사랑의 부채

너를 펼쳐 일구는 바람은
알알이 열매를 익혀주는
따사로운 훈풍이 되어
벌에, 언덕에 황금나락 물결치여라

부채여, 네가 일구는 바람에
오색기는 세차게 퍼덕이고
기계화의 동음소리
농장벌 한끝까지 차넘치여라

오늘도 또 래일도
부채의 바람 뜨겁게 일어
환희로운 행복을 약속하며
풍만한 삶의 노래로
수령님의 인간사랑의 영원한 서사시로
대지위에 새겨지리라

만경대를 그리시며

에르난 알타미라노 팔꼬니

김정일 동지 그이께선
조용히 조용히 그러보시였어라
칠칠암흑이 덮쳐들던 기나긴 나날
조상대대로 억세게 살아오신 일가분들
그 얼마나 원대한 뜻 지녀오셨던가

옛날부터 땅을 가꾸어
알찬 열매 거둬들이시며
애국의 뜻 꽃피워오신 일가분들
소중한 모든것 한품에 안고 서있는

만경대의 성스런 봉우리
승엄히 승엄히 둘러보시였어라

캄캄하던 그 세월
한뼘기 비탈밭에 구슬땀 묻으시며
김도 매신 일가분
애국활동 벌려오신 그분들의 업적을
깊이깊이 새기시였어라

(필자는 빼루시인임)

우리의 하늘

조상호

노을이 붉은 만수대언덕으로 아침해가 천천히 솟아오르며 불안개 금빛대는 보통강기슭에 눈부신 해살을 한껏 쏟아붓기 시작했다.

실실이 휘늘어진 버드나무아지들은 금빛으로 녹아내리는 안개를 휘저으며 흐느적이고 새들은 포롱포롱 나무우듬지들을 날아며 빗쫂 쪼르르 청고운 맑은 소리로 지저귄다. 그것들은 마치도 락원의 강변에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영웅전사들을 축복해주는듯싶다.

상패한 이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승기념탑을 돌아보고계시었다.

준엄한 그날에 이 땅을 지켜싸운 전사들의 위훈을 력사와 더불어 길이길이 빛내주게 된것이 더없이 기쁘시여 시종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군상들을 돌아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하늘을 지켜》라는 군상앞에서 첫 녀성비행사 김선옥에 대해서도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김선옥동무는 우리 조선녀성들이 결심만 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한 동무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다른 군상들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그러시다가 문득 전쟁때 공군사령부로 가시다가 보신, 눈보라 휘몰아치는 들길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터벌터벌 울면서 걸어가던 그 처녀의 모습이 떠올라 다시 공군들의 군상을 돌아보시었다. 금시라도 날아오를듯 비행기에 올라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비행사, 한손을 채양처럼 이마에 올리고 항로를 가늠하는 비행지휘관... 아침해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그 군상들은 모두 신심과 락관에 넘친 모습들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돌리시었다.

(그래, 그 처녀가 참 웃음이 많았지. 노래도 잘 불렀고... 그러나 그때는, 비행사가 되려다 체대되었을 때는 난생처음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했었어. 난생 처음으로...)

군상들을 돌아보시며 가르치심을 주시면서도 수령님의 추억의 한끝은 어느덧 40여년전의 그 나날들을 더듬고있었다.

1

눈보라가 몹시도 세차게 휘몰아치던 날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크리스마스총공세》가 실패한것을 마치도 북조선의 《불리한 기후》나 《엄동설한》탓인것처럼 핑계달만큼이나 지독한 추위가 두달째 계속되고있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군사령부로 가시다가 차창으로 그 처녀를 보시었다. 처녀는 그 사나운 눈보라도 그 지독한 추위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 중발머리와 군용외투자락을 바람에 홀날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눈덮인 들길을 터벌터벌 울면서 걷고있었다. 방금 공군사령부에서 나온듯 수령님께서 가시는 길에서 《T》자처럼 갈라진 왼쪽 집들사이로 사라져가고있었다. 아마도 공군사령부에서 그 어떤 기막힌 비보를 받은 모양이었다. 준엄한 전쟁은 시각마다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남기고있었다.

서산마루에 반쯤 얼굴을 가리운 저녁해는 피빛같은 측은한 눈길로 처녀를 지켜보고있었다. 백설이덮인 들길을 맥없이 걸어가는 그 처녀가 그 대로 눈속에 묻힐가봐 걱정하는듯했다.

그러나 그때 수령님의 시야에 처녀가 얼핏 비쳐들기는 하였겠지만 사색은 전반적인 전쟁행정을 더듬고계시였었다.

단숨에 조선을 집어삼킬듯 기습을 부리며 덤벼들었던 적들이 아군의 강력한 반타격에 넋을 잃고 37도선 이남까지 쫓겨가면서 아우성을 치던 시기였다. 미제국주의지배층안에서는 《맥아더방어선》을 조선에서 일본, 대만계선으로 옮기자고 하면서 조선전쟁에서의 참패의 책임을 서로 추궁하느라 목에 피대를 세워가며 떠돌고있었다. 트루먼과 애치슨은 다른 나라들에 밀사들을 보내여 정전의 가능성을 탐지하느라 비지땀을 흘린다고 했다. 미제의 서유럽동맹국들도 더 큰 참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즉시정전》을 제기할데 대한 정전조항을 제출하는 소동을 피우고있었다. 영국과 토이키,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큰소리치며 몰려왔던 고용병들의 사기도 극도로 저락되었다.

하지만 100여년 침략력사에 한번도 패한적이 없는 미제가 순순히 물러앉을수는 없는것이다. 적들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피를 물고 총공세를 준비하고있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서는 각 군종, 병종 사령관들과 련합부대장들을 최고사령부에 부르시여 새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고 곧장 공군사령부로 오시는 길이였던것이다. 적들이 《공중우세》를 떠들며 우리의 하늘로 새까맣게 날아들어 야수적인 폭격을 하고있는 때여서 공군의 임무가 어느때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나서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공군사령부에서 작전회의를 마치

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한때 사람들은 누구나 함선만 많으면 세계를 제패할수 있다고 보았댔소.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랬댔소. 1916년에 영국이 첫 땅크를 몰고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아직 서쪽에 불과했소. 제2차 세계대전때 히틀러는 땅크를 기본으로 보았소. 제철생산되는 땅크의 무한계도로 유럽대륙을 단숨에 짓밟 개려고 했거든.

히틀러를 격멸시킨 쓰팔린은 땅크보다 포를 더 중시했소. 지어 그는 포를 <전쟁의 신>이라고까지 했소. 그러나 오늘의 이 현대전에서는 땅크도 포도 다 중요하지만 비행기가 위력한 전쟁수단으로 되고있소.

미제는 <하늘의 요새>라는 초중폭격기 <비-29>를 만들어 태평양상공의 제공권을 틀어쥐면서부터 더욱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졌소. 태평양전쟁때 <사무라이정신>이 골수까지 뺀 일본비행사들은 육탄으로라도 <비-29>를 까부시겠다고 독한 술까지 마시고 날아올랐지만 <비-29>를 건드려도 못보고 황천객이 되었소. 하늘의 <떨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이 <비-29>가 우리 조선전쟁에 대량적으로 투입되자 세계여론은 조선전쟁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우려를 하고있소.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해방후 5년밖에 자라지 못한 우리용감한 매들은 벌써 이 <하늘의 요새>에 사형선고를 내렸단말이요. 당과 조국을, 자기 운명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일떠선 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는거요. 나는 동무들이 이 경험을 살려 새 작전에서 지닌 자기 임무를 다하고 제공권범위를 더욱 확대하리라것을 굳게 믿소.》

수령님께서 회의를 마친 지휘관들이 흥분된 얼굴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문득 그 처녀에게 생각이 미치시여 공군부사령관 최철에게 방금전에 사령부에 왔다면 그가 누구인가고 물으시었다.

새로 받은 임무로 하여 한껏 흥분되어 가슴부풀리며 서있던 최철은 뜻밖의 물으심에 처음엔 어리둥절해서 일른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안 있다가야 그가 바로 중앙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김선옥이라는 처녀인데 비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와서 조르다가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 전혀 뜻밖이어서 최철을 다시 쳐다보시었다.

《도서관사서가 비행기를 타게 해달라? 가만, 김선옥이면 언제인가 동무네 항공학교 도서관에 있던 그 처녀가 아니요?》

최철이 어쭙게 웃으며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 동무가 어떻게 중앙도서관에 가있소? 그 동무야 비행사가 되겠다던 처녀가 아니요?》

수령님의 물으심에 최철은 금년도 1월 일부 녀

성들을 제대시켜 사회사업에 돌릴데 대한 최고사령부 명령 (남자들의 거의 전부가 전선에 나가고 후방엔 녀성들이 대다수인 조건에서 후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그런 조치를 취했었다.)이 내려왔을 때 아무래도 그를 비행사로 키울 조건이 못되기에 제대시켰다고 말씀드렸다. 《할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쟁만 아니였어도 그를 비행사로 키우려 했었는데...》

《음... 전쟁때문에 그를 키울수 없었던말이지?...》

최철은 열적은 미소를 지을뿐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수령님께서 물끄러미 최철을 쳐다보시다가 천천히 창가로 돌아서시었다.

밖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사나운 바람은 눈가루를 몰아다가 유리에 찌르르 쥐어뿌리고는 덜컥덜컥 창문을 잡아흔든다. 마치도 그 무엇인가 하소하며 몸부림치는듯 싶었다.

수령님께서 뒤짐을 지신채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시었다.

(김선옥이가 제대되다니... 그렇다면 그 처녀는 비행기를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제대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정말 서운하시었다.

김선옥은 수령님께서 한번 만나신적이 있는 처녀였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1949년 봄 어느날 수령님께서 정수리비행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날 김정숙녀사께서도 간부들과 함께 동행하시었는데 비행사들의 훈련모습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녀사께서는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였었다.

《우리 녀성들속에도 비행사가 되고싶어하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때 녀사의 그 말씀에 저으기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었다. 한것은 여때껏 사람들이 비행사하면 남자들 가운데서도 선발된 역대우같은 대장부들만 될수 있는것으로 생각해오고있기때문이었다. 아직은 녀성들이 자전거만 타고다녀도 마치 딴 세상 사람이나 온듯이 회한한 눈길로 다시 쳐다보군하던 때였다.

수령님을 안내해드리던 강건총참모장이 언제인가 자기한테 그런 처녀가 찾아왔길래 최철에게 보낸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 반색을 하시며 최철에게 그가 지금도 있는가고, 그가 어떤 처녀인가고 물으시었다.

《그 처녀가 아직 있습니다. 처녀는 시골처녀인데 당돌하다구 해야 할지 천진하다구 해야 할지... 하여튼 피짜는 피짜입니다.》

최철이 웃음을 머금은채 드리는 말씀이었다.

《전 그가 처음 찾아와 비행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황소가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말을 들은만치나 놀랍구 어이없었습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 그러는가 해서 처녀가 어떻게 비행사가 되는가고 말했더니 아 대뜸 <왜 못된단말입니까. 전 조선 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이 비행기두 타구 락하산두 탔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락하산병이나 비행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건 같겠지요? 그리구 전 자동차도 몰줄 압니다. 오토바이도 타보았습니다. 보안간부훈련소에 있을 때 다 타보았습니다. 리치는 같다고 봅시다. 비행기도 자동차처럼 땅에서 흘러가다가 뜬다지요?>하면서 막 생떼를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 떼를 쓰길래 갑자기 집의 막내동생생각이 나서 그 처녀보구 혹시 막내이가 아닌가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막내이면 어떻구 말이면 어떤가구, 그게 비행사 되는것하구 무슨 관계가 되는가구 막 따지고들어서 진땀만 뺐었습니다. 알고보니 정말 막내이는 막내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최철이가 처녀의 흉내까지 내는 바람에 당돌한 처녀의 모습이 그려지며 마음이 흥그러워지시여 꺾꺾 웃으시었다.

《정 말 막내이란말이지. 그래서 퇴박을 놓았소?》

《그자리에서는 차마 퇴박을 놓을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조르길래 항공학교 교재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구 했더니 대수구 기하구 물리구 입도 벌리지 못했습니다. 비행사가 되자면 중학교졸업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겠는데 이 동문 소학교도 못나왔으니... 그래서 도서관에 가 중학교과정을 다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보자고 하면서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는 락심천만해서 돌아가더니 지금은 공부를 하느라고 토요일, 일요일 춤추는데도 한번 안나갑니다. 술한 총각들이 은근히 원심을 쓰지만 결는 한번 안팔고... 어쨌든 결심만은 정말 강한 처녀입니다.》

《결심만은 장하다-왜 실천은 안될것 같소?》

《예?》

최철은 놀란듯 수령님을 우러르다가 시무룩이 웃으며 어림도 없다는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자가 어떻게 비행기까지 타겠습니까. 제 집 지붕에 달린 호박 따러 사다리 타고도 못올라가는게 너자들인데...》

수령님께서 어이가 없어 강건총참모장을 돌아보시며 또 웃으시었다.

《최철동무가 그러다 그 처녀에게서 <봉건감투>까지 쓰겠소 응? 허허허, 호박 따러 지붕에는 못올라가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야 올라갈지 누가 알겠소. 어쨌든 그 동물 좀 만나봅시다.》

최철이 그 처녀를 데려왔다. 남자들처럼 체격이 우람지고 역세일것이라고 생각하시었는데 뜻밖에도 몸매가 작고 날씬한 아릿다운 처녀였다. 산에가 있었는는지 군모(그때 항공학교 직원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다.)한옆에 진달래꽃 한송

이가 꽃혀있어 그의 환한 얼굴이 더욱 아릿다와 보였다.

수령님께서 대견한 눈매로 처녀를 여겨보시었다. 이처럼 곱고 아련한 처녀가 《무쇠덩어리》를 물고 하늘로 날아오를 꿈을 꾸고있다는것이 선뜻 믿기 어려우시었다. 고향이며 부모형제들에 대하여 알아보시던 수령님께서 어떻게 되어 비행사가 될 꿈을 가지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었다.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사실 자기한테 막내동생이 한명 있었었는데 대동아전쟁때 일본비행기가 떨군 소이탄에 불타죽었다고 조심히 말씀드렸다. 그때 선옥이네는 땅을 떼우고 중국에 가서 살았는데 비행기들이 새까맣게 날아와 폭탄을 떨굴 때마다 정말 무서웠다고 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평양학원에 항공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도 비행사가 되어 동생의 원썬도 갚고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살아오르더라는것이였다.

《전 지금껏 비행기가 제일 위력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동무들은 절보구 <공상가>라구 하지만 전 꼭 비행사가 되고싶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시었는데 할바에야 그런 위력한 비행기를 타구... 마음껏...》

수령님께서 까만 장화끝으로 땅을 호비작거리는 처녀를 보시며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래, 남녀평등권인데 될수 있구말구...)

이런 아릿다운 처녀가 다른 꿈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나라를 지킬 꿈을 꾸고있는것이 장하기 그지 없으시었다.

수령님께서 긴장된 처녀의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허리를 굽히시며 귀속말로 물으시었다.

《선옥인 비행사가 되기전엔 시집도 안가겠다고 했다면서?》

처녀의 얼굴이 단박에 능금알처럼 빨강게 익어버렸다. 수집어서 한동안 몸둘바를 몰라했다.

이런 처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여겨보시던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허리를 펴시었다.

《이거 야단이구만. 이렇게 고운 처녀가 시집을 못가면 어쩐다?》

처녀에게 용기를 주시려는듯 시종 눈웃음을 보내시던 녀사께서 최철을 돌아보시었다.

《아무래도 그 문젠 최철동무가 책임져야 할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도 웃으시며 긍정하시었다.

《웁소, 이런 고운 처녀를 시집 못가게 할수야 없지. 그 문젠 최철동무가 책임시오.》

《아니, 저 그건...》

최철이 당황해서 손을 내젓는데 처녀는 얼굴에

웃음을 확 피우며 수령님께 거수경례가 아니라
굽석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는것이였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것보오. 처녀동무, 인사는 나에게 할것이 아
니라 이 부사령관에게 해야 하오, 날 시집갈수
있게 비행사로 키워주시오 하고말이요.》

처녀는 부끄러워 어쩔줄 몰라하면서도 최철에
게 또 굽석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얼
굴을 가리우며 냅다 뛰어갔다. 즐거운 웃음소리
가 활주루로 울려 퍼졌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1년전에 있던 일
이였다.

그런데 그 처녀가 비행사는커녕 군복까지 벗기
우고 제대되였다는것이다.

또다시 세찬 바람이 눈가루를 몰아다가 짙르
창문을 후려갈겼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나들문
이 열리더니 부관이 무전변신지를 가지고 들어왔
다. 적들이 수많은 비행대와 탱크, 포병들을 동원
하여 총공격으로 넘어갔다는 보고였다. 드디어
적들의 모험적인 《제한공세》가 시작된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무전변신지를 손에 드신채 나직
이 물으시였다.

《3번동무가 자기위치에 있소?》

《있습니다.》

《이미 토의된대로 작전을 시작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예비대로 있던 김동무네 연합부대를 즉시
전선서부 X계선으로 진출시키고 최동무네 연합
부대는 작전에 관계없이 적 중심으로 더 깊숙이
들여보내시오. 모든 전선에서 강력한 반타격전을
전개하여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조선에서 오래
전에 떠나야 하였으리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합시
다.》

수령님께서는 이어 수화기를 드시고 내각에 인
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알아보고 유자녀보육원과 유자녀학원,
전재고아들을 위한 초등학교원들을 빨리 내와야겠
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윽해서야 수화기를 놓으시고
천천히 작전타알을 거니시였다. 이제 전전선에서
강력한 반타격전과 반돌격전이 진행되고 놈들의
작전전반이 보기좋게 파탄될것이다. 수령님께서
는 전선서부와 중부, 동부를 맡고있는 연합부대
장들의 믿음직한 얼굴들을 그려보시였다. 전선길
에서 만나시였던 전사들의 모습도 그려보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눈보라 사나운 길을 울면서 걸
어가던 처녀의 모습이 또다시 떠오르시여 창가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가슴이 아릿해지시였다. 그렇게도 웃음 많고 꿈
이 크던 처녀인데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일이 바
쁘시여도 오늘은 그 처녀를 위해 시간을 내야겠
다고 생각하시였다.

전쟁에 립하는 최철의 관점부터 바로잡아주셔

야했다.

사실 1년전 그날 수령님께서 최철에게 선옥이
를 비행사로 키워보라고 하신것은 처녀의 꿈도
대견했지만 그보다도 처녀의 모습에서 나라의 광
복과 함께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를 주
장하며 펼쳐일어서고있는 우리 녀성들을 보시였
기때문이었다. 남존녀비, 현모량처, 칠거지악...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노예적굴종만을 숙명적인것
으로 감수하며 짓밟히우고 시달려온 우리 녀성들
이 드디어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봉건의
올타리안에서 뛰쳐나와 저 푸른 하늘로 높이높이
나래쳐오르려는것이 더없이 장하시고 기쁘시였
던것이다.

그런데 그 귀중한 꿈이 지금 좌절당했다.

전쟁때문에...

정녕 이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있는가.

우리 인민들은 지금 해방후 5년간 땀흘리며 창
조해온 그 귀중한것들을 잃고있다.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 학교와 병원, 살림집과 극장... 그리
고 귀중한 혈육들과 자기 생활까지도 수령님께서
는 생각하실수록 마음이 괴로우시였다. 지난날
너무도 못살고 짓밟혀온 인민이여서 이제는 정말
한푼에 고이 안아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며
소중히 키워주고 안겨주고 보살펴주어 한껏 내세
우려 하시였었다. 그런데 지금 놈들은 그 인민들
의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남기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려 하는것이다. 노래도 웃음도 꿈
도...

이것이 과연 전쟁인가? 제국주의 어용사자들이
부르짖는것처럼 파괴와 살륙, 피와 상실... 이것
이 과연 전쟁의 총체인가?

수령님께서는 단호히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잃는것이 많을수록 그 모든것을
천만배로 더 보상해주고싶으시였다. 우리 인민
의 그 밝은 웃음과 아름다운 꿈과 행복한 생활을
그어떤 원쑤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고 더 활짝
꽃피워주고싶으시였다. 이 전쟁이 파괴와 살륙
이 아니라 창조와 전진, 새로운 위대한것의 탄생
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수령님의 의지였다. 그
래서 놈들이 도시와 마을을 무참히 파괴하는것을
목격하시면서는 그 패허우에 이제 더 웅장화려
하게 일떠세울 복구계획도를 구상해오신 수령님
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서시였다.

《최철동무, 난 지금도 해방직후에 동무가 나를
찾아와 항공대를 조직해달라고 하소하던 일이 잊
혀지지 않소. 그때 동무는 울면서 말했었지. 일제
때 조선사람이라고 비행기술이 높아도 수모와 멸
시만 받았다고... 이제는 제 나라 제 땅에서 제
비행기를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날아보고싶다고말
이요. 우리는 동무의 그 눈물겨운 하소연을 들으
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댔소. 그래서 동무의 그

소원을 마음껏 풀어주려고 항공대를 조직하라고 파업을 주었던거요.

이제는 동무가 이렇게 한 나라의 공군무력을 책임진 부사령관이 되었고, 우리 인민모두가 해방후 5년동안에 이렇게 자라났소.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왔단말이요. 그런데 전쟁이 뭐라고 그 아름다운 꿈들을 지켜주지 못하겠소. 나라를 빼앗겼던 그 기나긴 세월 우리 인민이 품었던 그 소중한 꿈들이 피어나보지도 못하고 짓밟히고 꺾이웠던것만도 원통한데 우리 땅, 우리 제도에서야 무엇때문에 그 꿈을 꽃피우지 못한단말이요. 전쟁이 뭐길래...

아무리 전쟁이 엄혹하다 해도 우리의 전진운동은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소.》

수령님께서 최철을 돌아보시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 처녀를 항공학교에 보냅니다. 안전한곳에 보내서 유능한 교원을 따로 붙여 집중적으로 훈련시킵시다. 녀성의 체질에 맞게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녀성비행사로 키웁시다.》

최철은 놀라움과 걱정에서 휩싸여 수령님을 우러르기만 할뿐 미처 대답을 못드리고 서있었다.

수령님께서 그 처녀를 비행사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세워주시고서야 최고사령부로 향하시었다.

2

처녀는 웃음을 되찾았다.

수령님께서 처녀의 밝은 웃음을 다시 보신것은 그가 항공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왔을 때였다. 그때는 녀들의 《하기공세》가 절정을 이루던 엄혹한 시기였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항공학교 졸업생들이 남들이 3~4년을 걸려야 한다는 훈련강령을 네댓달동안에 마치고 훌륭한 전투비행사들이 되어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으시고도 녀들의 《하기공세》를 최종적으로 격과분쇄하기 위한 작전지도로 짤을 못내시다가 보름이 지난후에야 전선동부로 가시는 길에 몸소 그들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비행장 활주로옆 들국화가 하얗게 핀 나지막한 언덕에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오락회가 벌어졌다.

김선옥은 들국화꽃뭉음을 가슴에 안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하는 내 고향은 살기 좋은곳이었네

수령님께서 비행사들속에 앉아 대견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고계시었다.

비행사표식이 붙은 산뜻한 군모, 보름달같이 둥글고 환한 얼굴, 크고도 검은 빛나는 두눈, 날신한 허리를 꼭 조여맨 군관혁띠, 탄력있는 다리, 윤기도는 까만, 가죽장화...

방금전 들국화꽃다발을 안고 울고웃으며 달려

와 안겨들던 처녀였다.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는 처녀를 보시느라니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녀성들속에도 비행사가 되고싶어하는 동무들이 있다고 자랑스레 말씀드리던 김정숙녀사의 모습이 떠오르시었다. 그가 살아 지금 저 처녀를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시었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조선의 첫 녀성비행사-이 얼마나 장하고 대견한가.

수령님께서는 곁에 앉은 최철에게 나직이 물으시었다.

《선옥의 비행술이 그만하면 괜찮지?》

방금전 그들의 시험비행을 다 보아주신 수령님이시었다.

최철이 자랑어린 어조로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원래 리착륙은 비행사들의 기본 고급기술의 하나인데 선옥동문 그만하면 남자들 못지 않습니다. 지도작업과 방위판정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음.》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시여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최철동무랑 정말 수고했소.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몇년씩 걸린다는 비행사양성을 단 몇달동안에 그것도 훌륭한 녀성비행사까지 키워냈으니 말이요. 얼마나 좋소. 이게 바로 우리 조선식이 아니겠소. 어떻소. 이젠 선옥이도 전투임무를 꽤 수행하지 않을까?》

《예?》

최철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가 어쭙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투임무까지 줄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사실 비행사가 된것만도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지금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동문 정말 우리 항공대의 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그때는 우리 비행사모두를 저 처녀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태우고 이 세상 명승지란 명승지는 다 가보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령님께서 미소를 띄우신채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최철의 말에 얼마간 공감도 되시었다.

전투비행사란 누구보다도 대장부다운 기질이 있어야 하기때문이었다. 일단 하늘에만 올라가면

모든 정확을 독자적으로 분석판단하고 복잡한 전투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는것이다. 정확하고도 신속한 판단, 대담한 결심, 용감하고도 적극적인 행동...

그러자면 강한 정신력과 함께 바위같은 의지, 역센 육체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더구나 오늘 우리의 전쟁은 말할수 없이 가혹하고 무자비한 야만들과의 싸움이였다. 녀들은 《공중요새》라고 뽐내는 초중폭격기들을 앞세우고 수백수천대의 습격기, 추격기, 폭격기들로 하늘

을 갈가마귀떼같이 뒤덮으며 날아들고있었다. 그 격렬성과 밀도가 얼마나 강한지 어느 한 서방기자는

《조선의 하늘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노르망디와 솔로몬군도의 하늘보다 더 무섭게 불타고있다. 미국은 지상무력의 참패의 공간을 항공력으로 메꾸려 하고있다. 미항공대의 편대조직과 폭격도수는 그 밀도와 격렬성에 있어서 력사상 류례없는것이다.》라고 말했었다.

이런 불타는 하늘로 어떻게 꽃같이 연약하고 아릿다운 저 처녀를 올려보낸단말인가.

(그해 꽃이지. 선옥인 하늘의 꽃이야. 우리 조선의 꽃이고...)

수령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시었다.

예쁘장한 홍조어린 얼굴, 그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돋구어주는 하얀 들국화꽃송이들, 청아한 그의 노래소리...

아, 그러나 정든 고향은 불타버리고

...

수령님께서는 문득 산에서 싸우실 때 달밝은 숙영지 우등불가에서 먼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향수에 잠겨 《사향가》를 부르던 항일의 녀대원들을 그려보시었다. 그들은 정녕 얼마나 아름다운 녀성들이었던가. 김정숙, 최희숙, 안순화, 허성숙이...

그러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녀성들은 이자리에 없다. 그 꽃다운 청춘을 조국해방의 성전에 아낌없이 바쳤다.

이 전쟁에서도 수많은 녀성영웅들이 태어나고있다. 구월산의 조옥희, 간호원 안영애... 홍원의 한 어로공처녀는 바다에서 혼자 고기잡이를 하다가 적선의 습격을 받게 되자 수류탄으로 적과 맞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고기배와 덤장을 지켜냈다.

우리 조선의 꽃은 결코 아름답고 연약하기만한것이 아니다. 굵고도 강하며 아련하면서도 역센것이 우리 조선의 꽃이다.

수령님께서는 선옥이도 그렇게 키우고싶으시었다. 그 영웅들속에 당당히 들어세우고싶으시었다.

력사는 언제나 가장 준엄한 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간들이 탄생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 영웅들중에 우리 녀걸들은 얼마나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가. 우리 항일의 녀투사들은 물론 멀리는 설죽화며 계절향이며 론개, 행주산성의 녀성들과 가깝게는 《만록청중 일점홍》이던 리관린이...

수령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대한 인간들을 키워내는 혁명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었다.

자주적인 삶을 지키려는 인간의 힘은 무한대한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시

었다.

《유람비행기는 후에 태우고 당장은 전투임무를 주는것이 어떻소?》

그러나 최철은 아무래도 마음이 안놓이는 모양이었다.

《장군님,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 처녀 아직도 철이 없다고 해야 할지... 그저 꽃밖에 모릅니다. 오늘 아침도 비상소집을 했는데 글썽 위장을 한다는것이 배낭엔 온통 들국화만...》

수령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었다.

《처녀가 꽃을 떠나 무슨 생활이 있겠소. 이 전쟁때에도 꽃을 꺾어들고 다닌다는게 얼마나 좋소.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도 녀대원들은 정말 꽃을 사랑했소. 난 지금도 조국땅에 첫발을 디디었을 때 진달래꽃을 불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오. 그 모습은 그대로 꽃이었소. 그렇소, 녀성은 그대로 꽃이요. 꽃은 그들의 생활의 전부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싸워이기는거요. 한번 임무를 주어보오. 아마 훌륭히 수행할거요. 이번에 새로조직하는 야간습격대대에 저 처녀를 망라시킵시다.》

처녀는 여전히 들국화꽃잎에 불을 대이고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기다리라 나의 고향 나서자란 산천이여
원쭉치고 돌아가면 너를 안아 일으키리

수령님께서는 문득 처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 지는것을 띄여보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자 별로 가슴이 찢릿해지는것을 느끼시었다. 방금까지 행복에 겨워 웃으며 노래하던 처녀였다. 그러나 처녀는 지금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눈물은 겹잡을 새 없이 그 동실한 랑불을 타고 줄줄 흘러내린다.

수령님께서는 두눈을 가느스름하게 좁히시며 처녀를 여겨보시었다. 처녀의 그 눈물속에서 비분을 금치 못해하는 처녀의 모지름을 읽으시였던것이다. 그 어떤 강렬한 지향과 호소와 의지가 그의 눈물에 비껴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시었다. 아까 최고사령부를 떠나오실 때 보신 폐허로 된 평양의 거리를 생각하시었다.

반나마 무너진 공장굴뚝, 불타는 거리... 여기 저기 나뒹구는 벽돌조각들, 폭격에 숨진 아이를 부둥켜안고 원쭉을 절규하던 녀인과 그옆에 깨여져나간 빨래함지와 널려진 옷가지들...

어느 시인은 《폭격에 참새마저 없어진 조선...》이라고 했었다.

처녀는 여전히 젖은 음성으로 절절히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온 세상이 부럽도록 락원을 세우리라
수령님의 품속에서 길이길이 살리라

수령님께서서는 자신도 모르게 두주먹을 짝 움켜쥐시었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기어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불타버린 그 폐허위에 온 세상이 부럽도록 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 온 세상이 부럽도록...

수령님께서서는 래일쯤엔 설계가들에게 임무를 주신 전국의 도시와 마을, 살림집들의 복구계획도 추진정형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전선동부를 거쳐 최고사령부에 돌아오시자 작전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관을 부르시었다.

《선옥동무에 대해 좀 알아보오. 분명 선옥의 그 눈물에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소.》

적들의 《추기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새 작전과 관련하여 긴장한 전투임무를 주시려는줄 알았겠는지 부관은 저르기 놀란 표정으로 서있다가 이윽고 경건한 표정으로 수령님을 우러르며 힘있게 대답올렸다.

《알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3

그해 가을은 시작부터 잔고했다.

《하기공세》에서 참패를 당한 적들이 또다시 모험적인 《추기공세》를 준비하면서 전선 서부와 동부에 막대한 병력과 기재를 은밀히 집결시키고 있었다. 아니 전선서부에서는 벌써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큰물로 끊어진 철교와 길들을 미처 복구할새도 없이 매일같이 수백대의 폭격기들을 들이밀어 전선과 후방의 편계를 끊어놓으려고 마구 폭탄을 뿌려던지고있었다.

그날도 평양상공에서는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든 수십대의 적기와 우리 매들이 공중전을 벌리고있었다. 시민들은 남너로소 할것없이 모두 밖에 나와 공중전을 구경하고있었다. 하늘을 썰며 꼬리잡이를 하며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광경을 창밖으로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작전지도앞으로 다가가시었다. 적들의 이 소동이 제놈들의 주타격방향을 혼돈케 하여 전선 동부와 중부의 아군부대들을 전선서부로 유인하기 위한 어리석은 속임수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하신 수령님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붉은색연필로 1211고지를 중심으로 한 전선동부지대에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짙은 화살표들을 그어나가시었다. 그 화살표를 따라 달려나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갱도를 파며 야전축성물들을 설치하고 직사포들을 고지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시었다. 이번 추기방어작전에서 적들은 현대전쟁력사에도 없고 어느 나라 병서에도 없는 우리 식의 싸움맛을 톡톡히 보게 될것이다. 그리하

여 적들은 저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정전담판장에 다시 끌려나오야말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신심에 넘치시여 명령서를 작성하시고나서 부관에게 군사위원들을 부르라고 이르시었다. 그러시고는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에 전화를 걸어 반항공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전당, 전민이 달라붙어 익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와닥닥 거둬들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도록 과업을 주시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와!》 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적기 두대가 검은 연기를 토하며 떨어지고있었다. 나머지 적기들은 황황히 뺑소니를 치고있었다.

(장해. 우리 매들이 정말 잘하거든.)

수령님께서서는 빙긋이 웃으시었다. 그러시다가 불쑥 김선옥이가 생각나시여 다시 수화기를 드시었다.

(그 처녀도 틀림없이 잘 싸우고있을게야.)

그러나 최철의 보고는 전혀 뜻밖이였다. 김선옥이 전투에 나갔다가 엄중한 파오를 범하고 처벌을 받았다는것이였다.

《모든건 다 저의 불찰이였습니다. 제가 그 동무의 준비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지 못하고 단독임무를 주어서 그만...》

수령님께서서는 선뜻 믿어지지 않으시여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려는데 한 장령이 들어와 군사위원들이 다 모였다고 보고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수화기를 드신채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시었다. 이제는 군사위원회를 지도하여야 했다. 그 다음에는 또 새로 건설한 모란봉지하극장에 진렬하여놓은 전국의 도시들의 복구계획들을 보아주셔야 했다. 또 그다음에는...

바쁘신 수령님이시었다. 전쟁의 중하가 수령님 한분의 어깨우에 놓여있었다. 100여년의 침략력사에 한번도 패한적이 없는 《세계최강》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15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력사상 류례없는 준엄하고도 가렬한 전쟁이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한 처녀의 일이 마음에 걸리시여 선뜻 수화기를 놓으실수가 없었다. 아무리 바쁘시여도 그 처녀의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싶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최철에게 몇마디 더 물으시다가 《가만, 이거 전화로는 안되겠구만. 지금 곧 나에게 오시오.》 하고 부르시고서야 수화기를 놓으시었다.

최철은 수령님께서 군사위원회를 마치신후 모란봉지하극장에 가시여 복구계획도를 보아주시며 설계가들에게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극장을 나서실 때에야 도착하였다.

최철은 선옥의 파오가 모두 자기탓이라면서 떠들거리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선옥이가 받은 임무는 철산반도 앞 대화도에 동지를 틀고있는 놈들의 전파탐지초소를 폭격하

는것이였다. 그 초소는 아군비행대들의 비행방향을 탐지하여 제놈들의 기지에 알려주는 우리 비행대에 있어서 암과 같은 존재였다. 놈들은 그 초소가 중요한것만큼 고사무력과 해안방어무력을 계속 강화하고있었다.

선옥은 목표물 상공까지는 제대로 날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발동을 끄고 하강하면서 목표물을 탐색하던 그 순간부터 당황하기 시작했다는것이다.

600미터, 500미터... 비행기는 사정없이 하강하는데 보여야 할 등대도, 탐지기도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것이다. 캄캄한 땅과 검푸른 바다만 막 솟구쳐올라오고... 300미터, 200미터... 자칫하면 바다에 구겨박힐수 있는데까지 하강했다가야 다시 고도를 높여 대화도라고 짐작되는 지점을 또 선회하였으나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것이다.

그때부터 선옥은 경황이 없이 헤뎀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 동문 것처럼 전투규정에 엄금하게 되어있는데도 적진지상공에서 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놈들의 집중사격까지 받고...》

《그래, 그 동무가 다치진 않았소?》

《다행히도 다치는데는 없습니다. 비행기도 무사고... 시간은 많이 지체했지만 폭격도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었지만 모험을 하구 제멋대로 전투규정을 어긴데 대해서만은 목과할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비행사 한명, 비행기 한대가 그렇게 귀한데 이런 현상들을 목과하기 시작하면...》

주위엔 어느덧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수령님께서 최철의 보고를 들으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임무를 받고 날아갔던 처녀의 그 심정이 되시여 그때의 정황을 그려보시였다.

선옥은 그때 자기가 기지로 돌아갈 시간을 어겼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로서는 아무데고 폭탄을 내던지고 갈수가 없었을것이다.

그는 너무도 안타까와 울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문득 뇌리를 스친것이 발동을 걸어 자기를 로출시키면 놈들이 포를 울려쏠게고 그러면 놈들의 위치를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것이다.

물론 처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죽어도 임무는 수행하여야겠기에 서슴없이 그길을 택했을것이다.

최철은 말씀드렸다.

《항법사가 그러는데 글썽 그 동문 놈들이 포를 광광 울려쏘는데도 발신 못더랍니다. 우린 듣기만해도 오싹 소름이 끼치는데... 정말 억이 막혀서...》

수령님께서서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래, 웃었을수도 있지. 그 처녀 분명 그랬을수 있어. 놈들이 자기의 수에 속아넘어간것이 깨고 소했을테니까.

그런데 전투총화는 어떻게 되였는가.

...선옥은 전투규정을 위반했다. 비행사가 어떤 경우에도 은밀히 접근하여 폭탄을 투하하고 신속히 탈출하는것이 법처럼 되어있다는걸 몰랐는가. 그런데 동무는 적진우에서 분별없이 발동을 걸어 놈들의 사격을 받았고 자칫하면 임무수행은 커녕 비행기도 목숨도 다 잃을번 했다. 우리에게 한명의 비행사, 한대의 비행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동무는 모르는가? 이것은 모험주의이다, 전투시간도 어겼다, 비행사에게 있어서 임무수행시간은 철칙이다, 비행사가 기수만 한번 잘못 돌려도 순간에 어디까지 날아간다는걸 동무는 아는가, 동무의 비행기엔 연유가 불과 반바깥째도 남지 않았다, 연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무서운 자유주의이다, 위험하다, 용서할수 없다, 처벌이다, 전투중지다, 비행기를 탈 자격조차 없다...

최철은 수령님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다.

《모든것이 저의 잘못이였습니다. 제가 사전에 있을수 있는 정황을 다 예견하구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만...》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최철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시였다. 무엇이 잘못이란말인가. 그럼 그런 정황에서 어떻게 해야 옳단말인가.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시였다.

나지막한 둔덕에 오르시니 저 아래에 천막들이 보였다. 모란봉지하극장 건설에 동원되였던 군인들의 천막이였다. 불빛이 흘러나오는 천막안에서는 오락회를 하는지 병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내 고향엔 정든 집이 있었네
사랑하는 내 고향은...

김선옥이가 부르던 노래였다. 눈물을 머금고 부르던 노래였다. 전사들은 누구나 이 노래를 사랑하고있었다. 이렇게 고향을 안고 싸우기에 그들은 승리하고있는것이다.

《그래 그 처녀가 점심밥은 먹었소?》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는 천막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최철에게 물으시였다.

《밥두 안먹구 울고 있다? 하긴 그 처녀가 밥을 먹울리가 없지.》

수령님께서서는 앞에 서있는 철봉대를 흔들어서 보시였다. 적비행기의 잔해를 뜯어다만든 철봉인데 받침줄을 어찌나 든든히 했는지 흔들리지 않았다.

《전투규정이라... 하긴 어려운 싸움일수록 규율이야 더 잘 지켜야지. 그래 최철동무는 그 처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최철이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말씀올렸다.
《제 생각에 두 당분간 전투를 중지시켰으면 합니다. 좀 정신이 들게… 아직 너무 철이 없습시다.》

임무를 수행하고 온 다음에 가보니 비행기 좌석은 온통 꽃천지였습니다. 지어 조종간까지 꽃으로 장식을 했는데…》

《그래서 선옥이지. 그래서 처녀이고…》

수령님께서 최철의 말을 막으시며 이렇게 혼자 말씀처럼 뇌이시었다. 저멀리 남쪽하늘에서 우릉 우릉 비행기발동소리가 울려오고 이어 탐조등불빛이 하늘을 썰며 쿵 쿵 포성이 들려왔다.

수령님께서 포성이 들려오는쪽을 돌아보시다가 힘있게 고개를 가로 저으시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아니요. 선옥이에겐 처벌이 아니라 훈장을 주어야 하오.》

《예?》

최철이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수령님께서 다시금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렇소. 선옥인 처벌감이 아니라 훈장감이지요.》

최철은 여전히 굳어진듯 서서 수령님을 우러르고 있었다.

수령님께서 가슴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의분을 느끼시었다. 앞에 드리운 소나무가지를 들어 길을 내시며 걸으시었다. 그 처녀에게 처벌을 준 최철이와 공군사령부 지휘관들의 처사가 마음에 드시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처녀가 다시는 그런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자고, 다시는 전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모범비행사》로 키우자고 그렇게 하였을것이다. 처녀를 아끼는 심정에서…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보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전투규정을 따지기전에 왜 그가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왜 전투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것이다.

원주들의 비행기폭격에 동생이 불타죽는것을 본 처녀이다. 그래서 기어이 비행사가 되어 복수를 하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장한 처녀이다.

드디어 그는 우리 나라의 첫 녀성비행사가 되었다. 지휘관들과 전투들의 큰 관심속에 첫 전투에 나갔다.

이런 그가 임무를 수행 못하고 그냥 돌아올수가 있는가.

아니 이것은 모험이 아니다, 육탄이 되어서라도 임무를 수행하고야 말려는 숭고한 희생정신, 군인의 높은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오늘 우리 전사들은 누구나 그렇게 싸우고있다. 다시는 식민지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서…

수령님께서 바로 김선옥이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것이 대견하고 장하기만 하시었다. 바로 그를 통하여 원주와의 판가리 결사전에 나선 우리의 수백만 녀성들을 보시었다.

그래서 그를 더욱 내세워주고싶으시었다.

그런데 우리 지휘관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이사람들은 그렇게도 심장이 뜨겁지 못한가.

수령님께서 여전히 걸음을 옮기시며 약간 갈린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유인전술이라는데 많이 썼소. 자기를 우정 로출시켜 적들을 유리한 곳에 끌어다가 불이 번쩍나게 담새기군하였지. 선옥이도 말하자면 그런 유인전술을 쓴게 아니겠소. 얼마나 영특하오. 얼마나 대담하구… 만일 그 동무가 전투규정만 생각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우린 오히려 그걸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수령님께서 최철을 돌아보시었다. 최철은 고개를 떨어뜨린채 무엇인가 신중히 생각하며 따라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었다.

《물론 규정이 중요한것만은 사실이지요.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마오. 그러나 우리 지휘관들에게 보다 중요한것은 자기가 처벌받을것을 각오하면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야마는 전사들의 그 숭고한 자각과 불타는 심장을 볼줄 아는거요. 처녀를 다시 비행기에 태우시오. 그리고 이번엔 더 큰 임무를 줍시다. 난 그 동무가 틀림없이 영웅이 되리라고 믿고싶소.》

최철은 너무도 크나큰 격정에 대답을 못드리고 뜨거운것만 삼켰다. 머리우에서 가랑잎 한개가 팔랑거리며 떨어져내렸다.

수령님께서 고개를 드시었다. 한껏 높아진 검푸른 하늘에서 도글도글 별들이 여물어가고있었다.

《허, 벌써 선기가 도는가, 높은 고지에서 갱도 생활하는 전사들의 잠자리가 춥지 않은지 모르겠군.》

그날 자정도 훨씬 넘은 깊은 밤중에 수령님께서 전화로 전선동부의 한 군단장을 찾으시었다.

《어떻소, 그곳은 지대가 높아 밤엔 춥겠지?》

군단장은 고지에서 전투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것도, 선기가 나는것도 미처 감촉하지 못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 따뜻한 어조로 일깨워주시었다.

《전투원들을 잘 돌봐줘야 하오. 그 전투원 한 사람한 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전우들이요.》

그전에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혁명전우가 적은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소.

우리는 그 귀중한 보배들을 힘껏 돌봐줘야 하오. 벌써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도록 해주고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줘야 하오. 그리고 전투원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살펴주도록 하시오.》

4

처녀는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있었다.

살췌이 내려감기는 눈을 번쩍 뜨고 도리머리질도 하며 졸음을 이겨내려 무진 애를 쓰더니 마침내 쏘파 팔걸이에 슬며시 엎드려버린것이다.

방금 정전담판에 나갈 대표에게 가르치심을 주어 내보내시고 군사위원회에 1952년도 화학비료 수송공급에 관한 명령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신 수령님께서는 설명절 오찬회준비가 다 되었다는 전화를 받으시자 선옥이를 데려가려고 대기실로 나오시다가 주춤 걸음을 멈추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윽도록 처녀를 바라보시다가 다시 집무탁으로 가시여 수화기를 드시고 음성을 낮추어 말씀하시었다.

《음... 간부들이 다 모였단말이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오. 조금만...》

서둘러 말씀을 끝내시고는 옷걸이에서 자신의 외투를 벗겨들고 대기실로 나오시여 처녀의 어깨 위에 조심히 씌워주시었다. 대견한 눈길로 잠든 처녀를 이윽도록 내려다보시느라니 문득 아침에 있는 일이 생각나시었다.

오늘 아침 수령님께서는 설명절을 함께 보내고 싶어 최철이와 선옥이를 부르시었는데 뜻밖에도 처녀는 영웅메달을 달지 않고 왔었다. 수령님께서 물으셔서야 선옥이가 영웅메달을 달지 않았다는것을 안 최철은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이 처녀가 최고사령부로 오면서 화장한것마저도 다 지워버렸다고 보고드리는데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설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부르시었다는것을 안 선옥이가 너무도 행복스럽고 기뻐서 화장했다가는 지우고 그리고 또 다시 하면서 거울만 들여다보며 어쩔바를 몰라하길래 공군사령부 처녀들을 총동원해서 곱게 화장시켰는데 차를 타고오다가 보니 또다시 손수건으로 화장한것을 지우고있더라는 것이였다. 암만보아도 자기는 화장한게 어색하다는 것이였다. 영웅메달도 어색하다고 안달했다는것을 겨우 달게 했었는데 어느새 벌써 뻗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럼 선옥이가 정말 영웅메달을 달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볼가.》

수령님께서는 앞의 책상우에서 몇장의 신문을 골라내시었다.

《내 동무들을 기다리며 다시 읽어보던것들인데 다른것은 말고... 가만 여기에 이런 기사가 실려있구만.》

<조선인민군 녀성비행사 김선옥 그는 하늘의 녀왕, 하늘의 사자... 목표를 탐색하기만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육탄이 되어 날아든다. XX합선은 그 녀왕이 하늘에 뻗었다는것을 알자 황황히 항로를 바꾸어 기지로 돌아갔다는 말도 있는바 사실여부는...>》

《장군님 그건 사실 좀 너무합니다. 그건 정말...》

선옥이가 당황해서 두손을 내젓다가 부끄러운듯 얼굴을 가리우자 수령님께서는 또 다른 신문을 읽어주시려다가 꺾꺾 웃으시었다.

《이거야 기자가 쓴것인데 진실이겠지. 그 영웅메달을 인주오.》

수령님께서는 선옥이가 품속에서 꺼낸 영웅메달을 손수 앞가슴에 달아주시었다.

《정말 잘 싸웠소. 영웅동무!》

선옥은 격동된 얼굴로 수령님을 우러르다가 갑자기 흐흑 하고 흐느껴울며 품에 안겨들었다.

《장군님!》

《정말 용해. 잘 싸웠어.》

수령님께서는 대견하여 처녀의 어깨를 두드리주시었다. 이때 내각에서 문건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총참모부에서도 긴급통신을 가져왔다. 문건들을 보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수령님께서는 선옥의 눈에 피말이 선것을 띠여보시고 부관에게 대기실에서 좀 쉬게 하라고 이르시었다.

어제밤 전투임무를 수행하느라 꼬박 밝혔다니 오죽 피곤하랴싶어 부관에게 대기실에서 특별히 정숙을 보장해주라고 당부하시였었는데 시간이 좀 흐르자 정말 이렇게 잠들어버린것이다.

처녀는 꿈을 꾸는지 방그레 웃고있었다. 눈귀엔 보석같은 눈물방울이 맺혀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처녀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서시여 그의 꿈을 지켜주고싶으시었다. 빛나는 금별메달, 처녀의 얼굴에 피어나는 티없이 밝은 웃음...

이 처녀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있는것일까.

놈들에게 《새해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오늘도 새벽 세시에 리륙해서 새해 첫 작전준비를 하고있던 인천항과 서울 통산역의 50여대의 비행기와 연유탱크, 수십차량의 군사물자들을 하늘로 날려보낸 처녀였다. 새해에 들어와 날이 밝자마자 공격하러던 술한 비행기와 작전장비들이 앉은 자리에서 박산났으니 지금쯤 워싱턴에서는 비명이 터져오를것이다. 그놈들이 이 자그마한 꽃같은 처녀가 무죄당이를 물고 하늘을 휘저으며 제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고있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경악질색하겠는가.

이때 가벼운 문소리가 나더니 부관이 조심히 들어섰다.

《최고사령관동지, 지금 군사위원회위원들과 국가 간부들이 연회준비를 해놓고 장군님께서 오시기만 기다리고...》

수령님께서는 얼른 돌아서시며 손을 입가에 가져가시었다. 뒤이어 총참모부에 갔다오겠다면서 나갔던 최철이도 들어섰다.

《조용, 조용... 우리 녀장군이 방금 잠들었소.》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문쪽으로 돌려세우시었다.

《자, 우린 밖에 나가 기다리며 바람이나 좀 쏘입시다. 전투에 나갔다가 새벽 네시가 넘어 돌아

왔다니 얼마나 피곤하겠소. 연회는 선옥이가 좀
자고 켜 다음에 시작합시다. 다들 좀 기다리라고
하시오.》

최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주춤거렸다.

《장군님, 바깥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일없소. 아무리 춥다한들 백두산날씨에야 비
기겠소. 자 어서...》

수령님께서 최철의 잔등을 가볍게 밀고나가
시다가 문득 생각되시는게 있으시여 급히 책상앞
으로 다가가시었다. 수화기를 드시고 조용히 빠
른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이제부터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내 방과 대
기실에는 일체 전화를 대지 마오. 그렇소. 총참모
부로 돌려주오.》

밖에서는 차디찬 눈보라가 몰아치고있었다. 그
러나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후더우시여 찬 대기를
한껏 들이키시었다.

《얼마나 좋소. 정말 백두산생각이 나는 날씨
요.》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최고사령부 앞마당을 거
니시다가 손에 잡히는 소나무가지를 가볍게 흔들
어보시었다. 잎사귀들사이에 얼어붙었던 눈 몇점
이 떨어져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고
는 최철을 돌아보시었다.

《전쟁이 시작되어 벌써 두번째 맞는 설이로구
만. 놈들은 우리 나라를 단숨에 먹어보려고 했지
만 우리 인민은 이렇게 조국을 지켜내고있소. 우
리 공군의 키도 그사이 몰라보게 자라고...》

눈보라가 더욱 세차게 몰아치며 옷자락을 훑날
렸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최철
에게 앞으로 공군이 전쟁에서 담당해야 할 임무
와 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
러시다가 잠에서 깨어난 선옥이가 외투를 안고
울먹울먹하면서 달려나와서야 웃으시며 그를 연
회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모여앉은 간부들에게 《동무들!
이 동무가 바로 김선옥이인데 우리 나라에 한명
밖에 없는 처녀영웅비행사요. 우리모두 이 동무
를 축하해줍시다.》라고 소개해주시며 제일 먼저
박수를 쳐주시었다.

《보시오. 얼마나 곱고 얹전하고 처녀다운가. 그
러나 하늘에만 올라가면 놈들이 벌벌 떠는 영웅
이란말이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존엄과 행복을
짓밟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으려
는 외유내강한 우리 조선녀성들의 전형이 아니겠
소. 우리 오늘은 이 처녀영웅을 위해, 우리의 용
감한 수백만의 조선녀성들을 위해 축배를 들시
다.》

수령님께서서는 선옥이를 옆자리에 앉히시고 축
배잔도 부어주시며 시종 만족해서 웃으시었다.

《집에 갔다면 어머니가 설날이라고 더 잘 차려
주겠는데...없어도 많이 들라구. 예로부터 설날이
오면 친척친우들이 모두 모여 설을 즐기는데 우
리 조선의 풍습인데 전쟁때문에 이렇게밖에 설수

가 없구만. 아마 선옥이네 비행사들이 먹는것보
다도 못할거야. 그러나 우리 놈들을 이긴 다음엔
크게 잔치를 차리자구.》

선옥은 그저 자꾸 울기만 했다. 수령님께서 수
저를 쥐여주시여도 울었고 색다른 음식을 앞에
 옮겨놓아주시여도 감격해서 울었다. 새벽에 전투
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달려왔을테니 아침식사나
변변히 했으랴싶으시여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더
먹이고싶으시였지만 음식을 입에 가져가다가는
또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것이였다. 정말 눈물도
많은 처녀였다. 그가 음식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걸 보시니 서운하시기까지 했다. 그래서 오찬회
를 마치고 나오시면서도 이 처녀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좋을가하고 생각하시다가 문득 마음에 쏙
이는것이 있으시여 사진사를 부르시었다.

《선옥이, 나하고 사진이나 한장 찍자구.》

선옥은 그만 목이 꺾 메여 울먹울먹하며 말쑹
드렸다.

《장군님! 제가 뭐길래, 저같은게 뭐길래 이렇게
장군님께서 바쁘신 일도 미루시고... 저때문
에...》

수령님께서서는 선옥의 어깨에 손을 얹으신채 약
간 갈린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선옥이, 내 좀 알아보니 선옥이가 아버지랑
어머니랑 진달래꽃밭에서 찍은 한장밖에 없는 사
진이 그만 폭격에 없어졌다고 하더구만.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구 가을엔 들국화가 하얗게 피던
앞동산도 폭격에 불타버리구... 선옥이가 손목잡
고 꽃구경을 데리고 다니던 그애들두 폭격에 잘
못되구...》

선옥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자기의 가슴속
에만 깊이 새겨두고있던 그 피맺힌 사연까지 수
령님께서 다 아시고계시는데 놀란 모양이였다. 수
령님을 우러르는 처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
니 쌍꺼풀진 눈가에 눈물이 펑 고여올랐다.

《그럼, 그럼 장군님께서서는 저의 그 모든 사연
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끝을 맺지 못하는 처녀의 두볼로 또다시 눈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눈물을 보시자 마음이 격해지
시여 선옥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우시었다.

《우린 너무도 많은것을 잃었지. 너무도 많은것
을...》

그러시고는 뒤집을 지시고 몇걸음 거니시었다.
가슴이 서서히 달아오르시었다.

《그러나 선옥이는 그 모든 슬픔을 웃음으로 이
겨가고있거든. 선옥이, 정말 고맙소. 선옥이는 진
짜 영웅이야. 지금은 비록 진달래꽃이 없지만 이
눈꽃을 배경으로 해서라도 사진을 찍자구, 정 소
원이면 이제 진달래꽃이 만발할 때 다시 찍고...》

선옥은 갑자기 《혹》하며 두손으로 얼굴을 가
리우더니 《장군님!》 하고 목메여부르며 수령님
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들먹이는 처녀의 어깨를 쓰다듬

으며 조용히 달래이시였다.

《하늘의 용사가 올면 되나. 어서 눈물을 그치라구. 올면 사진이 잘 안돼. 자 승리자답게 활짝 웃으라구.》

그러시고는 선옥이와 나란히 서시여 사진을 찍으시였다.

×

그때부터 세월은 아득히도 흘렀다. 옛사람들 말을 빈다면 강산이 네번씩이나 변하도록 세월이 흘렀으니 그때 흥안이던 처녀의 얼굴엔 열기설기 주름살이 얹히고 꽃을 꺾어들고 다니던 그 손에는 아침저녁 저자구력과 함께 손자손녀의 손이 매여달리게 된것이다. 세월이란 참으로 무자비한것이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잊으실수가 없으시여 자주 회상하곤하시였다. 그만이 아니라 이 나라 녀성들을,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짓밟히고 천대받던 수백만의 녀성들을 하늘높이 떠올려 온 천하를 발아래로 굽어보며 살게 하고싶으신 그 마음으로 키우신 처녀여서 더욱더 못잊게 되시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지금 전승기념탑을 돌아보시면서 또 그가 추억되시는것이리라.

수령님을 모시고 전승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장군님의 가슴도 더없이 뜨거워지시였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 인민무력부사업에 맡아보시기 시작하신 그때도 수령님께서선 옥이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공군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김선옥이에 대해 물으시였으나 누구도, 지어 최철이까지도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르고있었다. 아득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 버렸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이 더없이 서운하시였었다. 어쩌면 그럴수가 있는가.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엔 그가 있는데 우리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왜 벌써 그가 사라졌단말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지체없이 그를 찾아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잘 돌봐주라고 하시였었다.

김선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온 나라에 준엄한 시각이 닥쳐온 그때 소문도 없이 공군사령부 간부부에 나타났다. 자기에게 다시 군복을 달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폭탄이 되어 비행기와 함께 원썬들의 아성으로 육박해들어가겠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백발이 다 된 그가 군복을 다시 입겠다고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흥분해서 말씀하시였었다.

《보시오. 이게 바로 김선옥이요. 이렇게 조국앞에 엄혹한 시각이 닥쳐오자 그는 당과 조국을 보

위하겠다고 찾아왔단말입니다. 아마 김선옥이는 조국이 위협에 처했다면 백발이 아니라 땅속에 묻혔다가도 주먹을 부르짖고 뛰쳐일어나 달려올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키우신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못잊으시는 전사란말입니다.》

김선옥이는 전쟁때는 녀성비행중대장으로, 전쟁후에는 제대되어 민항에서, 또 그다음에는 어느 자그마한 기관에서 평범한 지도원으로 일해왔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선옥은 전쟁때 그렇게 잘 싸웠던것처럼 평화롭던 날에는 소문도 없이 묵묵히 우리 당을 받들어왔을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이 땅에 전쟁의 구름이 짙어지자 용약 떨쳐나 달려온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그의 충정이 귀중하시였다. 하지만 그가 좀더 일찍 찾아왔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으시였다. 이제는 너무도 늙은 그였다. 이제 이 공백을 무엇으로 보상할수 있단말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시면서 이제라도 그 모든것을 값높이 보상해주리라 생각하시였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인간들, 우리 수령님의 품에 안긴 전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높이 빛나야 하는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래서 김선옥이를 영웅대회며 로병대회의 주석단에도 높이 내세워주시고 텔레비존과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널리 소개하도록 해주시였었다.

그런데 오늘 전승기념탑을 돌아보시며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으시고보니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한것만 같으신것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고 집무실에 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뜨거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선옥영웅에게 다시 군복을 주고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합시다. 김선옥영웅은 응당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녀왕이 아닙니까. 그러니 왕벌을 달아주잔말입니다. 왕벌을 달아주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영웅들의 집에서 일하게 합시다. 영웅들의 집에서 우리 수령님의 품이 어떤 품인가를, 수령님품에 안긴 삶이 얼마나 값높은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게 합시다.》

이렇게 되어 김선옥은 룩십이 훨씬 지난 백발의 할머니이지만 공군장령복을 입고 영웅들의 집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였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하곤했다.

《우리 수령님의 품은 정말 우리의 삶이 한껏 내려쳐올라 마음껏 꽃을 피울수 있는 우리의 하늘입니다. 나는...》

아! 4월이여, 목메이는 그리움이여...

장원준

그리울 때에 더러는 운다지만
나는 울지 않습니다
이 몸엔 만발하는 백화중에도
아름다운 꽃을 골라 정히 다발을 엮으며
하얀 송이 파란 잎이
마음속에 젖습니다...

세월에 변함없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어서
아이들의 노래는 저리도 맑은것입니까...
자연속의 따뜻함보다
가슴속의 목메임이
더욱 뜨거운
4월!

내 조용히 금수산기념궁전을 우러르며
그리움은... 샘솟습니다
민족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탄생하신 이날
못견디게 그리움은 사무쳐
그이를 뵈옵던
감격을
뜨거운 추억이 적셔줍니다

아 수령님 탄생하신 4월 15일이여!
이날이 있어
인민의 행복이 있고
나의 웃음도
우리를 향해 뿌려지는
21세기의 그 노을이 뜨거이 채광되는
조국의 밝은 창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때문에
피로 바다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으며 자랐어도
내 이날 오면
만주광야의 그 눈보라가 가슴에 울고
총탄을 발산하는 총구의 그 번뜩임이 펼쳐지며
광풍도 못지운

수령님의 발자국이 마음속에 뜨거웁나니...

전쟁을 이기고 눈을 좀 붙이겠다 하시며
복구건설 마치면 하루쯤 쉬시겠다 하시며
끝내 일손을 못놓으신
아버이...

아, 우리 수령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길위에
단 한번 신들미를 풀어보지 못하신
한평생!

정녕 수령님 그 발자취 어린 내 고향 들에도
이른 봄 날아온 뻐꾹새는
못떠나고 그냥 읊니다
나라도 인민도 이 이름없는 젊은이도
그리움속에 맞이하는
4월이어서...

아!
4월 15일은 수령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나에겐 오직 이날만이 있어
예나 다름없이 꽃을 엮습니다
수령님 그 유혼 이 땅위에 활짝 꽃피울
그 불타는 맹세속에
진짜 그리움의 눈물은
마음속에 흐릅니다

장군님이 계시는
4월...

저 굴진을 앞세운 광산과 탄광의 갱구너머
펼쳐지는 맑은 하늘아래
랭상모의 파아란 머리채 흔드는
4월의 뜨거운 그리움속에
목메임속에
밤가는줄 모르고 나는 영생의 다발을 엮습니다
이슬도 채마르지 않은
싱싱한 꽃으로...

방직공의 노래

류정옥

수려한 정원수들이 미풍에 설레었다. 정원둘레에 무리지어 피어난 자귀나무꽃들은 마치 정원에 내려앉은 아름다운 노을빛 구름처럼 보였다.

뒤영키며 타래쳐오른 풍성한 동나무넝쿨이 푸른 지붕을 이룬 정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귀국공민들과 담화를 하시었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조국해방 스무뽕을 맞으며 천리마대고조로 들끓는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본 기술자, 전문가 일행이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숙소조건이 불편하지 않는가, 음식들은 구미에 맞는가 알아보시며 한 사람한 사람의 대답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었다.

조국에 와서 받은 첫 인상들에 대하여 들으시면서 그이께서는 생각깊으신 미소를 지으시었다.

《기술자, 전문가들의 눈으로 볼 때 경제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적지 않았을것입니다.》

《아닙니다, 수령님.》

중년기의 방직전문가 고원빈은 자기의 느낌을 어서 말씀드리고싶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께서는 편안히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손짓을 하시었다.

고원빈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며 말씀을 올리었다.

《저는 이번에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돌아보고 방직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직에 대한 새로운 견해라?》

《그렇습니다. 방직은 예술이라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에서 참으로 뜻깊은 사상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고원빈은 방직에 들어서서는 다방면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으며 발전되었다는 방직공장들에도 여러곳을 다녀본 실력있는 전문가였다.

《수령님, 저는 20년이상을 방직에 종사해왔지만 <방직은 예술>이라고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방직공장이라면 다만 직물을 생산하는 일터였을뿐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하긴 방직로동을 어떤 환경에서나 다 예술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뜻을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꼈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구내라 하면 생산건물만 빼곡이 들어찬 그런것으

로 생각해왔는데 여기는 공장이 아니라 공원이나 유원지같았기때문입니다.》

《유원지나 공원 같았다?》

공장을 보면 생산면적부터 계산해보는데 습관되었을 고원빈의 놀라움을 수령님께서는 리해하실수 있으시었다.

10여리 둘레를 가진 넓은 구내에는 해묵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고 크고작은 공원들이 공지마다 펼쳐졌으며 구내에는 수만조각의 보석이 뿌려진듯 해빛이 부서지는 인공호수들도 있다. 호수에는 처녀총각들이 즐겨 만나는 아치형의 작은 《오작교》도 애교있게 걸려있고 가로세로 뻗은 넓은 구내길은 지금 한창 가로수에 뒤덮여 푸른 동굴을 연상시킬것이다.

그곳이 옛날에는 나무 한그루 없던 쓸데밭이었음을 고원빈은 알수 없을것이다. 해방전에 화학공장자리였던데다가 3년간의 전쟁이 벽돌조각들과 콘크리트덩어리들만 한발 두텁게 깔아놓아 나무는 고사하고 풀 한포기 자랄수 없었던곳이었다.

《제가 더욱 놀란것은 매 직장들의 중앙복도에 높이 모신 방직은 예술이라는 수령님의 교시를 접하고서였습니다. 동시에 정방차를 타고 일하는 정방공처녀들의 밝은 모습들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보고싶은 사람들의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을 때처럼 마음이 밝아지시었다.

《정방차에 앉아 일하는 기대공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의 마음까지 밝아지는것 같았습니다. 또한 현장의 공기는 가을날처럼 맑았고 서늘했습니다. 정말로 공장 외부나 내부, 로동조건 그 모든것이 나무랄데 없었습니다.》

《그렇다?》

수령님께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조로 반문하시었다. 아직도 어딘가 미흡한점들이 남아있다고만 생각되시는 공장이었다. 그것이 우리 로동계급이 일하는 리상적인 조건이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다.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심정이시었다.

고원빈은 자기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듯 더 열을 올렸다.

《저는 공장을 돌아본 다음 견본실에서 조국의 유명한 특산인 갖가지 비단들과 고급양복지들, 선명하고 부드러운 색의 문양직도 보았습니다. 방직이 예술이라면 그것은 두말할것 없이 예술품들이라고 할만했습니다.》

《...》

《그러나 수령님, 저는 정방직장 직장장 로력영
웅 리복실동무를 만나보고는 제나름의 해석이 얼
마나 피상적이고 일면적인것에 불과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안색이 환히 밝아지시였다.

《리복실동무를 만났단말입니까?》

그이께서는 친딸의 안부를 들으셨을 때처럼 반
가우시였다. 근래에 와서는 만나보시지 못하셨다.
몇년동안이나 딸네집을 찾아보시지 못한듯한 심
정이지였다. 나가보고싶은 공장이고 보고싶으신
방직공들이였다. 하나 겹쌓이는 집무때문에 시간
을 못내시였다.

《그래 복실동무를 만나보니 어떠했습니까? 고
원빈동무 보기엔… 건강상태랑 말입니다.》

복실에 대해서는 무엇이건 알고싶으시고 이야
기를 듣고싶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건강은 무척 좋아보였습니다. 중년이라고 하
기에는 믿어지지 않을정도로 활기에 넘쳐있었고
수백명 노동자들을 이끄는 생산지휘원군으로서
정력이 왕성했습니다.》

《그렇단말이지요.》

수령님께서서는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복실동무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는 해방전 서울동양방직회사에 팔려가 고역
을 당하던 일과 해방후에 평양방직공장에서 새
조국 건설의 기쁨을 안고 일하던 이야기부터 시
작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벼이 머리를 끄덕이시
였다.

《그 동무는 방직공으로서 나와 인연을 맺게 된
첫 사람들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어느덧 수령님의 추억은 세월을 거슬러오르고
있었다.

리복실, 크지않은 키에 단단해보이는 처녀, 지
칠줄 모르는 열정, 허나 리복실을 생각하실 때면
명쾌하고 활달한 처녀의 모습에 앞서 농촌의 한
늙은 어머니가 먼저 떠오를 때가 많으시였다.

그날은 진논까비가 푸득푸득 날리는 초봄이었
다. 황해도쪽에서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농촌의 영농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가없는 벌판길을 허위적허
위적 걷고있는 한 로파를 차에 태우시였다.

평양 방직공장에 있는 막내딸을 만나러 역으로
간다는 늙은 어머니였다.

수령님께서 황송스레 몸돌바를 몰라하는 그에
게 편안히 앉으라고 이르시며 물으시였다.

《하필 왜 이 곳은 날에 년로하신 몸으로 혼자
길을 떠나셨습니까?》

《장군님, 제 땅에서 또 한해농사를 그득히 지
어놓고보니 그애 생각에 더 미룰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해방전에야 땅 한패기 없는 소작살이신세
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구 죽지 못해 방직공장으

로 팔리워갔지만 지금이야 그 일이 아닌들…》

로인은 뭔가 분수에 닿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
끼는지 말을 중증무이었다.

밖에선 갇진갇진한 눈송이가 차창에 날아와 불
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였다. 머지 않아 보습을
박게 된 벌판은 숨이불을 쓰고 마지막 단잠을 즐
기는듯싶다. 풍요한 대지, 기름진 땅이다. 허나
지난날 이 말없는 땅은 우리 농민들에게 불행과
슬픔만을 주었지 한조각의 기쁨이나 행복도 주지
못했던 야속하고 박정한 땅이었다.

《뭔가 가슴에 맺힌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빗진 종이라구 그 올라미가 열네살짜리
막내 복실이에게 씌워졌습지요.》

로인의 입에선 저절로 사연이 흘러나왔다.

시름시름 앓던 령감이 빗더미우에 몸져누워버
리자 겨우 지탱해가던 살림살이는 명줄이 끊기듯
이 풀썩했다. 그때 바로 서울동양방직회사에서
직공모집을 왔었다.

한번 가면 성한 몸으로 돌아올수나 있겠는지
아니면 영영 무주고혼이 되고말겠는지 기약할수
없는 길이란걸 왜 모르랴만 복실은 그 길로 들어
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집식구들 몰래 거간군을 찾아가 선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편지쪽지와 함께 보리쌀이
밀창에 깔린 항아리에다 집어넣었다.

저녁밥을 지으려고 보리쌀을 퍼내던 어머니는
난데없는 돈과 쪽지편지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마세요. 심청인 눈먼
아버지를 위해 림당수에 몸을 던졌다는데 제가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만약 죽은들 뭐라나요…》

어머니가 자동차를 세워둔 동구길로 허둥지둥
달려갔을 때는 복실이 벌써 부릉부릉 발동을 걸
고있는 적재함우에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끌려온
술한 처녀들과 함께 앉아있었다.

어머니는 허우적거리며 적재함에 매달렸다.

《이년아, 당장 내려오너라. 이 에미 가슴터지는
꼴을 보자고 그러냐?》

허나 자동차는 어머니에게 먼지와 연기만 들썩
워놓고 사라져버렸다.

어머니는 딸을 상여에 실어 공동묘지로 보내는
것만 같아 대성통곡을 하였다…

《4년후에 그앤 뼈만 남아가지고 제발로 걷지도
못하고 제오래비 달구지에 실려왔시다.》

로인은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어내며 계속했다.

하루에 열두시간씩 땀을 흘리고난 뒤에 차레지
는것은 납작보리밥에 짬무우쪽이나 소금국, 매달
선금을 제하고난 5전이나 10전이 들어있는 월급
봉투, 허기진 몸에 기대앞에서 깜박 졸면 팔다리
에 구렁이처럼 감기는 채찍뿐이었다. 그래도 그
것은 약과였다. 한 이불패기에 발을 모으고 자던
처녀들이 직기의 피대에 말려들어 팔이 잘리우
거나 시체가 되버릴 때는 슬픔에 앞서 공포에

가슴을 떨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저리시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지난날 방직공들의 처지였으나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시었다.

일제가 남긴 피맺힌 원한은 조선땅 어디에나 구석구석 숨배여있다. 장장 반세기 놈들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남긴 상처는 열백번 고쳐산대도 가셔지지 않을것이다.

《집이라고 돌아왔지만 무슨 수로 그 병자를 살려내겠지까. 영낙없이 도루 제 오래비 달구지에 실려 어느 산골바닥에 묻히든가 할 팔자였지요. 현대 해방이라는 꿈같은 날을 맞이하지 않았겠지까.》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한해 농사를 지어서 절반이상을 그애한테 바쳤습네다. 이제는 병도 깨끗이 털고 룡이 됐습지요.》

《다행입니다.》

《다 장군님 덕분이지요. 그렇게 장군님께서 저를 저승길에서 건져주셨는데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 애국미라도 많이 바치는것이 그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렸건만 아뽕싸 제가 그만 며칠간 집을 떠난 사이에 훌쩍 방직공장으로 날아가지 않았겠지까.》

《어머니, 지금의 방직공장은 어린 처녀들을 시들고 병들게 하던 해방전의 공장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장군님, 그애한테서도 지금이 무슨 해방전인줄 아는가고 마음놓으라는 기별이 오군합네다만... 듣자니 지금도 방직공장에 부모없는 처녀들이나 그냥 붙어있다고들 합네다.》

로인은 여전히 마음 안놓이는 모양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더 안심시킬수 없으셨다.

지금 8시간로동제가 실시되고 로동보호조건들이 갖추어지긴 했지만 방직로동이 신성한 로동으로 되자면 아직 많은 나날들이 지나야 했다. 그리고 방직공들중에는 지난날 남의 집 아이보개나 부엌데기로 천대받던 처녀들이 많은것도 사실이였다.

차는 어느덧 력포벌을 지나 장진리에 들어섰다.

《그래 딸이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한답니까?》

《뵈라던지요? 실을 뽑는다고 합네다.》

《정방공이구만요.》

수령님께서서는 이 로인의 걸음이 딸을 무작정 데려가려는 걸음이란걸 더 묻지 않아도 쉽게 짐작하실수 있었다. 어쩐지 허전하시였다. 복실이라는 기능공처녀 한명에 한한 문제가 아니였다.

방직공장합숙 길목에서 로인을 내려놓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달리기 시작한 차의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였다.

한가정의 《심청》이로 되어 죽음의 나락으로

망울진 인생을 내던졌던 가룩한 소녀... 죽음을 안고 달구지에 실려온 피골이 상접한 애 어린 처녀의 모습이 상상속에 떠오르었다.

목전의 생존을 유지하자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마광기》에 생명을 갈리우며 죽음을 앞당겨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처지, 그것이 복실이 하나만이 아닌 해방전 수많은 녀성들의 운명이였다.

최대한의 리윤만을 추구한 악한들의 손에 쥐인 기계는 숨과 실을 먹은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의 생명을 삼아먹고 희망을, 행복을, 미래를 집어삼키는 악마같은 존재였다.

승용차는 대동교에 접어들었다. 산업지구에 우뚝 솟은 방직공장 보이라골뚝이 거뭇하게 보였다.

부단히 상승할 앞날의 방직공업은 물론이거니와 당금 2배이상으로 늘여야 할 2개년인민경제계획지표인 비단, 인조견직, 면직물 등은 다 복실이와 같은 처녀들에 의해 생산되여야 했다.

현대 일제때의 그 비극적인 여파로 하여 오늘도 적잖은 사람들속에는 복실이 어머니와 같이 방직공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박혀있다.

앞으로 우리의 방직공업은 옷 한벌을 가지고 삼부자가 입던 우리 인민들, 이중삼중의 억압과 속박속에 시들던 우리 녀인들을 환하게 치장시킬 양단, 모본단, 공단, 옥양목, 여러가지 색깔의 날염천도 생산하여야 한다.

승용차는 시장거리에 들어섰다. 포목가게방들에 줄줄이 걸려있는 비단천들에 수령님께서서는 전에없이 눈길이 끌리시였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천들인가, 색깔고운 꽃잎이 피어나기도 하고 새들이 날기도 한다. 단순한 천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화폭이다.

하지만 그 예술품을 짜내는 방직은 장구한 나날에 걸쳐 우리 나 어린 처녀들이 굶어진 고역과 죽음의 대명사로 불리어왔다.

허나 이제는... 수령님께서서는 눈을 감으시였다.

수많은 복실이들을 삼켜버리던 《지옥》은 더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서 터져나오던 한숨소리, 신음소리는 창조의 활무대에서 울리는 기쁨의 노래로 되여야 한다.

모든것이 달라져야 한다. 방직시설도, 방직공장신들도 일변되여야 한다.

달리는 승용차와 함께 수령님의 사색은 끝이 없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동강 기슭의 방직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정문이 가까와지자 먼저 떠오르는것이 복실에 대한 생각이시였다. 한번 보신적도 없는 처녀였지만 좀처럼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으셨다.

죽음에서 소생한 그가 어머니의 완고한 반대에 도 불구하고 다시 방직공장으로 달려온걸 보면 남다른 생각을 가진듯했고 담차고 총명할듯싶으

쳤다.

이런 그가 강경한 어머니의 손에 끌려 정말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인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돌아가지 않았으리라는 믿음이 가기도 하였다.

뭔가 남다른 뜻을 가진 처녀라면 쉽게 따라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현장에 들어서신 수령님께서서는 여느때와 달리 생산공정들과 시설들을 새로운 시점에서 돌아보시었다. 고역의 대명사로 되었던 방직공장이 신성한 락원의 무대로 개선되고 방직공들이 창조자로서의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그 어떤 선포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해방후 처음으로 건설한지 몇달밖에 안되는 공장은 아직 불비한 점들이 많았다. 설비도 재래식이었고 배풍과 온습도 시설도 좋지 못했다. 구내에는 나무 한그루 자라지 않는다. 소금버케가 앓은 땅은 많은 품을 들여야 나무를 자라우게 될 것이다.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복실의 어머니말과 같이 방직공들의 거의 전부가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머슴살이로 막돌처럼 버림받던 처녀들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과 주위세계를 인식한 여성들로 되자면 많은 힘을 들여야 할 것이다.

정방직장에 들어서신 수령님께서서는 중앙복도 현관에 크게 나붙은 숙보관앞에서 시선을 멈추시었다.

월계획을 120%나 넘쳐한 모범로동자 리복실을 축하하는 내용이었다.

리복실?!... 분명 리복실이었다. 자신의 예감이 빗나가지 않은 것이 기쁘시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복실이 아닐까하는 조바심도 드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반신반의하시며 지배인에게 물으시었다.

《저 리복실동무가 황해도쪽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가 황해도에서 왔다갔습니다.》

《옳구만!》

수령님께서서는 무척 기쁘시고 반가우시었다.

지배인은 복실이기대쪽으로 수령님을 안내해드렸다.

처녀는 엎어질듯이 달려와 아버지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었다.

첫 인상이 무척 활달해보였다. 하얀 멜피얇치마를 반듯하게 다려입은 날아갈듯한 차림새며 도두룩한 이마에 까만눈이 반짝이는 그 생김새가 어디라없이 명랑해보였다.

《어떻게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소?》

처녀는 생글생글 웃음부터 머금었다.

《전 어머니에게 우리 방직공장은 심청이가 몸을 던진 림당수 같은데도 아니고 서울동양방직회사같은 <감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죽음에서 구원된것은 천만번 장군님 덕분인데 장군님께서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기술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어 새 조선건설에 펼쳐나서라고 하셨는데 방직기능공인 제가 그냥 촌에 박혀있어야 옳은가고 들이댔습니다.》

처녀는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다.

《그다음 공장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현장이 생각과는 달리 답답하거나 숨막히지도 않고 처녀들이 기대앞에서 웃고 떠들며 일하는걸 보고는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펜 참아. 복실동무가 새 조선의 로동계급답거든요!》

수령님께서서는 크게 웃으시었다.

《복실동무, 앞으로 꼭 훌륭한 방직공이 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구. 동네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하고.》

《알겠습니다. 장군님!》

처녀는 명랑하게 대답올렸다. 그에겐 벌써 자기의 주견과 일정한 창조의 세계가 있었다. 자기의 로동은 그 무슨 희생도 아니며 더구나 밥벌이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역시 믿음이 가는 처녀였다.

《복실동무, 일을 잘하시오. 앞으로 방직공장은 동무들이 정말 흥겹게 일할수 있는 신선한 일터로 될것ियो. 동무들의 일은 노래처럼, 춤처럼 즐거운것으로 될것ियो. 어떻소? 복실동무는 그렇게 되리라 믿소?》

《믿습니다. 장군님, 저는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편지하겠습니다.》

처녀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대답올렸다.

복실이 아직은 그 뜻을 다 이해할수는 없다는걸 아셨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어쨌든 그가 대견하시었다.

처녀는 능숙한 솜씨로 실을 이으며 기대를 순회하였다. 손은 나비 놀듯했고 걸음걸이는 무용수처럼 가벼웠다. 날렵한 동작, 웃음어린 밝은 얼굴.

수령님께서서는 이윽도록 지켜보시었다. 저것이 야말로 춤이고 노래이다. 처녀의 가슴속엔 지금 자기나름대로의 창조의 노래가 울리고있다. 아직은 모든것이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저 마음과 활동적인 로동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천의 화폭은 어김없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수령님께서서는 며칠전 포목가게방들에서 보신 눈부신 비단들과 각색 천들이 다시 눈앞에 떠오르었다. 고운 꽃들을 새기며 오리오리 재간스레 엮어진 비단들, 은근하고 고상한 색깔의 천들... 그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취미와 정서적요구에 리용된다.

방직은 모든 면에서 예술의 미적세계가 내재되어 있다. 활동적인 로동에서, 생산품의 형태에서, 리용가치에서.

수령님의 사색속에서는 새로운 예술의 세계가 정립되시었다.

《방직은 예술로 되어야 한다. 예술로!... 방직은 예술이다.》...

정원을 지나가는 서늘한 바람이 푸른 지붕의 싱싱한 등나무잎을 가벼이 흔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원빈을 향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때 방직에 대한 나의 견해는 아직 리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방직이 예술로 되기에는 생산환경도 방직공의 의식정도도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전쟁은 우리의 방직공업을 갱도속으로 몰아넣고말았습니다.

전후복구건설을 거쳐 사회주의공업화시기에 와서야 우리는 방직공장들을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로 자기 궤도에 올려세울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업의 현대화가 곧 방직을 예술로 되게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실동무에게서 들었다니 알겠지만 그무렵에 나는 그 공장일군들을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요구성도 높였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직장장동무는 지난날에 있었던 자기의 실책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을겁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나날에 로력혁신자로 열정과 땀을 깡그리 바쳐가던 처녀의 모습을 그려보시었다.

빨강계 익은 땀뻘 얼굴, 숨먼지가 붙어있는 까만 작업편리화 그리고 정방기순회에서 분당 120 내지 130보를 걷는다고 칭찬한 속보가 생생하게 기억되시었다.

그날은 예고없이 지나가시던 길에 땀을 내시여 공장에 들리시었다. 료해하신데 의하면 로력부족으로 일군들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먼저 지배인실에서 일군들을 만나시었다. 실태는 료해하신대로 로력사정이 무척 긴장하였다. 나이찬 기능공처녀들이 런던 달아 시집을 가는데 기능공양성은 몇해씩 걸리기 때문에 크게 공간이 생기고 공장을 뜨는 수자만큼 새 로력을 보충받지도 못하고있었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디서나 부족을 느끼는 것이 로력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로력실패를 짚어가며 말씀올리던 지배인은 사업노트를 뒤지더니 뭔가 찾아낸 듯 손을 멈추었다. 하지만 다시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지배인동무, 다 들어봅시다. 어서 말하십시오.》

그제야 지배인은 모든걸 의탁하듯 말씀드렸다.

《수령님, 저의 이 사업노트에는 당장 시집으로

떠나보내야 할 고급기능공들 이름이 매일과 같이 늘어나고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공장적으로 백여명에 달합니다. 결혼후 한두달만 붙들어두어도 벌써 그들 시집에서는 지배인이 목석이라는조의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일군들은 너무 시시콜콜이 우는 소리를 한다는 표정으로 지배인을 피딱피딱 쳐다보았다. 그럴수록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호방하게 웃으시며 받아주시었다.

《허, 그러니까 지배인동문 그 얼굴도 모르는 술한 <사둔>들과 <사위>들한테서 귀먹은 욕을 당하겠소.》

수령님의 이 유모아적인 아량은 봄날의 훈향처럼 장내를 후덥혔다. 모두 웃음어린 밝은 얼굴들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었다.

《그래서야 안되지. 안되구말구.》

잠시 사색속에 계시던 그이께서는 뇌리에 번쩍하는 것이 있으시었다.

《동무들, 우리 그 모든 <사위>들을 끌어옵시다.》

《?!...》

모두의 시선엔 의혹이 실렸다.

《방직공장의 로력예비는 다기대운동을 더 힘있게 벌리며 기능장성속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것은 기능공들을 고착시키는 것이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기능공처녀들이 결혼을 하고 신랑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신랑들이 방직공장으로 따라오게 합시다.》

《예?!》

지배인 이하 직장장들, 로동지도원들의 눈이 커졌다.

《우리 나라 풍습엔 데릴사위라는것도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산골이든, 지방의 총각이든 방직공장의 기능공처녀와 약혼을 하면 다 공장으로 장가를 오게 하잔말입니다.》

협의회장은 흥성거리었다. 모두의 얼굴엔 기쁨과 흥겨움이 어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시었다.

《그저 좋다고만 하면 안되겠소. <데릴사위>를 맞자면 준비를 잘해야 돼오. 그렇지 않소? 공장 가까이에 아파트도 현대적으로 세우고 상점망과 탁아소, 유치원도 늘이도록 합시다.》

장내는 마치 대사를 앞둔 집안처럼 흥성거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하셨다.

현대 현장에서 기분이 흐려지시었다.

현장은 잘 정돈되어있지 못했고 실내공기도 맑지 못하였다. 배풍능력이 높지 못했으며 비면청소기(정방기를 따라 자동적으로 돌며 먼지를 빨

아들이는 기계장치)도 벗어있는것이 많았다.

(어째서 이 지경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이 공장을 위해 시간도 많이 내셨고 오늘처럼 지나가시는 길에 들리시기도 한두번이 아니시였다.

때로는 한달에도 두세번씩 찾으시였다.

그때마다 소금버케가 얇은 구내에 구멍이를 넓게 파고 부식토흙단지를 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 공원과 같이 꾸리며 현장내부는 궁전과 같이 꾸릴데 대하여 수차 말씀하시였다.

《궁전》이라면 무엇보다도 공기가 맑고 신선해야 한다. 때문에 수령님께서서는 직장마다 배풍장치와 온습도를 잘 보장할데 대한 대책도 세워주셨다. 한편 공장에 야간전문학교와 공장대학을 내오도록 하시고 방직공들을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교육할데 대하여서도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하여 공장에서는 초등교육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적지 않은 처녀들이 일하면서 공장전문학교와 공장대학에서 공부하고있었다.

그중에는 복실이기도 있었다. 해방전에 소학교도 채 나오지 못했던 그가 해방후 일하면서 순전히 자습으로 대학응시자격을 얻고 공장대학에 입학한것이 수령님께서서는 무엇보다 기쁘시였다.

현지에 나오실 때마다 알아보신데 의하면 학생들의 실력도 점차 높아지고있으며 그들이 짜는 천의 질도 높아지고 가시수도 다양하게 늘어나고있었다. 또한 공장 내외부도 노동자들의 건강에 유해롭지 않게 생산문화가 확립되여가고있었다.

헌데 어찌하여 이렇게 뒤걸음친것인가...

지배인은 송구스레 말씀드리였다.

풍도관이 낡아서 바람새는 요소들이 많으며 비면청소기는 주름호수가 부족해서 껴진것을 바꾸지 못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래, 지배인동무는 어떻게 하려고 하오?》

지배인은 주저주저 말씀을올렸다.

《자재상사에 제기는 했는데 아직은...》

《기다릴수밖에 없다는 말이겠소?》

수령님의 안색은 근엄해지시였다.

《만일 원료가 떨어져 생산이 멎게 됐다면 지배인이나 기사장이 기계를 세워놓고 우에서 해결해줄 때까지 멍청히 기다리지는 않았을거요. 말테우고 버선 깎는다더니, 왜 미리부터 예견성있게 보수계획을 세우고 자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이건 동무들이 생산보다 사람을 홀시한다는걸 말해주고있는것입니다.》

《...》

일군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현장을 둘러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복도옆에 세워놓은 이동속보판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공장적으로 제일가는 다추공혁신자 리복실이

분당 130보이상 걷는다는 칭찬이였다. 의례히 내세울수 있는 자랑거리고 응당한 평가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현장조건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더 많이 뛰라고 독촉을 하는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바로 이때였다. 수령님의 심중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뛰는듯 나는듯 일손을 다긋던 복실이가 기쁨을 앞세우고 달려오고있었다. 그 얼굴은 땀발에 익었고 서둘러 털어버렸을 까만 편리화엔 숨먼지자욱이 동안뜬 거리에서도 뿌옇게 알리였다.

다른 때였다면 기쁨을 마중하시는 심정이 되시여 마주 다가가시면서 수고한다시며 처녀의 등을 다독여주시였을 수령님이시였으나 오늘은 그럴수가 없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근엄한 눈길로 일군들을 다시 돌아보시였다.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의분과 분노를 누르기 어려우시였다.

《동무들은 뭘하는 사람들입니까. 노동자들을 잘돌보라고 그런 중책을 지웠지 우나 쳐다보라고 한자리씩 준건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아낄줄 모르는 사람은 일군의 자격은 커녕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마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배인이며 기사장은 얼어붙은듯이 굳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복실이 가까이 다가오고있음으로 말씀을 끊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촉했는지 달려오던 걸음과는 달리 주춤거리고있는 복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면서 안색을 바꾸시였다.

《그새 앓지는 앓았소?》

《수령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가벼이 머리를 끄덕여 답례하시면서도 복실의 혈색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안색에는 아껴주시고 감싸주시고싶은 어버이사랑과 일군들에 대한 질책의 심정이 그대로 비끼시였다. 복실은 수령님의 심려가 자기때문이란걸 느낀듯 제쪽에서 명량한 표정을 지었다.

《수령님, 넘려마십시오. 일없습니다. 전쟁땐 갱도에서 일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습디다.》

그렇스록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마음이 저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쪽을 돌아보시였다.

《보시오. 이 동무는 오히려 내 마음을 풀어주자고 합니다. 우리 로동계급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녀들, 이런 노동자들을 더욱 귀중하게 떠받들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머리를 숙이며 굳어졌다.

《나는 복실동무를 처음 만났을 때 벌써 이 동무에게 약속한것이 있소. 우리 방직공들의 로동이 말그대로 노래와 춤이 되도록 하겠다고말ियो.

그런데 노래란 흥겹고 기쁠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것이지 땀을 흘리며 먼지속에서 뛰는것이 결코 즐거울수야 없지 앓소.》

수행원들, 일꾼들 모두는 숨어들었다. 다단하고 어려운 정사를 보시는 수령님께서 한 정방공처녀에게 10여년전에 하신 말씀을 아직도 잊지 않으시고계시다니.

복실은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울리었다.

《수령님, 저의 마음속엔 이미 노래와 춤이 차 넘치고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야말로 궁전에서 사는 공주가 된셈입니다.》

《아니, 아니요.》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저으시었다.

《여기서 만족을 찾아서는 안되지.》

허나 이 처녀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는가. 오직 기특할뿐이다. 자그마한 처녀가 수령의 심중을 먼저 생각하며 위안하려고 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시며 다정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다루며 대학공부를 할려니 힘이 들지?》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활발하던 복실이 인차 대답을 울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의아하신 안색으로 복실을 여겨보시며 다시 물으시었다.

《왜?》

《저- 그만두었습니다.》

《뭐요?!》

수령님께서서는 놀라시었다.

《그럼 중퇴하고말았단말이요?》

복실은 머리를 꼭 수그렸다.

《예.》

《...》

수령님께서서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듯한 실망과 허전함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수령님, 사실은...》

복실은 더듬더듬 말씀드렸다.

복실은 몇달전에 대학공부를 그만두고 정방기를 더 말았다. 기초지식이 약한 그는 아무리 애써도 교과서와 칠판앞에서는 얼음판우의 소처럼 네굽이 얼어붙는듯한 자신을 어쩔수 없었다. 반대로 정방기앞에서는 아무리 가락수가 많아져도 변함없이 자신만만했다.

날이 갈수록 교실에서는 의기소침해졌고 기대앞에는 힘이 솟구쳤다. 힘을 들인것만큼 보람도 컸다. 신문과 방송이 떠들었고 혁신자로 첫 손가락에 꼽혔다.

대학과정안은 그에게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캄캄해지는 미궁속과도 같았다. 언젠가도 헤여날수 없을듯싶은 미궁속을 헤매기보다는 그 정력을 많은 기대를 다루는데 쏟는다면 나라에 더 큰 보탬이 될것 같았다. 로력사정때문에 공장이 애를 먹는때에 몇가락이라도 더 말아나서는것이 좋을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2학년으로의 진급을 그만두고 정방가락을 더 말아나섰던것이다.

그는 자기가 옳게 행동했다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헌데 막상 아버지수령님앞에 나서니 그 어떤 잘못이 뜻밖에 드러났을 때처럼 마음이 죄여졌다.

고개를 떨구고 선 복실은 모아붙인 두발끝을 오무작거리며 풀죽은 소리로 말씀올렸다.

《수령님, 저는 한가락이라도 더 말아서 한바름의 실이라도 더 뽑는것이 나라에 더 리로우리라 고만 생각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복실을 이윽히 지켜보시었다.

《한가락이라도 더 말아 실을 뽑는것이 나라를 위한것이라... 아니, 그보다 더 큰것이 있지. 복실이는 단순한 혁신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주인이야, 주인!...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이 된다는건 자신을 포함한 주위의 모든것 지배한다는것이야. 자연도 사회도 과학과 예술의 세계도 다 환하게 꿰뚫어볼줄 알아야 하거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빗나간 자식을 끌어다 옆에 앉혀놓으신 심정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기초지식이 약한 복실이가 대학공부를 하자니 힘이야 들테지. 내 다 알만해. 허지만 모르면 우물안의 개구리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직기술이 어느 높이로 발전하는지도 모르고 다람쥐채바퀴 돌리는 격으로 기대를 땀돌겠나?》

복실은 수령님의 절절하신 말씀에 가슴이 저린듯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 눈곱엔 눈물이 찰랑찰랑 고여올랐다.

《수령님, 제 생각이 너무 단순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달래시듯 복실의 어깨에 한손을 얹으시었다.

《많은 기대를 보는것보다 몇배로 힘든 대학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복실인 해방전에 <심청>이가 되기를 각오하고 방직공으로 팔리웠던 소녀였고 거기서 반주검이 되여 달구지에 실려나온 마소보다도 못한 고역살이치지였지. 우리 나라엔 그런 복실이가 한둘이 아니야. 나는 누구보다도 그 모든 복실이들을 로력혁신자일뿐만아니라 방직기술까지 겸비한 인재로 키워 방직로동을 더 흥겹게하고 보다 아름다운 천을 짜게 되는 화려한 방직무대에 보배로운 주인공들로 세워주고싶단말이요.》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던 복실은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책과 걱정에도 오열을 터뜨리고 있는 처녀를 그냥 두고 떠나실수가 없으셨다.

무엇으로 어떻게 힘을 주고 달래야 할것인가.

그이께서는 무심중 주머니를 더듬으시었다. 손에 잡히시는대로 만년필을 꺼내드시었다. 차라리

다른것보다 공부를 하는 그에게 더 좋을듯싶었다.

《복실동무, 갑자기 아무것도 줄것이 없구만. 더는 흔들리지 말고 공부를 잘하오.》

수령님께서는 손수 복실의 손에다 만년필을 꼭 쥐여주시었다.

복실은 문득 사고가 정지된듯이 굳어진 눈길로 수령님을 우러르다가 잠시후에야 자기의 두손에 받들린 새까만 만년필을 가슴에 끌어다 꼭 붙였다. 그는 다시 혁 하고 터져오르는 흐느낌을 삼키며 두손을 가슴에 모은채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수령님의 그 깊은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복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때문에 인차 자리를 뜨시지 못하신다는걸 느끼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자기의 천성대로 숨김없이 말씀올리었다.

《수령님, 최우등을 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헌데 수물과목들에 어떤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등은 꼭 하고야말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우등을 해도 괜찮지... 다음번에 최우등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

《예?!》

복실은 눈이 둥그래졌다.

《그럼 또 한번 다닌단말입니까?》

《두번, 세번이라도 다녀야지.》

수령님께서는 일부러 《엄포》를 놓으시며 계속 하셨다.

《<궁전의 공주>야 응당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에 능통해야 하거든.》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복실을 굽어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색엔 크나큰 애정이 어리어있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풍도판을 교체할 아연도철판이며 주름호스를 시급히 보장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정오가 되어서야 공장을 떠나시었다.

허나 마음은 그냥 공장에 남아있으시었다. 밝게 웃는 복실을 보시고 떠나셨지만 눈앞에는 다른 복실이가, 힘겨워 비척거리는 처녀가 밟히시었다.

바삐 돌아가는 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그냥 돌아선 어머니의 심정같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마음이 개운치 않았었다.

몇마디의 말을 했다고 해서 그의 실력이 하루이틀사이에 움쭉 올라설수도 없는것이고 또한 땀을 흘리며 기계를 맴도는 그가 당장에 구름을 탄 《신선》처럼 흥겨워질수도 없다.

현장의 온도나 배풍시설은 곧 정상상태로 시정될것이지만 하루종일 걷고걸는 걸음만은 면할수가 없다. 자랑거리로 내붙인 속보의 수자들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었다. 대강 추산해본다 해

도 그런 속도면 하루에 100여리가 넘을수도 있다.

100여리?... 일단 기계앞에 나서면 눈을 반짝이며 힘든줄 모르고 활개치지만 돌아서면 그 피로에 주저앉고말 모습도 상상되었고 안개속같은 교과서앞에서는 고개방아를 찼을 정상도 떠오르셨다.

그 모습은 약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대학공부를 하는 수많은 처녀들의 형상들로 바뀌었다.

산란해지는 마음을 견잡을수가 없으셨다. 그냥 돌아가시여서는 일이 손에 걸리지 않을것만 같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자등에 기대시여 눈을 감으시었다. 폭신한 촉감, 전신을 말긴 편한 느낌이 여느때와 달리 거북스러우시었다. 순간 복실이네들도 이렇게 앉히울수 없을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드시었다.

사색속에 계시던 그이께서는 눈길을 드시었다. 승용차는 해방산기슭으로 접어들고있었다. 운전사가 가속을 놓았다. 그이께서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셨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난것이다.

자주 어기게 되시는 식사시간때문에 부관이 눈짓을 한게 분명하였다.

허나 수령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운전사동무, 차를 좀 돌리시오.》

《예?!》

《방직공장으로 다시 가야겠소.》

운전사에 앞서 부관이 당황해서 말씀드렸다.

《안됩니다. 가셔도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부관은 제스스로 말끝을 흐리고말았다. 오후에는 대안과 청산리쪽으로 가셔야 할 수령님이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신 분이란것을 잘 알고있는 부관이였다.

공장으로 다시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기능공들과 기술자들, 일군들과 마주앉으시었다.

《내가 동무들을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한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내가 다시 온것은 몇가지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론하고싶어서입니다.》

우선 이 공장에는 기초지식이 약한 대학생들과 전문학교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중에는 아마 복실동무처럼 동요하는 처녀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기능공들속에 끼워앉은 복실은 얼굴을 붉히며 목을 움츠러뜨렸다.

《지배인동무, 그래서 나는 이런걸 제기합니다. 이미 대학을 나온 청년기술자로나 학과실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우리 복실이네를 한명씩 맡겨줍시다.》

《수령님, 저희들이 벌써 그렇게 했어야 하는건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곧 개별담당을 시키겠습니다.》

지배인이 먼구스레 말씀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기대를 보면서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기대공들은 기대수를 좀 낮추어줍시다. 그들이 될수록 많은 정력을 학과실력에 쏟아붓도록 말입니다.》

《?!...》

지배인은 어정쩡해서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지배인 동무의 마음을 알만합니다. 방금전에 나는 로력의 예비를 다기대운동에서도 찾고 신랑들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직공들의 고등교육문제는 당면한 생산문제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긴장한 시선들로 수령님을 우러르고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계속하셨다.

《방직은 말그대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방직공들이 짜는 천은 사람들의 기호와 정서, 취미를 충족시키는 예술적가치를 가지고있는 다양하고 화려한 예술품입니다. 따라서 예술품을 창조하는 방직공은 응당 예술가로 되어야 합니다.》

《?!...》

숨을 죽였던 장내가 파문을 일으키듯 술렁이었다.

복실이도 움쭉 머리를 들고 경탄속에 말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력적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예술가는 물론 예술가의 자격과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배우고 수양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서야 합니다.》

경탄속에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르고있는 복실의 가슴은 높이 오르내렸다. 두손으로 보듬어안은 만년필에 담긴 위대한 사랑과 그 높은 뜻이 가슴속으로 흘러들며 출렁이었다.

놀랍고도 사변적인 위대한 사상을 다 음미해내기에는 복실의 사고력이 너무도 빈약했다.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였다.

《또한 방직을 예술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공장을 예술의 무대답게 신선하고 깨끗하게 만들며 기대공들의 로동을 한층 더 험하게 만드는것입니다. 방직은 물론 경로동입니다. 직포공이나 정방공들의 작업을 두고 흔히 <춤추듯이, 나는듯이>라고 표현하는것도 다 옳습니다. 하지만 나는 방직공장들에 나을 때마다 다기대공들이 절반 뛰는듯이 바빠 걷는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차만 타고 다니는 우리 일꾼들이나 기술자들은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사색의 여유를 주듯이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장내를 둘러보시였다.

기대공이 걷는것은 방직기계가 생긴 이래 력사적으로 내려오며 기정사실로 굳어진 문제여서인

지 의혹을 담은 시선들만 오고갔다.

《나는 오늘 우리 정방공들을 앉혀놓을수는 없으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방공들을 앉혀놓다니?!... 정방공들의 걸음, 그것은 곧 그들의 생산능력이며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걷지 않는다는것은 일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장내의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왜? 그렇게 할수 없을것 같소?... 무슨 일이든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대하는가에 달려있소. 가령 정방공들이 절대로 걸어서는 안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그 어떤 방도가 생겨날거요. 문제를 이렇게 결고 연구를 해봅시다.》

수령님께서는 맨 앞에 앉은 책임일꾼들을 살피시였다. 허나 너무 뜻밖이어서인지 누구도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사색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 문제점을 툇기시였다.

《정방공들의 순회로는 차같은것을 타고도 일할수 있게끔 편리하게 생겨먹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태의 차를 만들수 있겠는가 하는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기사장이 늘씬한 상반신을 불쑥 솟구며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아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정말... 이젠 뻤습니다. 우리 정방공들은 이미 차를 탄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말입니까?》

수령님께서는 기대와 믿음, 반신반의가 실리신 안색으로 몹시도 흥분해서 말을 더듬거리는 기사장을 주시하셨다.

《그것은...》

흥분하면 말을 갑자르는 버릇이 있는 기사장이였다.

《그 어떤 훌륭한 발명품도 그 발견과 착상이 중요한것이지 그 설계나 제작과정은... 이를테면, 반복수정이나 개작과정이 있을지언정... 별로 큰것이 아닙니다....》

그는 침착하려고 일부러 말을 느리게 하는것이 알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정방공들에게 차를 태워야 한다는 위대한 발견을 하셨고... 그 차는 정방기의 순회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착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너그러운 미소하시였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실마리로 된다면 나도 기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달리 움직일수 없는 훌륭한 착상입니다. 이미 저... 정방공의 순회로를 따라 비면청소기가 자동적으로 순회하고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기계장치에다 의자형태의 좌석을 단다면 정방공차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것 보시오. 기사장동무의 머리속에 벌써 아

주 신통한 가실이 섰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이께서는 밝은 안색으로 복실을 더듬어 찾으셨다. 어쩐지 그의 짐을 한결 덜어주신 듯한 개운하신 기분이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을 우리르는 복실의 눈곱에선 맑고도 뜨거운 눈물이 넘쳐나고있었다.

복실은 그 눈물로 말하고있었다.

죽음의 달구지에서 가물가물 생명이 꺼져가던 존재, 그때 애어린 처녀는 무엇을 부러워했고 무엇을 소망했는가.

흔들어대는 달구지에 누워서 구름낀 하늘을 쳐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내가 땅을 딛고 다시 걸어볼수 있을가. 이 몸으로 집으로 간들 어쩐단말인가. 《심청》이가 되자던것이 오히려 우환단지가 되지 않았는가... 차라리 죽어버렸다던 좋을것이 아닌가... 나를 끌고가는 이황소는 얼마나 좋을가, 슬픔도 걱정도 없이, 힘든줄도 모르고 썩썩 달구지를 끌수 있는 힘이 넘쳐나고있으니...

아, 그 가혹했던 인생을 어디에 세워주시는가.

다시 땅을 짚고 걸어보는것이 하나의 소망이던 처녀를 죽음의 달구지에서 안아일으켜주시고 걷는것마저 안심치 않으서 아직은 세상에 없는 희귀한 차에 태우시련다.

그 차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비싼 사랑이 옹고된 《금마차》로 될것이다.

복실은 젖어드는 가슴속으로 외우고 또 외워본다.

《방직은 예술입니다. ... 예술품을 창조하는 사람은 예술가입니다. ...》

예술가! ... 예술가! ... 음미해볼수록 아득하였다.

감독의 채찍에 피가 터지면서도 죽은 목숨처럼 눈길 한번 들지 못하던 《막버러지》들을, 궁전의 공주처럼, 하늘의 선녀처럼 아껴주시며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가의 높이에 세워주신다.

사람들의 운명을 《지옥》으로부터 락원으로 건져주셨고 더 높은 《극락》에로 이끌어올리시는 위대한 사변의 중심에 바로 자기가 서있다고 복실은 웅치고있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 공장을 쓰신 시각은 지붕우에 걸렸던 태양이 서향창문쪽으로 기울어진 때였다.

...

정원수들이 설레이고 하얀 비둘기가 내려왔은 파란 잔디밭엔 해빛이 눈부시였다.

회억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생각나신듯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로부터 몇년후 복실동무에게서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와 함께 복실이네 졸업생들에게서 한쪽의 기념품도 받았습시다.》

《그렇습니까?》

복실직장장에게서 편지소리는 듣지 못한 고원빈이었다.

《복실동무가 공장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이였습시다. 나는 그날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습시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하고 생각해보다가는 (아, 그렇지. 복실의 편지를 받았지.) 하고 상기해내곤하였습시다.

나는 지금도 그 편지구절들이 더러 생각납시다.》

수령님께서는 눈길을 좁히시며 기억을 더듬으시였다.

...제가 그때 왜 아버지수령님께 꼭 최우등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어리광속에 철이 없었던것이 죄송하기만 합니다.

아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 저의 손에 손수 쥐여주신 만년필은 대학기간 저의 훌륭한 《은사》였으며 엄격한 《교사》였습시다. 책상앞에서 자정을 맞으며 눈섭이 무거워질 때에도, 과학지식의 아리송한 세계에 혼돈이 생길 때에도 노란 만년필촉은, 저에게 의지와 지혜, 고무를 주었습시다.

또한 수령님의 사랑으로 저에겐 공장에서 불여준 실력있는 두명의 《개인교수》가 있었습시다.

지식의 세계를 하나둘 리해하게 되는 순간은 저에게 있어 보물을 그러쥐는듯한 류다른 기쁨이고 행복이였습시다.

힘겨웠지만 저는 지금 높은 령마루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는것 같기도 하고 무한한 재부를 얻은 부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령님,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정방공입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단순한 정방공이 아닙니다. 제 눈앞에서는 말못하는 정방가락이 돌아가는것이 아닙니다. 하얀 실로리들은 총총이 렬을 선 대합창단의 무대입니다. 수백명의 《가수》들과 《악사》들이 저의 지휘봉에 따라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쥐여주신 지휘봉을 틀어쥐고 대관현악을, 《방직교향악》을 지휘하고있습시다.

《방직은 예술입니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사랑의 노래》, 《창조자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아버이수령님!

저는 공장대학을 나온것이 아니라 아직은 세상에 없는 위대한 사랑의 대학, 인덕의 대학을 나온것입니다.

고향에서 백발의 어머니가 다녀가셨습시다. 어머니는 저에게 은총을 모르면 불효중에도 불효라고 하시며 어서 아버지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라고 당부하셨습시다.

저역시 저의 대학졸업소식을 하루빨리 전해드리고싶은 소망이 간절했지만 다망하시고 분망하신 수령님께 저의 소행이 불민한것이 아닐가싶어

바재고 바재다가 아무래두 그냥은 지낼수가 없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눈길을 드시는 수령님의 안광은 해빛처럼 빛나 시였다.

《고원빈동무, 참, 한가지 보여줄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뒤쪽으로 치우쳐앉은 부관에게 낮은 소리로 뭔가 지시를 하셨다.

부관은 인차 일어나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하늘가에 내려앉은 노을빛 자귀나무꽃무리가 설레이며 싱그러운 향기를 날려보냈다.

잠시후 부관은 정방형의 큼직한 액틀을 들고나와 수령님의 앞탁우에 정히 놓아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액틀을 고원빈이쪽으로 밀어주시며 가까이 와서 보라고 하셨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고원빈의 눈길에 들어온것은 한폭의 《수예품》이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솜같은 몽실구름우에 선 처녀처럼 떠받들린 방직공처녀의 밝은 얼굴, 그 밑에서 꽃물결처럼 흐르는 천필, 처녀의 머리우에서는 빨간 글발이 해발처럼 빛났다. 《방직은 예술입니다!》

액틀의 밑쪽 한구석에는 음영속에 정방기의 형체와 등이 휘여든 방직공의 모습이 비껴있었다.

정교하고 우아함에 끌려 살펴보던 고원빈의 눈길은 우뚝 굳어졌다.

그림은 수예품이 아니라 직포기로 짠 한폭의 문양직이었다.

《수령님, 이것은 제작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공장대학졸업생들인 복실이네가 직접 직물조직설계를 하고 복잡한 기술공정을 거쳐 짠것입니다. 자기들의 졸업을 기념해서 나한테 보내온것입니다.》

고원빈은 감동을 금하지 못했다. 세네가지의 색깔을 주며 그 복잡하고 섬세한 씨실과 날실을 조직배렬하는것은 높은 기술과 고도의 정밀성과 탐색을 요구한다.

그림에는 기계의 재간이라고만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섬세한 미적감각의 정서가 요소마다 부각되어있었다.

하늘높이 추켜올린 방직공의 환희에 넘친 그 얼굴, 작품의 제명을 이루는 빛나는 글발, 명암의 대조속에 암시한 지난날 고역장의 일부...

《수령님, 저는 방직의 신비로운 예술성을 현실적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걸작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원한다면 고원빈동무에게 줄수 있습니다.》

《예?!...》

고원빈은 사고가 마비된 사람처럼 한순간 멍해있다가 다급히 만류하듯 두손을 앞으로 세워들며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아닙니다. 수령님, 그래서는 안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명쾌하신 웃음속에 말씀하시었다.

《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기념으로 이국살이에서 돌아온, 방직전문가인 고원빈동무에게 이 <걸작품>을 선사했다는걸 알면 복실동무네도 더 기뻐할것입니다.》

《수령님, 허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고원빈은 가슴이 뜨겁게 차올라 목이 메었다.

《자, 그러지 말고 어서 받으시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손수 액틀을 고원빈앞에 내드시었다.

《아버이수령님!! 황송합니다.》

고원빈은 너무도 뜻밖의 선물에 가슴이 쨍-하였다. 한폭의 그림이 아니라 무한한 예술의 세계를 안겨주신것만 같았다.

액틀을 정중히 받아안은 고원빈은 달아오른 눈으로, 아니 온 마음으로 작품의 제명을 다시한번 음미하였다.

《방직은 예술입니다!》

죽음의 고역장과 예술의 전당, 노예적로동과 자주적인간의 창조적노래, 우리 방직공들의 처지와 위치를 하늘과 땅 차이로 일변시켜주신 위대한 철학사상이 담긴 명제이다.

고원빈자신도 민족적 멸시와 차별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를 악물고 고학으로 기술을 터득하였지만 극상 밥벌이 방직쟁이에 불과했었다.

(아버이수령님, 저도 이제는 예술가로 되었습시다!)

아! 수령님께서서는 정녕 우리의 방직공을 어디에 세워주셨는가.

방직공들뿐만아니라 이 나라 인민모두를 예술가로 만드는것이 아버이수령님의 의지인것이다.

고원빈의 눈앞에는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서 본 모든 근로자들의 모습이 새롭게 떠올랐다.

열풍앞에서 방열복을 날리는 용해공들로부터 사회의 《최하층》으로 문명과 문화에서 완전히 도외시되었던 구두수리공, 리발사에 이르기까지, 또한 땅우에 한폭의 거대한 명화를 그려놓는, 방금전에 물조리를 들고 저쪽에서 얼핏 지나간 여가 정원지기의 모습에서도 다 예술가적 긍지와 자부심, 창조의 희열이 넘치고있다는 새로운 느낌이였다.

고원빈의 가슴속에선 한없는 걱정이 솟구쳤다.

위대한 수령, 태양처럼 뜨거운 아버이품에서 사는 행복한 인민의 영광이여!...

비둘기가 한가로이 먹이를 쫓는 정원엔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한가득 넘쳤다.

들려오는 자애로운 그 음성 외1편

리정택

내
꿈결에도 듣던
아버이수령님의 음성
새해를 맞으니
못견디게 더 가까이 들려오네

새해의 이 새벽에도
지난해의 모든 밤들을 새우신
그 걸음으로
뜻깊은 또 한해를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아버이수령님의 말씀 그대로인
인자하신 그 영상

-김정일동지는
모든 성공과 승리의 상징
김정일동지를 잘 받아들여야
조국의 통일도
자주화된 세계도
21세기도 빛나게 될것입니다

들려오는 자애로운 그 음성
온 세상이 술렁이는 소리
새해를 맞아 들끓는
내 사는 평양
수령님은 오늘도 함께 계시네

야자나무 설레이는
김정일거리에
새날을 맞아 걸어가는 사람들
크나큰 희망에 가슴 부풀고
김정일동지 그이를
명예위원장, 명예지도자로 모신
혁명조직들과 당들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김정일동지
그이의 초상화앞에 드리며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새해의 이 아침
도시와 거리
태양의 푸른 물결 헤쳐가는 무역선단우에서도
그이를 칭송하는 노래를 짓고
아득한 하늘을 날으는
비행사의 마음도
노을비낀 동녘하늘에서 눈길을 못떼네

오, 누리에 밝아온 새해
어둠을 헤가르며
빛발쳐오는 주체의 세계
자주의 세계가
우주에 빛나고있는 이 아침

절절하게 울려오네
아버이수령님의 친근하신 말씀
영원한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가르치심
아버이수령님의 뜻은
이 세계, 하늘의 뜻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조선도 없고
자주화된 세계도 없습니다
현시대는 **김정일**시대입니다.

아, 인류가 맞이한 **김정일**시대
위대한 그이께서 계시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솟아나리

내
꿈결에도 듣던
아버이수령님의 음성
새해를 맞으니
못견디게 더 가까이 들려오네
태양이 승리임을 심장에 울려주네

인민의 아버지 우리 장군님

노을이 불타는 저녁
제철소 구내길을 걸으시는가
아슬한 산정 최전연초소

눈내리는 전호가를 찾으시는가
오늘도 그리움에 가슴설레이어
나는 그러본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쉽없이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길
밤이나 낮이나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끝없는 사색과 열정으로
위대한 전변의 새날을 맞으시며
거룩한 자욱 옮기시는 장군님 모습

그 언제이던
찬바람 눈비를 맞지 않으시고
힘찬 령 굽이굽이
파도세찬 바다길 헤쳐가지 않으시랴
젖은 옷 차안에서 말리우시는 일 없고
췌기밥 한덩이로 끼니를 에우시며
쪽잠에 들지 않게 편히 모시랴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메여오는듯
눈시울 뜨거이 젖어오나니
그날도 한낮이 기울었는데
부관은 조용히 장군님께 아뢰었어라
-장군님, 점심식사때가 켜 지났습시다

예지로 빛나시는 그이의 안광에서
잠시 사색을 멈추시고
조용히 이르시는 말씀
-아, 내가 미처
동무들의 생각을 잊었됐군!
어서 한자리에 모여앉자고
다정히 수원들을 가까이 부르시여라

한집안식솔처럼
그리도 소탈하시고 겸허하시니

은정깊은 그이의 사랑의 품에
저저마다 도중식사 펼치는데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식사는
너무도 놀라왔어라
간소하게 내놓으시는 죽그릇

부관도 수행원도
아픈 가슴 부여안고 우러르니
젖어오는 눈시울
목메여 목이 짝 메여올라
흐르는 침묵속에 걱정을 터치었어라
-장군님!

우리 다같이 들자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달래이시며
그이께서 먼저 수저를 드시여라
지금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인민들과 함께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자고
뜨겁게 절절히 울리는 말씀이여

그 순간 모두가 보았어라
인민이 조밥을 먹을 때
자신께서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시며
인민들과 어려운 난국을 헤치시여
조국을 밝은 앞날에로 이끌어오신
수령님 모습과 꼭 같으신 장군님 영상을

아, 진정 무엇으로 다 헤아리랴
인민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
그 품에서 모두가 영웅으로 자라고
통일의 려명은 밝아오고
조국은 강대하여라
그이의 거룩한 령도의 손길따라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치여라

전설의 명장

리영백

이야기도 많았네
새 전설도 많았네
경애하는 장군님
쉽없이 이어가신 천리전선길에는...

신기해라
병사들과 함께 사진 찍으실 때는
비구름 흩어져 햇빛이 내리고
소문없이 최전방에 들어서실 때는
질은 안개 흘러와 원쑤의 눈 멀게 했으니

구름을 물고 다니신다네

안개를 끌고 다니신다네
해빛을 거느리고 다니신다네
천변만화 천기도 쥐락펴락
우주를 움직이시는 우리 장군님

사람마다 이야기하네
온 세상이 이야기하네
백두의 정기 타고나신 장군님은
분명 전설의 명장이라고
하늘이 낸분이시니
하늘이 안다고...

1997년 조선의 담시

김철

눈...
바람...

1월 1일 0시
금수산기념궁전
붉은 노을 거느리신 수령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시는 **김정일**장군

눈보라치는 소리...
제야의 종소리...

-수령님, 새해입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늑실 붉은기가 물결치는가
수령님 살펴보고계시었는가

-축하하오, 장군
징조가 좋은 해요

궁전이 흐르릉...
가슴이 뭉클...

-지난해엔 고생도 많았지
지금도 장군은
전선에서 곧장 오는참이겠는데
그래 어떻던가
전사들이 지치지나 않았던가

-전디고있습니다
이겨내고있습니다
이제는 공격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려움이 클수록
맞받아 나가며 답새겨야지

-그래서
《모두다 올해의 <고난의 행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이런 구호를 내걸자고 합니다

-종구만,
내가 하고싶던 말이요

-그러니 올해 신년사도
수령님께서 하셔야겠습니다

-아니지
이제야 장군이 해야지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음성을 못잊어합니다

-나의 말이자 장군의 말이고
그대 뜻이자 나의 뜻인데

-우리 승리의 표대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가 아닙니까!

-인민의 좌우명은
김정일, 그대만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것이 아니겠소
자, 앞에 서주오
붉은기를 더 높이
더 높이 들고!

-수령님!
-장군!

눈보라치는 소리...
나팔소리... 북소리...
천만의 대오, 일심의 대오가
저벅저벅 땅을 구르며 나아가는 소리 소리...

이날
세계는
다시 쳐다보았다
다시 새겨들었다
조선의 모습
조선의 목소리를

눈보라를 헤치고
고난의 구름장을 짹짹 베어내치며
붉은 해, 붉은기의 강렬한 빛발이
우리를 물들이며 퍼져나간다

영원한 봄의 노래

장수봉

봄이 왔다. 화창한 4월의 봄날이 왔다.

종다리 지저귀는 푸르른 창공에도, 눈부신 별 아래 한껏 부풀어오른 대지우에도 봄의 노래가 넘쳐흐른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봄이어서, 풍만한 가을을 마주한 봄이어서 이해의 봄날은 이렇듯 환희로운것인가.

배움의 성지인 여기 룡남산 기슭도 온통 물오르는 봄이다. 온 공간에 차넘치는 봄의 훈향, 다복스레 돌아난 연록빛 봄풀들이며 밟그스름히 피여웃는 꽃송이들, 활개를 펼치고 솟은 교사들과 혼혼한 봄빛을 안고 활기에 넘쳐 걸어가는 대학생들의 씩씩한 눈빛들, ... 어디를 보나 웃음과 화기, 봄의 훈기가 후덥게 굽이쳐온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는 아름다움의 계절,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봄을 사랑하여왔으리라. 시인들은 꿈을 노래하여도 봄날의 꿈을 즐겨 노래하였고 화가들은 풍경화를 한폭 그려도 꽃피는 봄동산을 즐겨 그리곤하였다. 힘이 불꽃되고 희망이 꽃구름처럼 피어나는 청춘시절도 다름아닌 봄의 랑만에 비껴오지 않았던가.

하다면 이 봄의 아름다움, 이 봄의 약동은 과연 어디서 오는것인가...

어디선가 은은한 선물이 들려온다. 미풍에 흐느적이는 버들가지들사이로 우렛이 바라보이는 룡남산언덕, 그 언덕우에 서시여 한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먼 지평선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승엄히 안겨온다.

아, 수령님, 봄날의 우리 수령님,

찬란한 봄의 광원인양 4월의 봄언덕우에 높이 서시여 이 땅의 산천초목들에 무한한 빛과 열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 그 영상을 우러르는 나의 마음속에 문득 45년전 백송리에서 울려퍼지던 감격의 노래소리가 뜨겁게 울려온다.

반만년 력사우에 솟아오른
인민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그이의 해발아래 새조선은 태어나
어제날의 머슴이 영웅이 되고
온 강산이 타번지는 불바다속에서도
배움의 꽃은 피여 청춘은 푸르리라

...

미제야수들이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던 엄혹한 그 시기, 평양에서 백송리로 오는 길에는 적들이 뿌린 세균탄의 흔적이 가셔지지 않아 얼마간 통행이 가로막혀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탄생 마흔뎡을 며칠 앞두고 백수십리의 멀고 험한 길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맞이하여 백송리의 온 골안은 그 얼마나 환희의 도가니로 끓어번졌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밤 수수한 농막에서 교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마주하시였다. 등잔불이 깜박이고 방공막이 드리운 방, 구름노전이 깔린 크지 않은 그 방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교원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의 창설, 온 나라의 전기화, 동서대운하의 건설과 방대한 서해간석지의 개간...

실로 한아름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그이의 웅지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시시각각으로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결전의 그 나날, 많은 벼들까지도 포연자욱한 동방의 하늘을 깊은 우려속에 주시하고있던 준엄한 그 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조국의 천년 미래를 내다보고계셨으니 과연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 이런 놀라운 사실이 기록된적 있었던가!

교원들은 드세찬 힘의 사품에 이끌리듯 격해오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이의 말씀에 온 정신을 기울였다. 그러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억제할길 없는 감동의 빛이 한가득 어리고있었다.

흥분과 감격이 어우러져 흐르는 가운데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갑자기 멀지 않은곳에서 미제공중비적들의 폭음이 들려왔다. 순간 방안에는 고막을 압박하는듯한 정적이 깃들었다. 아무런 반항공설비도 없는 골짜기에 그이를 모셨으니 이일을 어찌면 종단 말인가. 모두가 긴장감으로 하여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미국놈들이 저렇게 발광하지만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날을 믿기때문에 이렇게 나라의 대자연개조사업을 의논하는것이라고 호탕하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다음순간 얼어붙었던 방안에 화기로운 웃음의 물결이 번져흘렀다. 적기의 폭음을 짓누르는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은 그대로 겨울의 종말을 선고하는 봄우뢰가 되어 교원들의 가슴마다에 장쾌하게 메아리쳐왔던것이다.

교원들은 봄시위마냥 세차게 끓어오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오래도록 흥성거렸다.

그이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꿈이 있어, 그이께서 안겨주신 밝은 랑만이 있어 그들은 벌써 승리한 래일에 살고있는것이였다. 행복에 겨워, 희열에 넘쳐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교원들의 눈앞에는 그이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세계 으뜸의 강국, 영웅의 나라 조선이 아침해와 같이 두둥실 솟아오르는것 같았다. 참으로 그것은 미래를 사랑하시고 승리를 확신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심장이 낳은 위대한 리상이 아니였던가.

오늘도 백송리는 그날의 봄빛을 소중히 품은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사연들을 전하여주고있다. 그이의 자애로운 숨결이 스며있는 반토굴의 숙소와 식당이며 그이의 열정에 넘친 음성이 들려오는듯싶은 이끼푸른 밤나무밑 연설터...

봄은 움트는 계절이어서 아름답고 꽃피는 계절이어서 아름답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의 봄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가슴속에 부풀어오르는 희망이 없고 넘쳐나는 랑만이 없다면 어찌 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봄의 약동에 대하여 노래할수 있으랴.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휘황한 래일의 꿈이 있었기에 조국의 만년대계를 그려본 백송리의 봄은 그리도 아름다울수 있었고 그이께서 심어주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있었기에 파편에 으깨여진 바위돌우에 펜을 갈며 폭음에 흔들리는 등잔불밑에서 과학을 탐구하던 백송리의 정신은 그리도 랑만에 넘칠수 있었던것이 아닌가.

바로 그러하기에 어버이 우리 수령님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참다운 꿈을 안겨주시고 랑만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봄날의 태양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것이다.

아, 설레는 산밭이여 이야기하라
탄생 마흔뉘에 포연을 헤치시고
우리의 배움터를 찾으신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너 영광의 땅이여, 길이 노래하라
한밤을 우리와 함께 새우시며
천년미래를 밝혀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피끓는 심장에 혁명의 불길은 타올라라
미제를 쓸어놓힌 승리한 이 땅우에
공산주의조국을 높이 세우리라!
김일성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

준엄한 전화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안아오신 백송리의 봄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 아래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태양의 광휘로움과 따사로움을 떠나 꽃피는 봄을 생각할수 없듯이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봄의 화원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그 꿈을 떠나 우리 어찌 희망에 부풀고 랑만에 넘치는 이 봄의 환희를 노래할수 있으랴.

봄을 안고사는 사람은 추위를 모르고 마음속에 참된 리상과 랑만을 간직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동요를 모르는 법이다. 하기에 엄혹했던시절 **《김일성**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고 백송리에 울려퍼졌던 그 봄의 노래는 오늘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는 영원한 봄의 노래로 이어져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도도히 굽이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정녕 이 봄에 울리는 노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구상을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진군해나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보무당당한 행진곡이며 그 진군길우에서 멀지 많아 맞이하고야 말 장엄한 새날의 서곡이 아니겠는가.

어제는 동해천리 오늘은 서해천리

정서촌

어제는 동해천리
오늘은 서해천리
굽이굽이 험준한 산밭을 넘으시며
비바람 찬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장군님 조국의 방선을 가시네
쉬임없이 전선길을 이어가시네

땅크의 무한궤도자국이 생생한
산비탈 전호가 박달나무밑에서
사랑하는 전사들과 함께
검소한 야전식사도 나누시고

환호성 터지는 군부대 트랙에서
일당백 용사들의 훈련모습을 보시며
사자같이 용맹하고 씩씩한 기상에
그리도 만족하여 박수도 쳐주시고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케 하시며
원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며
그이께서 가시는 전선천리길
구름넘어 가시는 최전선길

백두산의 축지법을 쓰시는가
어제는 동에 번쩍
소문도 없이 가시더니
일행천리 령활한 전술을 펴시는가
오늘은 서에 번쩍
기별도 없이 오시는
아,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하늘에 치솟은 아아한 산봉우리
눈뿌리 아찔하게 깎아지른 날벼랑
그 모든것을 마치 징검돌처럼
성큼성큼 발밑에 디디시고
온 강토를 중형무진하시는 위대한 전설의 자욱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평탄한 길을 걸었던가
하물며 운명을 같이할 귀중한 전사들을 두고
어찌 내디딘 걸음 돌아설수 있으랴
물새들도 죽지가 꺾어져 애타게 우는

망망대해 산악같은 풍랑을 헤치시고
멀리 외진 섬초소 원썬들의 살벌한 총구앞에서
마지막 한사람의 전사까지 품에 안아주신
아, 태양의 자욱 하늘같은 사랑의 자욱이여

천하무적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는 백두산의 장군
그이는 백두산의 아들

그이 신발에는
오늘도 백두의 흙이 묻어있고
엄혹한 밀림의 그밤처럼
그이 어깨에는 지금도 흰눈이 녹지 않았다

수수한 야전복을 바람에 날리시며
최전연 고지에 서계신 장군님의 모습
그것은 백두설령에서 백포자락 날리시며
삼도왜적을 단칼에 쓸어눕히시던
그날의 청년장군 수령님의 근엄하신 그 모습

동란의 20세기 마지막 년대
회오리치는 역풍을 한몸으로 막으시며
우뢰치는 백두의 기상으로
그이께서 사회주의보루의 최진두에 계시기에
조국은 난공불락의 금성철벽
다치면 금시 폭발할 무서운 화산으로 솟았거니

결사용위의 대하가 굽이치는 이 땅에서
어느놈이 모래알 하나 건드릴수 있으랴
정녕 장군님 펼쳐드신 위대한 작전도앞에서
제국주의 모진 광풍은 성벽에 부딪히고
놈들의 운명은 추풍락엽으로 산산이 허공중에
날리여라

아, 어제는 동해천리
오늘은 서해천리
위대한 령장을 따라 세기의 자욱을 따라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떨치며
《고난의 행군》 마지막 령을 넘어
조선은 이렇게 승리의 한길을 가고있다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전승동을 찾아서-

최성진

평양의 개신문을 지나 순안방향도로를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가루개정점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나가고 주위에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과 함께 유명한 평남면옥이 합각지붕을 펼치고 덩지크게 들어앉아 고개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유구한 력사의 자취를 새기며 인가가 번창해온 이 가루개에서 오래동안 살아오는 늙은이들을 만나면 누구에게서나 지난 전쟁때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미제날강도들이 평양에 까맣게 날아들어 무차별폭격을 감행할 때 여기 가루개일대는 그렇게도 비좁게 들어앉았던 가옥들이 죄다 불타버리었고 방공호들마저 무너져내려 성한것이 없었다고 한다. 어른들과 아이들, 늙은이들과 녀인들...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폭격에 희생되었다. 어린 나이에 그때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한 동료작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곤한다.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하루아침에 온 동네가 불타버리고 우물들마저 없어졌는데 다행히 드레우물 하나가 남아있어 사람들이 물을 길자고보니 그안에도 폭격통에 죽은 아이의 시체하나가 날아들어가있더라는...

작가 고병삼은 단편소설 《맑은 아침》에서 이 대폭격상을 목격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화했다.

전승동에 대한 기행글을 쓰면서 내가 왜 력사에 류례없었던 평양대폭격이며 참혹했던 가루개의 장면을 상기하게 되는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군사위원회와 함께 들어계시던 전승혁명사적지가 이 가루개에서 불과 한키로메터나 되나마나한곳에 위치하고 있다는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평양대폭격의 직접적인 목격자이시며 이 폭격속에서 전당, 전민, 전군을 령도하시였다.

그러한 생각들로 하여 가루개를 지나 전승동을 찾아가는 나의 가슴은 뜨겁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한갓 력사의 판조자에 불과할뿐 체험자는 아니다. 전선원호에 나선 젊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 전쟁을 치른 내가 그때의 준엄함을 어찌 다 리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망각의 아득한 공간을 지나온 90년대요 때로 말하면 꽃들이 피어나고 행복한 청춘들이 화려한

옷을 떨쳐입고 나선 봄계절이 아닌가!

전승혁명사적지는 모란봉기슭의 안침진곳에 자리잡고있다. 해별은 따스한데 모란봉쪽에서 봄풀의 향기가 습배인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길가의 잔디는 연록색을 띠어갔다. 새로운 부흥의 해, 새로운 승리의 해로 약속되어있는 이해의 봄이여서 사적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밝은 빛이 더욱 어려있는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흐름속에 섭쓸려 사적지를 찾았다.

여기 전승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초부터 전승의 축포가 오르던 1953년 7월까지의 사이에 계시던곳이다. 그때로 말하면 전선이 38도선을 기본으로 하여 고착되고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 인민이 확고한 승리를 내다보며 전선과 후방에서 개가를 올리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역도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전선에서의 거듭되는 대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발악적으로 미쳐날뛰던 그 시기에 수도시민들과 함께 계시며 전쟁승리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고 승리한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설계하시였다. 이곳을 전승동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도 바로 조국의 거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을 대를 두고 길이 전하려는데 있다.

전승혁명사적지는 바깥사적건물들과 경도안의 방들로 되어있다. 바깥사적건물들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용하신 사무실과 정전협정조인문을 보시고 비준하여주신 집 그리고 공화국군사위원회가 들어있던 사무실과 식당으로 되어있다. 나는 강사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사적건물들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용하신 사무실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인간에게는 상상력이라는것이 있다. 위대한 령장께서 전쟁의 나날 한개 국가의 인민과 그 무력을 령도하시여 제국주의 련합무력을 타승하신

건물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축성된 엄개며 요란한 작전대같은것을 상상할수 있겠지만 여기 전승혁명사적지의 사적건물은 너무나도 작고 소박했다.

사무실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용하신 사적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참관자들의 생각을 가려했던 전화의 그날에로 이끌어갔다.

전선에서 한창 열전이 벌어지고있을 때 한 외국인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해 여기로 찾아왔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후에 하시게 될 보고문의 정서를 하고계시였다. 그

외국손님이 보고문의 정서야 다른 사람에게 시킬수 있지않는가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바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는가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 어느날엔가는 한 설계일군을 이 방으로 부르시여 재더미로 된 평양시를 더 화려하고 살기 좋은 수도로 만들기 위해 복구건설의 설계도도 그어주시였다. 바로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어주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도 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사무실에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 보고와 1952년 2월에 열린 도, 시, 군인민위원회위원장 및 당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현재단계 있어서의 지방정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보고문도 몸소 집필하시였다. 원썬놈들의 비행기가 지척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며 돌아칠 때 강철의 의지와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광막을 내린 이 자그마한 방에서 거대한 사업을 설계하시고 전당, 전민, 전군을 령도하시였다고 생각하니 뜨거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력사의 집은 그날의 사연을 되새겨주며 숙연한 정적에 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보고문을 집필하시는 펜소리마저도 그대로 들려올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시기 주로 바깥사무실에서 사업하시다가 적기의 폭격이 몹시 심하여 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만 갱도안의 사무실을 리용하시였다. 바깥사무실에서 가까이 있는 갱도 입구에는 전쟁시기에 난 폭탄자욱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갱도라야 견고하게 축성되어있는것도 아니고 또 비좁았다. 천정으로는 물이 습새어나와 흘렀다. 한톤짜리 폭탄만 떨어져도 부석돌들이 떨어져내렸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부석돌들을 밟으시며 이 갱도를 지나 지하사무실로 오가시였을것이다.

갱도안의 사무실은 크지 않은 소박한 방이였다. 외부의 소음이 일체 차단되어있어 더욱 숙연한 감을 자아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갱도안의 사무실에서 폭격으로 전기불이 꺼지면 초불로 밝혀가시며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고 한다. 이 사무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보고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도 집필하시였으며 중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을 부르시여 전쟁이 끝난 다음 공장, 기업소들에서 해야 할 일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지질탐사부문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서는 전후의 광산개발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과학연구부문 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은정깊은 사랑의 손길을 뻗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품모에 대하여 지금도 우리 인민이 잊지 못해하는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 40돐을 맞으시던 그해의 4월! 우리 일군들이 아무리 전쟁의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도 어떻게 4월 15일을 그냥 보내겠는가고 하며 경축연회를 준비하고있을 때 이 사실을 아신 수령님께서는 모두가 전쟁으로 시련을 겪고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포연탄우속을 헤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싸우는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을 찾으시며 뜻깊은 생신날을 보내신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먼길에서 돌아오시여 일군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시였다

승리는 어디서 오는것인가? 우리 혁명이 펼쳐가는 백전백승은 간고한 시련도 인민과 함께 겪으시며 불면불휴의 령도로 력사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이룩된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시기 수습차레의 내각전원회의와 군사위원회를 몸소 여시고 지도하여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갱도안의 회의실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이 회의실에서 영화를 보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아야 볼 재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마을주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을 친히 부르시여 그들과 함께 보시였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것처럼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셨기에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아픔, 인민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였으며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내각결정들과 군사위원회명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었던 것이다.

갱도안에는 이밖에도 30여개의 크고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 매 방들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취가 깃들어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것은 김책동지가 사엽하던 방이었다.

당시 내각부수상과 전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하던 김책동지가 뜻밖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날 그가 잘못되었다는 비보에 접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전사의 희생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시었다. 그래서 김책동지가 사엽하시던 이 방에 들리시여서는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며 가슴아파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당과 혁명에 대한 김책동지의 충실성과 그가 혁명앞에 남긴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어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그의 고향에 동상도 세워주시었다.

참으로 혁명동지들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뜨거운 동지애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 혁명전사들은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변함없이 수령님만을 믿고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한목숨을 다 바쳐 싸울수 있었던것이 아니라.

진정 그렇다.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품에서 영웅들이 태어난다.

그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불변하다. 오늘도 위대한 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은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며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나가지 않는가! 력사의 고장 전승동을 떠나오며 우리는 이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었다.

위대한 사열

김석전

사열을 받았노라
꽃보라 날리는 경축광장이 아닌
눈비 내리는 전선길에서
병사들은 최고사령관의 사열을 받았노라

부르신다면, 병사들을 부르신다면
산이든 강이든 바다끝이든
단숨에 달려넘어와
그이앞에 발구름 올리며
영광의 사열을 받을수도 있었으련만

그런 사열이 아니었노라
이 땅의 마지막고지
마지막초소
마지막전사까지
몸소 최고사령관이 찾아하신 력사의 사열이여

무죄같은 가슴들을 들먹이며
병사들은 사열을 받았노라
바람세찬 비행장의 활주로우에서
파도사나운 군항의 기슭에서도
총구가 마주선 분계선 아슬한 계선에서도...

받았노라
백두령장이 한몸에 지니신
친어버이사랑과 믿음
필승의 기상과 담력
병사들을 자신처럼 믿어
강철의 심장까지도 통채로 주시는
최고사령관의 사열을 전군이 받았노라

아, 그 사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혁명의 수뇌부는 병사들과 운명을 같이함을
하늘 땅 바다에 새겨준 엄숙한 선언
이렇게 혼연일체를 이룬 강군을 이길자 없음을
원수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준 무서운 폭탄선언

기념일의 사열이 아니었다
경축광장의 사열도 아니었다
군건설력사에 거봉으로 우뚝 솟은
그 뜻깊은 사열은
최후승리봉에 존엄높이 올라선
내 조국을 보여준 위대한 사열이었다!

뜻깊은 건군절의 날에 외1편

신운호

온갖 꽃향기 그윽한 금수산성지에
새벽노을 붉게 물드는무렵
아버이대원수님을 찾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뜻깊은 건군절을 맞아
더더욱 사무치게 그리운
전군의 한결같은 충효의 정 안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께 인사를 드리여라

오, 이 나라에 혁명의 시원 열으시고
동지 한사람한사람 모으고 키우시여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우리 수령님
력사의 준령을 넘어
포화를 헤치고 광풍을 막아
조선혁명의 대군을
승리에서 승리로 이끄신 백전로장께...

해마다 수령님을 모시고
건군절을 맞는 병사들 찾던 때가
못견디게 못견디게 그리우시여
오래도록 발걸음 떼지 못하시는
우리의 장군님

나는 이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을
크나큰 기쁨으로 생각하신다면
수령님의 그 음성 들으시는듯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과 함께
무적필승의 군대를 맡기고 가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뜻을 새기시며
다시금 충성의 인사 올리여라

아, 금수산에 솟는 아침해를
거룩한 두어깨에 받으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떠나신다
전선의 전사들을 찾아
먼 길 떠나시여라

하늘 땅 바다 그 모든 초소
건군절 맞는 전사들을
친히 만나 축하해주고싶으시여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자욱자욱 이어가시는 그 길은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가시는 길이여라

조국은 그 자욱 길히 전하리

낮에 밤을 이어 바람세찬 령을 넘어
장군님 가신 길은 몇천리던가
쪽잠도 미루시고 끼니도 번지시며
때로는 전사들과 야전식사 나누시며
장군님 이어가신 전선길
온 나라 마음들이 함께 걷는 길

항일의 날 조국의 운명 안으시고
수령님 앞장서 걸으신 고난의 행군길 이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광풍을 짓부시고
가시는 그 길로 조국이 전진하나니

백두산에서 시작한 주체의 행군길에
새 승리의 력사를 펼치시는 장군님
장군님 가시는 자욱을 따라
무적필승의 대오엔 폭풍이 일고
원썩들은 멸망에 아우성치나니
락원의 꽃바다에 불어오는

불길과 폭풍을 휘잡아 던지시며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그이를 모시여
우리는 언제나 이기노라
우리의 군대는 무적의 강군
필승의 강군 되었노라

하기에 장군님 끝없이 걸으신 전선길은
정의로 빛나는 길
원썩에겐 거세찬 징벌의 길
평화를 지키시는 길
세계를 지키시는 길

오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은
위대한 승리의 자욱
인민은 영원히 그 자욱 못잊으리
조국은 영원히 그 자욱 못잊으리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창작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문헌

리창유

은 나라 전체 인민이 새해의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회주의총진군운동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발표하신 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96년 4월 26일에 발표하신 이 고전적로작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되고있는 준엄한 시기에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 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고 명작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준 우리 시대주체문학건설의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심으로써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수 있게 되었고 주체문학의 전투적사명과 역할을 일층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작에서 이룩하신 공적은 무엇보다도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명작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기준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시대 명작창작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고 그 길로 우리 작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이란 시대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잘 반영된 작품으로서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져있고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이 철저히 구현되어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에는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숭배심과 수령결사옹위정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높은 사상정신적각오가 담겨져있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신념과 자력갱생,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견결히 고수하여오신 혁명의 붉은기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것은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인 우리모두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우리 작가들이 시대의 요구, 당의 이 요구를 똑똑히 알고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이 맥박치는 혁명적인 시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이 피끓는 심장으로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락관을 안겨주는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가 가지는 인식교양적가치와 예술적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한편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은 천만자루의 총검을 대신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송가 **《조선의 별》**과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과 해방직후에 창작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장편서사시 **《백두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나온 가요 **《결전의 길로》**, 전후시기에 창작된 가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창작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동지애의 노래》**와 같은 명작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비상한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나타내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명작들은 우리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주체형의 인간들이 지녀야 할 고매한 풍모를 가르쳐줌으로써 참된 삶과 투쟁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여기에 바로 명작이 가지는 인식교양적가치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작을 발표하시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은 또한 명작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시대 명작창작의 비결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 시대 명작창작의 근본비결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에 맞게 창작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명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벌린다는것은 그들이 자기의 재능과 정열을 다 발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술적생명력이 있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가진 명작을 창작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벌리는것은 문학예술발전의 현실적요구이다.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을 벌려야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으며 언제나 왕성한 창작의욕을 가지고 창작전투를 벌려나갈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는것은 그들속에서 허송세월을 하거나 남의 그늘밑에서 살아가는 현상을 없애고 모두가 다 제구실을 할수 있게 한다.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는것은 또한 그 과정에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들이 많이 나올수 있게 한다. 때문에 문학예술부문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는것은 그들모두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쓸수 있게 하고 이름있는 작가, 예술인들로 되게 하는 중요한 방도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실력전을 벌려 명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에 민감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의도는 곧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이고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와 지향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를 잘 알고 그에 민감해야 시대와 인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가치있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 창작한 문학예술작품은 혁명과 건설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정일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등이 명작으로 될수 있는것은 이 작품의 작가들이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민족최대의 상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수령님의 유훈

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지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옳게 반영하였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우리 인민의 굳센 의지와 지향을 잘 그려냈기때문이다. 경험은 작가,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얼마나 민감하게 포착하고 잘 반영하는가 하는데 명작창작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시대의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학습을 창작실천의 일차적요구로 내세우고 깊이 연구체득하며 거기에서 시대적의의를 가지는 문제, 당과 인민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들을 민감하게 찾아내어 작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실력전을 벌려 명작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적재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실력전은 말그대로 실력을 겨루는것이며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실력은 예술적재능으로 나타난다. 높은 예술적재능을 소유한 작가, 예술인들만이 실력전을 벌려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칠줄 아는 능력, 인물들의 성격과 호상관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릴줄 아는 능력, 작품의 구성을 독특하게 조직할줄 아는 능력, 형상수법과 수단들을 솜씨있게 구사할줄 아는 능력 등은 작가의 예술적재능으로 된다. 때문에 작가들은 예술적재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예술적재능을 갖추는데서 선결조건은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사상에 기초하여 형상의 대를 세울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지금 일부 작가들속에서 생활의 자질구레한 문제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려 하거나 거기서 솜씨를 보이려는 경향, 생활의 본질을 가려보지 않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나 이지러진 성격에 흥미를 가지고 그런것을 그리는데서 재간을 부리려는 경향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창작가들의 재능은 손끝재간이지 결코 당이 바라는 참다운 재능이 아니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허구가 허용된다고 하여 생활에 기초하지

않고 허황한것을 고안해내어 작품의 기본사상을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었다.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원형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격과 생활을 탐구하지 않고 인물들의 운명을 기구하게 그리며 비전형적인 성격과 이야기를 꾸며내어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자화자찬하는 편향은 결국 작품의 정책선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작품의 기본사상을 모호하게 하고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자화자찬하는 편향은 문학예술작품의 인식교양적가치를 떨구게 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취급된 작중인물의 생활과 성격을 믿을수 없게 한다. 이것은 다 정치의 산물로서의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손상을 주는 유해로운 경향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은 정치의 산물이며 정치의 무기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언제나 문학예술에 앞서 정치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형상의 대를 세울줄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술적재능을 갖추는데서 특히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었다.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지 않고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해낼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항상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창작적사색은 언제나 문학예술창조에 대한 주체의 미학관과 문예관에 기초하여야 철학적심도가 있는 작품을 써낼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지금 우리 작가들이 내용이 깊고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작품을 많이 창작해내지 못하고있으며 앞이 뻔드름하게 내다보이거나 읽은후 인상에 남는것이 없는 작품을 써내고있는것은 창작가들에게 심오한 철학적사색이 부족한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 작가들이 철학이 빈곤하여 깊이있고 무게있는 작품을 내놓지 못한다는것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철학가못지 않게 주체철학에 정통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철학적 일가견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사색은 시대의 거세찬 흐름과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묘술을 탐구하는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오늘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드립없는 철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을 지니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돌려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게신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준엄한 정세와 난관에 대처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담력과 량만을 그대로 심어주어 그들을 투쟁과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겠는가 하는데로 창작적사색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옹위해나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들인 인민군군인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창작적사색을 무르익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혁명적량만을 구현한 작품들이 요구되는 때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혁명적작품들을 대담하게 창작하여야 하며 량만주의적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인민의 밝은 미래를 격조높이 구가한 명작들도 내놓아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적사색을 통하여 무르익힌 구상을 작품에 재치있게 형상할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고 사색을 깊이 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실지 형상으로 그려낼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수 없다.

지금 우리 작가들이 써낸 적지 않은 작품들이 형상의 좁이 없이 읽기 따분하고 예술적감화력이 적은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작가들에게 예술적형상능력이 부족한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명작창작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론과 창작실천상 문제들에 대한 가르치심은 주체시대 명작창작의 길을 휘황히 밝힌 백과전서이며 우리 작가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만능의 보검이다. 여기에 바로 이 로작이 가지는 진리성과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로작을 발표하시여 쌓아올리신 공적은 또한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창작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문제들과 그들이 지녀야 할 풍모를 명철하게 밝혀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공부문에 능수가 될 높은 자질을 소유하고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전공부문에 정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줄타기를 하거나 지난날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험주의는 창작에서 죽음과도 같은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어찌다가 한번 성공한데 현혹되어 발은 재간만 믿고 형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 노

력하지 않으면 예술적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갈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창작에서 도식주의와 류형성을 면할수 없다.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은 전공부문에 정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자기의 형상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예술적재능은 꾸준한 학습과 습작을 통하여 키워지게 된다.

지금 일부 작가들이 영화나 소설을 보고도 바로 분석하지 못하는것은 이론적기초가 없기때문이다. 또한 한때 쟁쟁하던 작가가 얼마 가지 못하여 재능이 딸려 창작부진상태에 있거나 한 작품에서 성과를 거둔 작가가 다음 작품창작에서 실패하게 되는것은 다 예술적재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잘하지 않은 후과이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을 없애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재간둥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음악, 미술 등 자매예술에 대하여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인류의 문학예술발전과정에 이룩된 우수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한다.

창작경험발표회나 작품합평회 등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작가들의 형상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 들끓는 현실 속에 들어가 현실체험을 잘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체험은 창작활동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한것은 작품의 종자도 소재도 세부도 현실속에 있기때문이다.

들끓는 현실이야말로 작품창작의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터전이다. 아무리 재능이있는 작가라 할지라도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지않으면 인간생활의 산 형상을 찾아낼수 없으며 격동하는 시대의 거세찬 흐름과 보조를 맞출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에 들어가 작품의 종자를 틀어쥐고 원형에 기초한 주인공의 성격을 탐구하여야 하며 작품의 줄거리를 특색있게 엮어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화선식사상사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현실체험도 화선식으로 하고 경제선동도, 화선식으로 함으로써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올해총진군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들끓는 열의를 고무추동하며 이들과 고난도 함께 헤치며 현실생활을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

이렇듯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할 때만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지와 기상을 잘 그려낼수 있으며 이런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밖에도 명작창작을 힘있게 내밀기 위하여 작품창작에 대한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와 같이 로작은 우리 혁명의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들을 당의 담력과 랑만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줌으로써 명작창작의 만능의 보검으로, 백과전서로 그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보물고를 더 풍부히 하여주고있다. 특히 로작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명작을 창작해낼수 있는 리정표를 마련해주고 그 방도와 창작실천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휘황히 밝혀줌으로써 시대의 특기할 명작들이 대대적으로 씌어질수 있게 하는 크나큰 생명력과 진리성을 파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교 바라시는대로 오늘 우리 문학은 준엄하고 격동하는 우리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면서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사회주의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전진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오늘 우리문학에 차넘치고있는 시대정신은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이며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이 체현하고있는 사상정신적특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자의 대행진으로 즐기치게 이어가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이다.

우리 작가들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더욱 투철히 구현하고 격동적인 오늘의 현실이 배출하는 시대의 주인공들을 더 훌륭히 형상해냄으로써 명작창작으로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낼것이다.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창작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고귀한 창작적지침으로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명작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영예와 행복은 그 어디에 비할데 없이 크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령도따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시대를 빛내일 명작들을 왕성하게 창작해낼것이며 하여 주체문학의 화원은 끝없이 만발할것이다.

명언을 들으며

리종성

《믿음은 사람을 키운다.》

이것은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중의 명언이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텔레비존앞에 모여앉으니 화면에서는 마침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명언이 나오는것이였다. 그러자 인민학교 2학년에 다니는 나의 아들이 이윽도록 텔레비존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더니 문득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장군님의 저 명언에 어떤 뜻이 들어있나요?》

이제야 갓 우리 글을 깨친 아들의 물음이었으나 그 물음에 대답하려니 가슴이 찌르르해오면서도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어린 아들이 다 알 수있을가 하는 생각에 나는 순간 인차 입을 열지 못했다.

문득 지난해 11월 적후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돌아와 공화국영웅이 된 조선인민경비대 대원 정광선의 모습이 우렁치 안겨왔다.

우리 19살의 병사 정광선은 무려 12시간동안이나 허허 날바다에서 단신으로 자그마한 손도끼 하나를 들고 적함 6척과 맞서 용감히 싸웠고 원수들의 온갖 회유와 기만에도 가슴펴고 당당히 자기신념의 목소리를 터쳐 적들을 전몰케 하였다.

무릇 인간이 한평생을 살자면 마음의 기둥이 든든해야 하는 법이다. 하기에 이 세상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각종 교들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것이리라.

지금도 가끔 영화의 화면들에서 보게 되는 《하느님》을 부르며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술한 사람들이 바로 마음속에 하느님을 기둥으로 세우고 살아가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참다운 사랑의 정치로 모든 사람들을 따뜻이 품어주고 내세워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우러러 따른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을 정치적신앙으로 간주하신분, 그분이 우리가 하늘처럼 받들어모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어느한 기회에 장군님께서 아래일군들에게 나뽤레옹은 그대들이 나를 믿노니 나도 그대들을 믿는다고 말하였는데

자신께서는 그와 반대로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도 나를 믿으라 이것이 나의 철학적신념이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다. 먼저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어 믿고 따르게 하는 우리 장군님의 이 사랑의 논리앞에 우리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가.

지난해에만도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비내리고 눈내리고 찬바람 부는 굽이굽이 멀고 험한 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시였다. 그 길에서 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때 인민들이 죽을 먹으면 자신께서도 죽을 드신다고 하시며 그 한그릇의 죽마저도 죽이란 먹다가 남기면 삭는다시며 절반나마 덜으시고 반그릇의 죽을 드시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비바람치는 서해의 그 음산한 밤 막아서는 일군들의 청을 만류하시며 우리 군인들이 있는곳인데 꼭 가야 한다고, 우리가 가는 길은 순풍에 돛단 배길이 아니라고 하시며 무섭게 덮쳐드는 파도를 헤치시고 초도의 병사들을 찾아주신분도, 또 판문점대표부를 찾아오셔서 적들이 낚새를 쫓아봐 심장속 웨침도 터치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속에 두팔높이 소리없는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사들을 품에 안으시고 걱정속에 손수건을 눈으로 가져가시던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리고 근무중의 마지막전사까지 다 교대시켜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금시계도 채워주시며 무엇인가 더 주시지 못해 애쓰시는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이런 사랑속에서 길영조영웅과 같이 불붙는 비행기에서 탈출한다면 한목숨 구할수 있으련만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기수를 바다로 돌려 청춘을 바친 충신도 자랐고 적후에서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전사라고 하며 철석의 신념을 안고 싸워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전사도 있는것이리라. 아니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 전사들이 어찌 달리 살수 있으랴. 그 품에서 자란 전사들이 아는것은 오직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것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들로서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지닌 불패의 대오로 기상을 떨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회오리치는

광풍을 한몸으로 막으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에 감복되어 원썬들의 온갖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고난도 역경도 웃으며 헤치고 그이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락관에 넘쳐 나가는것이다.

지나간 력사는 높은 인덕과 사랑이 없는 인간에게 승배와 매혹이 따를수 없고 강요에 의한 맹목적인 순종에서 충신이 나올수 없음을 절실히 보여주었다.

그렇다. 믿음과 사랑이 없는데서 어찌 충신이 나올수 있으며 어찌 생명을 내대며 자기를 바칠수있으랴.

그래서 내리는 사랑에 반드시 충성은 오르는 법이라는 말도 생긴것이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믿음철학이

있기에, 그이 인민위해 바치시는 헌신과 로고가 래일엔 찬란한 행복을 안아올수 있다고 믿기에 조금도 주저없이 동요없이 그이를 따르는 절대적인 신념이 이 땅에 굽이치는것이다.

나는 철없는 아들이지만 그에게 이 심원한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의 얼굴에 제법 승엄한 빛이 어렸다. 자기도 커서 장군님을 옹위하는 인민군대가 되겠노라고 소박한 결의도 표명했다. 그러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너는 아직 명언의 깊은 뜻을 깨닫기 어렵겠지만 너의 앞길에 비쳐지는 그 사랑의 빛발속에서 온 육신으로 체험으로 푹푹히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숲을 가꾸는 마음

강남섭

적막한 숲속-

다만 여기엔

이따금 산새 울음소리

나무잎새 흔드는 솔바람소리뿐

여기에 산다

우리 마을 산림보호원아바이

집도 일터도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의 뿌리까지도

이 산정에 내리우고 산다

언제부터냐 그 마음

물으면 병글히 사람좋게 여기단면

애당초 산에 오르지도 못했을거라고

오, 땅을 아끼는 마음만이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많듯이

산중의 많고많은 그 나무나무여도

끌고루 주고도 더 주어야 할 그 정이

번호로 이름으로 나이로

그의 작은 목책에 다 적혀있어라

그 마음이란다

아침이면 품에 안듯 애기모 들고

집마당을 나서기가 버릇으로 된것도

그 어느 구석의 빈자리를 보아도

내 조국 아름다움의 한부분이 비여있음을

그리도 가슴아파나는것도

그래서 한밤중 우뢰울고 번개치여도

생각은 먼저 산생각

걱정도 먼저 나무걱정

그때문에 무겁게 흠도 지고 거름도 지고

허둥지둥

그 가파로운 바위덕에 오르기도 이제는 수천번

정녕 그것이 무어나고 물으면

한마디 웅심깊은 그 말이 뜨겁구나

우리 장군님 어느때든

이 산기슭을 지나실 때

산 푸르고 숲이 푸르러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시라고-

오, 그 소원으로 여기 살아

나무나무도 그 마음 알고자라

숲도 푸른숲, 그 마음도 젊어사는 마음-

우리 산림보호원 그의 마음만은

산에 있을 때 제일 즐겁다누나

아 설레임소리, 숲의 설레임소리

온 산판이 그를 축복하는 기쁨의 소리

지켜가고있어라

장군님의 국토건설구상이 활짝 꽃피는

삼천리 금수강산 사회주의 참모습을!

흔들국화

장미현

나는 뒤를 돌아보고싶지 않았다.

《동문 정말 말을 멋지게 모는군요!》

뒤에 앉은 띄메전장의 단발머리는 벌써 세번이나 칭찬을 하였지만 나는 방목지의 반장한테서 싫은 말을 들었을 때처럼 귀등으로 들으며 말고삐만을 나꾸채곤하였다.

마차는 우불구불한 산골길을 재치있게 달리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건만 이따금 울려오는 포성이 새들을 놀래웠다.

산골길 랑쪽기슭엔 전쟁이란 그 준엄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여기저기 들국화들이 무대기를 이루어 하얗게 피어있었다.

마치 가을철에는 자기들이 대지의 주인임을 자랑하듯 바람결에 향기를 날리고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나는 그 꽃향기에 유혹되었을 것이며 방목지에서처럼 보라색보다 흰색을 더 좋아하는 그 취미대로 흰 들국화 한송이를 모자춤에 멋으로 꽂았을것이다.

허나 지금은 그럴 기분이 전혀 없었다.

마치도 지난해 5.1절 군로동자써클공연 피리독주에서 유감스럽게도 3등으로 평가된 그때의 그 기분이었다.

1등은 문제없다고 장단을 하고 떠났던 내가 3등을 하고 목장으로 돌아오던 그날과 어찌면 그리도 같을가.

《우리 군의소에선 동무를 반겨맞을거예요. 전사한 마사원아바이도 말을 잘 몰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달려본적은 없었어요.》

마차에 앉은 경리간호원의 말이였다. 나의 기분에 대해서는 영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말만 하고있었다.

열살때부터 손에 말고삐와 채찍을 쥐고 마차를 몰아온 나였지만 군의소 경리간호원동무가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야전군의소의 환영을 받고싶은 생각은 없었고 훌륭한 마사원이 되고싶은 마음은 더욱 없었다.

사단대렬과에서 신입대원들중에 말을 몰줄 아는 동무는 대렬앞에 나서라고 하였을 때에도, 대렬참모가 나의 어깨를 두드리주며 《동문 행운ாய요!》 하고 롱말을 하였을 때에도 나는 나이를 한 살 불쑥 스물세살이라 대답한 자기에게 이러한 전투임무가 기다리고있을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참, 기가 막혀서... 전선이 코앞인데 전선에는 나가지 못하고... 마차를 몰다니... 우리 고향에서 이 일을 안다면 얼마나 섭섭해할가.)

여기서부터 머나먼 북쪽인 우리 고향사람들이 동구밖에까지 따라나와서 전선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라고, 개마고원의 영웅이 돼서 100리 방목지 목동의 이름을 떨치라고 당부하던 그때부터 여기에 오기까지 줄곧 생각한것은 경찰병이 아니면 습격조원이 되어 언제나 통쾌한 싸움만을 하는것이였다.

군인선서를 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밖에는 없다는 이 엄격한 요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마차에 앉지도 않았을것이였다.

지금 나의 뒤에 직급상 상관이 앉아있지만 나는 자신의 기분을 보이고싶지 않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동문 말하는것을 싫어하는군요. 그럼 내 노래를 부를가요?》

경리간호원은 노래를 불렀다.

정의의 총칼로써 원수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이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참 노래를 잘 불렀다.

어찌나 노래를 멋지게 잘 부르는지 정말 포를 끌고 적진을 향해 맞받아 돌진해나가는듯하여 나의 가슴이 시원하기까지 하였다.

돌덩이같이 무겁게 가라앉았던 나의 마음이 은근히 들리기 시작했다.

(성악배우가 아닐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어때요? 노래가.》

《좋습니다.》

나는 얼결에 대답하였다.

《이 노랜 우리 학원기숙사의 호실장언니가 내가 입대하는 날 불러주었지요. 이 노랜 우리 호실동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우리 호실중창단은 학원적으로 소문났어요. 학원을 대표하여 평양시적으로 1등을 했답니다.》

어지간히 자랑을 좋아하는 녀자같았다.

그는 외할머니손에서 자라던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자 빛대신 지주집아이보개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 지주집 아이를 잠만 재운다고 지주너편네에게 부지깽이맛을 본것까지 다 이야기했다.

《동문 이 노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묻고서는 미처 내 대답도 듣지 않고 그는 또다시 그 노래를 불렀다.

참으로 고운 목소리였다.

전쟁이 아니라면 큰 무대에서 만사람의 박수와 재청의 박수갈채속에 울려야 했을 목소리였다.

달리는 마차우에서 울리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목청이었고 혼자서 감상하기에는 더없이 아쉬운 노래였다.

《싸우는 고지에서 부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들 몰라요. 마구 재청이지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그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되물었다.

《사단군의소가 아직도 먼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군의손 언제나 전선동무들과 함께 있어요. 동문 군의소에 배치된걸 좋아하지 않지요? 너무 상심말아요. 내가 마차 모는것을 다 배우면 동물 정찰병으로 보내 주게 할터예요. 내 보기엔 동문 정찰하러 갈 때 중학생으로 가장하면 좋겠어요.》

마치 자기가 사단대렬참모이라기도 한듯이 확신에 차서 말하였다.

나보다 한두살 더 먹었을가 말가하는 녀자가 제가 모든것을 쥐락펴락하는듯이 희뻑게 구는것이 마음에 없어 한마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동문 사단대렬참모를 겸하고있습니까?》

《왜요?... 동문 사단대렬참모동지만이 그렇게 할수 있을것 같어요? 지금 사단장을 대리하고계시는 사단참모장동지가 저의 큰아버지되는분이예요.》

그 말에 나는 말고삐를 힘껏 당기며 뒤를 돌아다보았다.

거짓말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이 동무가 사단참모장동지와 비슷한데가 있는가 가늠해보고싶어서였다.

군모실에서 가을바람에 날리는 앞이마의 곱슬머리, 오목눈, 가름한 얼굴... 한아름되게 안은 흰 들국화뭉속속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들국화의 흰 빛때문인지 유난히도 해맑췄다.

어쩌면 저리도 깨끗한 모습일까. 저 모습이 방금전에 우리 신입대원들을 만나준 사단참모장동지의 모습과 비슷했던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나도 모르게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경리간호원동무에게 나쁜 인상을 보이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특사동진 정말 재미납니다! 그런데 꽃을 왜 그렇게 많이 꺾었습니까?》

생각과 달리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다시한번 채찍을 휘둘렀다.

《아이참, 왜요? 꽃을 많이 꺾으면 안되나요? 이 꽃들을 병실마다에 꽃으려구요. 그저 전선으로만 나간다고 욕하는 우리 부상병들결에 이 꽃을 놓아주면 마음이 좀 안정될거야요.》

나는 어느덧 신바람이 났다. 뒤에는 어여쁜 얼굴의 특무상사견장을 단 처녀가 아니라 반백에 가까운 대좌동지가 앉아있는것만 같이 여겨졌다.

나는 배낭에서 피리를 꺼내어 한곡조 흐드러지게 넘기기까지 하였다.

우리의 상봉은 유쾌하고 뜻깊은, 전투원이 아니라 말을 몰게 됐다는 그 불쾌한 일만 아니었다면... 더욱 기분좋은 상봉이었을것이다. 그러나 좋은 동무를 만났다는 기쁨으로 하여 사단군의소의 마사원이 되었다는 유감은 한결 누그러졌다. 지내보니 류본심이란 이름을 가진 그는 참 좋은 동무였다.

그가 꺾어 안고온 한아름되는 그 들국화를 군의소 병실들의 책상우에서 보게 되었을 때 다정다감한 동무를 알게 된 기쁨이 한결 더 커짐을 느꼈다.

류본심은 군의소 경리간호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짬시간이 있을 때마다 병실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에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곤하였다.

부상병들은 그의 노래와 웃음소리를 듣고싶어 별로 어지러워지지도 않은 백조를 갈아줄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등잔불심지가 채 다 타지도 않았는데 새 심지를 바꾸어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다.

하기에 군의소에 있는 부상병들은 생활상 부족점을 자기 담당간호원이나 군의에게 말하기에 앞서 경리간호원을 찾아 알리기가 일쑤였고 또 그러면 살림살이에 가게방주인보다 더 간간한 그에게서 필요한 모든것을 다 해결받을수가 있었다.

그는 내가 마차를 손질하거나 개울가에 나가 말을 씻어줄 때면 어느새 따라나와 일손을 거들어주면서 나에게도 노래를 들려주었다.

좀 잔소리가 많은것이 약점이지는 하였지만 그의 뒤에 대단한분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좁한것은 결함으로 될것도 없다고 나는 인정해버리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어떻게 씻어주어야 하며 말이 어떤 풀을 좋아하는가, 말에게 먹이를 어떻게 먹여야 하며 말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고 어떤것을 싫어하는지, 말과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더 캐묻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설명해주곤하였다.

하여튼 그와의 이러저러한 계기들로 인연이 맺어져 나는 군의소일에 정을 붙이게 되었고 점차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를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말에 대하여 배워주는 일이 다 끝나지 못했는데 우리 둘 사이에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생겼다.

미제 공중비적무리가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우리 사단군의소에 폭탄과 소이탄을 마구 퍼부었

다.

두채의 병동에 불이 달리고 식당으로 쓰는 야전천막이 불타게 되어 군의소는 삼시에 폐허로 되었다.

류본심은 부상병들을 업어내오다가 심한 화상을 입었고 목에 큰 타박상을 받았다. 두명의 부상병이 희생되고 중상을 입어 위급하게 된 류본심을 곧 후방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철국동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내 꼭 돌아올테니...》

나는 입술을 가가스로 움직이며 중얼거리는 그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가를 알아차렸다.

그는 나의 마차에 실려 후송되었다. 나는 그가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짐작하였지만 기다리겠다고, 꼭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그에게 말하였다.

군의소도 최전선이라는 그의 말이 나에게서 다시금 되새겨졌다. 내가 식당에 달린 불을 끄느라고 하지 말고 부상병들을 업어내었다라면 그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줄곧 후회하고 자책하였다.

식량과 의약품, 부식물을 실어나르고 부상자들을 운반하던 그 주인, 중상자의 몸이 된 그를 나의 마차에 싣고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 듯 아팠다.

허나 전쟁은 이런 가슴아픈 일을 이겨낼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주인을 싣고가는 말도 지친듯 무거운 걸음걸이였다.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하나하나 앗아가는 원쑤 미제, 네놈들을 천백배 복수할것이며 이 땅 저쪽끝에까지라도 달려가서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해버리고 말리라는 마음으로 나는 두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류본심이 후방병원으로 떠나가버린 군의소는 자기의 본래대로의 일과는 여전히 진행되었으나 무엇인지 모를 빈구석이 생긴듯하였고 숨막히는 침묵이 여러날째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나는 그를 대신하여 경리원일까지 하였고 때때로 병동마당에서 피리를 조용히 불기도 하였다.

군의소에 드리운 그늘을 가시고싶은 심정에서였다.

물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보다는 류본심이 즐거이 부르던 그 노래곡조들이였다.

그리고 부상을 완치하여 다시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을 위해 들국화가지들을 꺾어다 류본심이 있을 때처럼 퇴원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엮기도 하였다.

자기 부대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낼 때면 나는 《잘 가십시오. 잘 싸우십시오.》라는 인사를 하였을뿐 《다시 만나자》든가 《또 오십시오》라는

인사말은 하지 않았다. 군의소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었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였기때문이었다.

부상병이 들어오고 떠나가고 또 우리 군의소가 전진하는 부대와 함께 자리를 옮겨가는것을 몇 차례 거듭하는 그 날에 나는 늘 누나처럼 따르던 류본심에 대해 생각하였고 은근히 그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였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러하였고 또 그가 오기전에는 여기서 떠날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느꼈기때문이었다.

그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는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한가지의 미묘한 심리가 자리잡고있었다.

그것은 참모장으로 있던 그의 큰아버지가 사단장으로 승급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것이다. 그 소식은 불쑥 나의 가슴속에 사단장동지를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주었다.

류본심동무를 중상입힌 미제놈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나의 심정을 그대로 그가 알게 되면 사단장은 나를 사단군의소 마사원으로 두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군의소마사원이 사단장을 만날 기회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군의소골짜기에 푸른 나무잎들에 록음지고 무성하였을 때 경리간호원 류본심이 나타났다.

그가 부상이 회복되어 군의소에 나타난것은 온 군의소의 경사였고 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경리간호원동지! 전사 마철국...》

나의 기쁨에 찬 이 높은 목소리는 자신의 손이 군모채양옆으로 올라가다가 멎는 그 순간 푹 그치고말았다.

나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그렇듯 해말쑥하던, 포연에도 해빛에도 탈줄 모르던 그의 본래의 얼굴, 그 얼굴이 아니였다.

얼굴엔 험한 화상자리가 그대로 드러나있었고 목에는 보기에도 가슴아프게 안겨오는 상처자욱이 있었다.

《마사원동무!...》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청아하던 목소리 그토록 전사들을 고향의 언덕으로 불러주고 총가목을 더욱 굳게 잡도록 하여주던 그런 고운목소리가 아니라 거센 목소리였다.

이 몸으로 그가 체대되지 않고 다시 전선에 간다는 그것이 나뿐아니라 군의소장으로부터 취사원 상등병아바이에 이르기까지 놀람을 자아냈다.

《동무가 내대신 부상병들에게 피리를 불어주곤 하였다면서요?》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듯 그

는 나의 두손을 꼭 쥐고 이런 말부터 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기색이 피어났다.

군요소의 부상병들과 군의, 간호원들이 후방병원의 그에게 자주 편지를 썼었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이런 내용까지 써보낸줄은 몰랐었고 더우기 내가 피리로 부상병들의 기분을 돋구어주려고 애를 썼던것이 그렇듯 류본심을 기쁘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에게 피리를 꼭 배워주지요?》

부상병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것이 치료에서 큰 효력을 가진다는것을 여러번 듣기는 하였지만 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달리 대답하였다.

《나는 피리로 동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지요. 사실 그 노래야 피리로 부르기보다 목청으로 불려야 하는건데...》

나는 군요소의 부상병들이 나의 피리소리를 듣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군하였다는것과 또 내가 그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피리뿐아니라 목청으로도 불렀다는것을 말하고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이 군요소에 꼭 필요하다는것을 말하려고 하였는데 나의 이 말이 그를 그렇듯 무거운 기분에 잠기게 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

《?...》

《내가 동무하고 약속한걸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그렇지만 어쩐지 난 동무와 헤어지고싶지 않아요. 이제 내 더는 동무를 붙잡지 않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동무한테 부탁하고싶은것은... 나한테 피리부는법을 꼭 배워주교세요.》

그가 하는 그 절절한 말마디에는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잃었다는 서글픔과 함께 목청으로가 아니라 악기로도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할수 있다는 희망이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그래, 배웁시다. 내 이제 꼭 배워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불현듯 생각이 난듯이 이렇게 뒤말을 이었다.

《저- 동무의 <큰아버지>가 사단장으로 된걸 압니까?》

그는 나의 이 말뒤에 담긴 뜻을 죄다 이해하였던지 조금도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알고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피리부는것을 배우는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겁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하였다.

사실 군복을 입은 첫 시기에 나의 상급으로서 군사복무를 함께 한 처녀군인과 머지 않아 헤어지게 될것인데 그의 부탁을 거절하는것은 남아로서만이 아니라 병사로서 도리에 아주 어긋난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 그의 수교와 《알선》이 없이는 이

군요소에서와 마사원처지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로 옮겨가는것이 결코 쉽게 풀리지 않을것이라는 예감도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싸움마당을 넘나들었고 오가는 그 길에서 피리부는법을 그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였다.

음악적감각이 천성적으로 예민한 류본심은 피리를 인차 볼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군요소는 사단과 함께 두번씩이나 이동하여 앞으로 전진하였다.

《동문 이젠 피리에서 우리 사단에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겠습니다. 으뜸이란 말입니다. 피리소리를 정말로 귀신처럼 가려듣는 우리 목장 반장아바이가 들어도 두손을 들것입니다.》

어느날 식당에 가져갈 부식물을 한마차 싣고오면서 그가 부르는 피리소리에 잠겨있던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서는 나는 더이상 기다릴수 없고 또 나의 희망을 꼭 성취하고야말겠다는 그 한마음으로 고향땅 마을선전실에서 전선으로 탄원할 때처럼 단호하게 그에게 선언하였다.

《난 매일 사단장동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매일 의약품을 실으려 사단지휘부가 있는 골짜기에 가는 기회에 나는 지휘부에 들리겠다는것을 귀뻐하고싶어서였다.

《정말 동문 우리 군요소 일이 그렇게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사실 동무가 후방병원에 간 동안 사단장동지를 만날 기회가 두번씩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부상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를 잃어버린 류본심이 더없이 동정스러웠지만 최전선으로 향한 나의 희망을 실현시켜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결단성있게 실행할줄 모르는 그에게 유감스러움을 서슴없이 표현해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

그는 나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몹시 난처해하였다.

무엇인가 나에게 숨기고있으며 또 무엇인가 선풍 고백하지 못하고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것이 나에게 안겨왔다. 나도 또한 그것을 직감하였다.

《그럼 매일 사단장동지를 만나자요. 내 사단장동지에게 동무에 대한 얘기를 죄다 할게요.》

그의 말은 조용하게 울렸지만 나는 자신의 희망이 당장에 다 실현된듯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사단장을 만나려던 우리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날 우리에게는 뜻밖의 명령이 내리어졌다.

사단이 공격작전을 개시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나는 마차에 담가대원들을 싣고 전투지역으로 떠

났다.

공격작전은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였다.

원수들은 단말마적으로 발악하였으며 저항하였다.

우리는 부대가 점령한 고지들에서 많은 부상자들을 실어서 후송하였다.

그런데 그 부상자들중에서 누군가가 부대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사단장동지가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팔과 허리에 상처를 입고 정신이 없는 사단장동지는 연락병의 호위하에 담가로부터 나의 마차에 실려졌다. 마지막 후송마차였다.

후송마차에 누운 사단장은 자기가 어디로 실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심한 출혈을 했다는것조차 모르고있었다.

나와 류본심은 사단장동지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마차를 몰았다. 채찍이 달리는 말잔등우에서 련이어 쇠소리를 냈으나 나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였다.

나는 마차에 수많은 사람들, 부상자들을 실어날랐고 의약품과 식량을 운반하였다. 하지만 나의 이 마차에 사단장동지를 태우리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단장동지! 사단장동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군의소에 가서 구급처치를 받고 그 다음 후방병원으로 가면 일없을것입니다. 그러면 다 됩니까...》

나도 후방병원에서 목을 수술하고 얼굴을 수술하고 이렇게 전선에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울음절반, 눈물절반 애끓는 경리간호원의 목소리가 나의 등뒤에서 울리었다.

경리간호원 류본심은 이렇게 사단장동지가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가느다랗게 낼 때마다 애타게 부르짖었다.

《사단장동진 꼭 살아야 해요. 전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사단장동진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편지를 써보내지 않았습니까! 살아서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는 우리 지휘관, 최전선에 설 나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사단장동지를 중상입힌 양키들에게 당장 불벼락을 내려 요정내고싶은 충동으로 뒤잔등에 메고있던 파발총을 앞으로 당겨놓았다.

질풍같이 달리는 마차우에서 나의 마음 한구석은 이제 사단장동지가 떠나게 되면 나에게는 최전선 앞자리에 설 가망이 없어진다는 섭섭한 감으로하여 더욱 아파났다.

아니 지금 나의 마음에 대비조차 할수 없으리만치 류본심의 가슴은 미어질것이었다.

언제나 노래속에, 피리소리속에 달리던 마차, 포화속을 뚫고 나온뒤에 고르롭게 울리는 말발굽소리에 맞춰 때로는 구성지게도 때로는 구슬프게

도 때로는 밝게도 노래소리가 울리던 나의 마차였다.

《특사동지! 이젠 그만하십시오!》

나는 그가 《꼭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도 무섭게 들리었고 또 나나 연락병때문에 자기 큰아버지를 큰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군사규정의 요구대로 《사단장동지!》라고만 부르는것이 딱하여 머리를 뒤로 돌리면서 이렇게 권고하고말았다.

《마차나 잘 모세요!》

그는 오히려 나를 향하여 이렇게 타일렸다.

나의 마차 모는 솜씨가 어떠하며 지금 마차가 둔덕지와 내리막길, 돌부리를 얼마나 맴있게 피해가고있는가를 모르지 않을텐데 그는 마치 서툰 마사원이 말고삐를 쥐고있는듯이 말하는것이였다.

마차는 산굽이를 돌고있었다.

굽인돌이를 돈 마차를 쏘살같이 내몰 심산으로 채찍을 머리우에 휘두르려고 앞을 내다본 순간 나는 흠칫 놀랐다.

뜻밖에도 앞에는 적들이 있었다.

《마차를 세워요!》

갑자기 경리간호원이 단호하면서도 거의 명령적으로 낮게 부르짖었다.

우리 앞의 굽인돌이에 십여명의 원수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전개되어 있었다.

《마차를 부락해요!》

이렇게 나지막하게 소리치며 경리간호원 류본심은 어느새 한손에 수류탄을 꺼내들고 한손에는 파바리를 쥔채 마차에서 냉큼 뛰어내렸다.

《마사원동무! 자기 뒤에 누가 있는가를 잊지 마세요. 꼭 명심해요!》

그는 전투자세를 취하고 피곳 나를 돌아다보며 소리치듯 말하였다.

그가 무엇을 결심하였는가를 순간에 알아차린 연락병이 뒤따라 마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동무! 사단장동지를 부락하오!》하고 소리쳤다.

이것은 모두 눈깜짝할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땅- 땅- 따땅》

벌써 경리간호원, 연락병의 총소리가 울리었고 련이어 수류탄이 터졌다.

사단장동지는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내쉬고있었다.

나는 말머리를 옆골짜기로 잡아챘고 말잔등에 채찍을 힘껏 내리찍었다.

마차는 옆으로 뻗은 우무러진 골안으로 달리었다.

아직 일생에서 나는 그렇게 길아닌 길로 말을 힘껏 몰아본 일이 없었으며 그렇게 세팔개 말을 때려본적도 없었다.

나는 마차를 몰아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자지러진 총소리, 끝안을 터치는 수류탄소리!
점점 그 소리는 멀어졌다!

참으로 나는 상상할수 없는 그런 길아닌 길로
초인간적인 힘으로 끝끝내 목적지인 군의소에 당
도하였다.

말과 나는 온통 물속을 헤쳐온듯 땀으로 범벅
졌다. 이때처럼 나의 말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
운적은 없었다.

군의소에서는 사단장동지에 대한 구급처치를
위한 긴장하고 아슬아슬한 치료전투가 벌어졌다.
사단장의 생명이 구원될 전망이 확고해졌다.

나는 정말로 다행스럽고 기뻐다.

그러나 그 기쁨도 얼마가지 못했다.

경리간호원 류본심과 이번 마차우에서 처음 낮
을 익힌 사단장의 연락병은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을 찾아떠난 다섯명의 전사들에게서도 아
직 소식이 없었다.

나는 마치도 사단장의 연락병처럼 연락병임무
를 수행하면서 그들이 꼭 돌아오리라고 믿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산골길을
달려왔던가를 말하고싶었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
는가 하는것도 사단장동지의 생명을 구원한 그
기쁨도 함께 나누고싶었다.

《연락병 동무...》

사단장동지는 밤중에야 의식이 회복되었고 이
렇게 자기 연락병을 찾았다.

《사단장동지, 정신이 들니까?》

《아니? 동무... 동문 누구요? 연락병 동무는?...》

사단장동지는 힘겨워하면서 띠엮띠엮 속삭이듯
물었다.

《사단장동지, 차차 알게 됩니다. 지금은 절대안
정해야 합니다.》

나의 간곡한 이 말에도 사단장동지는 아랑곳하
지 않고 계속 묻는것이였다.

《나를 업어온 그 피골새간호원동문...》

그것은 경리간호원 류본심동무를 녀두에 둔 말
이였다.

분명 자기 조카인데 그런 티가 전혀 없는 물음
이였다.

《아직... 사단장동지, 그 동문 바로 사단장동지
의 조카입니다. 류본심입니다.》

사단장동지는 상처의 아픔이 좀 가신듯 눈을
슬그머니 감고있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뭐 나의 조카?... 류본심이지, 류본심... 그랜
참 좋은 동무요. 나에게 있어서는 조카라기보다
친팔과 같은 애지...》

《예? 그럼 그 동무가 조카가 아니란 말입니
까?》

나는 사단장동지가 절대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
는 증상자라는것을 잊어먹은듯 성급하게 다시 말

하였다.

《류본심동문 늘 자기가 사단장동지의 조카라는
것을 나한테 암시했습니다. 자기 뒤에 바로 삼촌
인 사단장동지가 있기때문에 늘 든든하다고 말입
니다.》

사단장동지는 말없이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
었다.

상처의 아픔이 가슴에 미쳐오는지 다시금 두눈
을 쏘프리더니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그래서 본심일 참 좋은 동무라 하지 않소. 정
말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를 잘 알고있는 동무
요...》

이렇게 말꼬리를 맺더니 잠시 동안을 두고 다
시 조용히 올리는 사단장동지의 말이였다.

《동무가 마사원이라 하였지. 본심이와 같이 마
차를 타면서 전투를 했고 생사를 같이한 동무지.
마사원동무! 본심인 내 혁명전우의 딸이요. 잊지
못할 나의 혁명동지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란 말
이요. 그애 아버지는 지금 저 동북땅 액목현의
한 이름없는 산골짜기에 누워있소. 우리 중대정
치지도원이였던 본심이 아버지인 그엘 우리에게 부
탁하고 눈을 감았소. 열병에 어머니마저 여의고
외할머니집에서 살고있는 그엘 딸이요.

우리가 조국을 해방하고 찾아가보니 그애는 고향
길주엔 없었소. 할머니마저 돌아가게 되자 그
애는 빛대신에 팔려갔다는것이였소.》

사단장동지가 힘겹게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이 전우의 딸을 찾기 위해
술한 고생을 하였다.

해방된 그 이듬해봄에 평양방직공장에서 소년
로동을 하고있는 류본심일 찾았을 때 우리의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시였다
고하였다. 아버지의 전우들이라는것을 본심이 알
았을때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것처럼 말을 동동
굴렀으며 그렇게도 서럽게 울었고 그는
아버이수령님의 분부대로 학원에 갔었다

본심인 전쟁이 일어나자 역지를 써서 인민군대
에 입대하였다.

상처의 아픔으로 힘겹게 말하는 사단장동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는 놀랐다.

(아, 본심동무는 그런 동무였구나. 그는 자기뒤
에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시고 조국이 있다
는것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알고있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의 가슴은 몽쿨하였다.

그렇다. 나의 뒤에 누가 계시며 무엇이 자기를
지켜주며 바라보고있는가를 아직 한번도 생각하
지못한 나에게 있어서 사단장동지의 그 말은 참
으로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나도 류본심처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없
는 몸이였다. 해방전 열병으로 약 한첩 못써보고
모두가 저 세상으로 가버리였다. (그때 나는 지

주집 양물이로 먼 방목지에 가 있었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도 **김일성**장군님이 계시고 어머니조국이 있으며 나를 그토록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우리 목장 사람들과 가을이면 들국화가 온 들판을 그리도 하얗게 물들이던 고향땅이 있는 것이다.

비로소 이런 생각이 새삼스러이 안겨왔다.

류본심-그가 나에게 말하고싶은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조용히 잠든 사단장 침대결에서 밤을 새면서 나는 사단장동지를 만나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던가 하는 그전의 그 모든 생각을 말끔히 잊어버리고말았다.

참으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있었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밤이었다.

다음날 이른새벽 사단장동지는 위생차에 실려 멀리 후방병원으로가 아니라 그의 강경한 명령에 의해 사단지휘부로 떠났다.

《련락병동무! 나하고 같이 가세요!》

떠나려는 자동차에서 사단장동지는 마사원인 나를 이렇게 부르며 말하였다.

《사단장동지! 아닙니다. 저는 여기 군의소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류본심동두가 돌아온 다음 가겠습니다.》

《그럼 잘 있소. 자 이젠 동무한테 기념으로 주는거요. 사실 본심이에게 주려고 한것인데...》 하면서 사단장동지는 웃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서 나에게 주었다.

그것은 하모니카였다.

우리는 이렇게 헤어졌다.

미제원쑤와의 판가리하는 싸움은 여전히 가렬하게 계속되었고 나의 마차도 포연탄우속에서 쉬임없이 달리였다.

그속에서도 나는 류본심동무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였다.

그날도 여느 가을날처럼 하늘은 높았고 유난히도 푸르렀다.

약품을 한가득 싣고 군의소로 돌아가는 나의

마차는 포소리를 뒤에 남겨두고 그 걸음을 천천히 하고있었다.

나는 군단지휘부에서 받아두었던 전선신문을 펼치였다.

신문을 읽어내려가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내려다보는 신문지상에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류본심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것이 아닌가!

나는 성급히 읽어내려갔다.

거기에는 그가 혁명동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과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가가 생동한 필체로 자세히 소개되어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진까지 나붙어있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씻을념도 못하고 그의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방그레 웃고있는 그의 모습, 특사전장의 처녀, 보고도 또 보고싶은 아름다운 얼굴이였다.

이런 아름다운 처녀는 정말 이 세상에 있을것 같지 않았다.

언제나 명랑하게 밝게 웃으며 나를 대해주던 류본심동무, 머리에 흰 들국화꽃 한송이를 꽂고 한아름되게 들국화묵음을 안고 나의 마차우에 앉아서 그렇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그의 얼굴이 나의 눈앞에 크게 안겨왔다.

나는 생각하였다.

류본심, 그 어린 처녀의 마음속 아니 그의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듯 용감하고 사나이들보다도 억세여질수 있었던가를.

달리는 마차우에서 이런 생각에 잠겨 앉아있던 나는 문득 주위를 살펴보았다.

류본심동무와 첫 상봉을 하고 군의소로 갈 때 것처럼 나의 인상에 안겨왔던 들국화들이 예나 다름없이 여기저기에서 더미더미 하얗게 활짝 피여있었다.

자기의 억세고 깨끗한 마음처럼 자기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려는듯 가을바람에 꽃잎들이 하늘거리고있었다.

밝게 비쳐내리는 태양빛에 맞추어 자기의 흰빛을 더욱 뿌리면서...